



12

주 체 86 (1997)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6(1997)년 제 12 호

(루계 제 602 호)



◆◆◆◆◆◆◆◆◆◆

차례

◆◆◆◆◆◆◆◆◆◆

위대한 력사의 이날이 있어	4
이 환희, 이 격동을	4
환희속에서	6
작가들을 최상의 경지에 세워주시여	8
사랑의 철학과 량만적인 생활	10
밝은 미소	13
눈송이	22
몸소 지으신 배낭	23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24
나의 천만리 (외1편)	25
백두산의 봄	25
진달래를 안으셨네	26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꽃피난 애국적 상공인들의 참된 삶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	27
어머님과 미래	30
혁명의 어머니	31
사랑과 아버지	33
백두산의 녀장수	34

아 우리 어머니	37
회령에서	45
영웅의 삶은 저 하늘처럼 영원하리	48
룡암산의 화불	51
뵈고싶었습니다	60
꽃속에 열매속에	61
쌈줄기	62
때없이 걷는 두렁길에서	70
어머니의 고백	71
주체86년은 말한다	78
통일의 모습을 그리며	79

위대한 력사의 이날이 있어

최정용

가슴벅찬 이 기쁨
그 무슨 말이면 다 전하랴
끓어오르는 이 격정
그 무슨 노래이면 다 터치랴

하늘도 더 푸르러지고
거리와 마을도 더 밝아진 오늘은
수려한 산천이 더 귀중해지고
흐르는 물, 우짚는 새소리도
더 유정해진 오늘은
바라고바라던 우리 소원
이루어진 날이거니

언제면 그 언제면
아버이수령님 뜻대로
우리 장군님 더 높이 모실가
가슴마다 타끓는 인민의 진정
그이 언제면 받아주실가
충의에 불타는 천만심장에 받들려
높이 추대되신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고
동지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
그 숭고한 위인상에 매혹되고
그 고결한 인간애에 끌리며
오래전부터 그이를 우러러모셔왔기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오직 한분의 령수

그 위대한 심장의 박동으로
천만심장 하나로 고동쳐온 우리 당

그이 추켜드신 신념의 붉은기 높이 들고
불패의 그 위력 만방에 펼쳐가는 우리 당

진정 강철의 당 주체의 당으로
조선로동당을 이끌어오신
그이의 령도가 없었다면
이 시대 험난한 세파속에서
그 누가 사회주의보루를 지켜내고
그 누가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랴

그이와 함께라면
넘지 못할 험한 령이 우리에게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우리에게 없거니
천만대적이 무엇이랴
그이만 계시면
세상에 두려운것 우리 몰라랴

흰눈덮인 백두밀림
광명성 탄생을 만방에 알리던 투사들
그날에 환희에 넘쳐 내다보던 미래가
현실로 꽃피난 오늘에
백두의 혈통이 만대로 이어지고
마주오는 21세기가 한껏 축복받은 오늘에
내 긍지높이 내다보는 미래여

아, 명절중의 명절인 이날이 있어
우리 행성에 새 세기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위대한 력사의 이날이 있어
만년초석우에 담보된 우리 삶이 있어라
무궁변영할 래일의 조선이 있고
주체의 해빛 더욱 찬연할
래일의 세계가 있어라

이 환희, 이 격동을

김정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
중대방송이 울려나오는 평양역의 아침
진정할수 없이 서두르며
나는 바빠 흠으로 나간다

이 경사를 특호활자로 찍은
신문들이 쏟아지고

특보전파가 우주공간으로 날으고
궤도전차며 빠스도 온통 환희를 싣고
드끓는 평양, 격동하는 조선

역사 지붕우의 시계탑에선
시계바늘도 환희에 겨워 떨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갑자기 내 출장임무도 더 무기워진듯
발차시간도 앞당기자 재촉하고도싶는데
1번홉 출발선에 들어서는 새 기관차
앞머리에 새겨진 붉은기도 기세차구나

이 어떤 행운인가
이런 날 이런 열차에 올라 길떠남은
벽찬 가슴 달랠길 없는데
울려퍼지는 기적소리
들으라 시대의 하늘을 흔드는
고고성같은 저 메아리
지축을 흔드는 차바퀴소리

어느새 열차는
대동강철다리에 들어선다
강철경간에 울리는 금속성마저
오늘은 새로운 교향악으로 울려라
얼마나 장쾌한 달음이나
얼마나 날파람있는 속도나

큰 길가에서, 강변 유보도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
사단인가 군단인가
교외의 건설장을 덮은 군대들이
장령도 전사도 안고돌며 만세!만세!
기발을 저으며 날리며
격정의 파도를 일쿠고
환호의 바다를 펼친다

벼가울하던 농장원들은 출판을 벌리는구나
아름아름 벼포기들을 베어놓히던
수확기도 멈춰세우고
운전공처녀도 출판에 뛰어 들고

아 강산을 뒤흔들고
온 세상을 들었다놓는 환호에
하늘도 큰 웃음 터치는가
금풍이 일어라

금풍이 일어라
이런 날 구름 한점 있을세라
가을하늘 창창 구만리로 열리어라
황금전야가 뒤설레여라
날알향기 실어가고 실어오고
언덕마다 호합진 들국화 피어피어
일렁이는 꽃바다 꽃파도

황금가을 좋은 계절에

우리 장군님 당의 수위에
받들어 높이 모시었으니
백두산정에서 저 제주 서귀포 도래굽이까지
차고넘치는 열광을 담아실고
바람이여 일어라, 파도여 설레여라

이 나라 산천초목이
온 나라, 온 인민이 보내는 축복
하늘이 땅이 온 세상이 보내는 축원
그 한복판을 누비는 최대급행열차

내 지금 열차에 탔는가
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열차를 마주 다가오는 저기
저 언덕은 새 세기의 언덕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저기서 원한의 분계선부터 부서진다
벌써 나는 듣는다
그이를 맞이하여 뿜는 남녘의 환호성을
벌써 나는 본다
그이 사랑과 인덕의 큰 품에 안기는
남녘겨레들의 뜨거운 눈물을
벌써 나는 읽는다
김정일 그이의 존함밑에 씌여지는
통일조선사의 새 장 새 절들을

굴으는 차바퀴소리
다시 울려오는 기적소리
이 열차에 우리 장군님 모시고 가는듯
그렇다 우리 장군님 력사의 기관차에 오르셔서
그렇다 시대의 방향타를 잡으시고
물고 가시도다 새 세기로

저기 새 세기의 언덕우에 떠오르는
승리한 사회주의강국
그 위용 펼치는 주체조선
세계혁명의 거류를 이끄시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모습이여

21세기여 22세기여
미래여
푸른 기발 푸른 신호등만 쳐들고
이 평양역발 《붉은기》호를 맞이하라
오늘의 이 환희 이 격동을 그대로
세기에서 세기로 이으며
영원히 환호하라!

환희속에서

신용선

오후 5시에 중대방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집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오래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던것이다. 환자에게 있어서 지나친 흥분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는 평안남도 당대표회 이후부터 내내 흥분속에서 시간과 날을 보내고 있다.

병상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요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진행되고있는 당대표회 소식을 빠짐없이 텔레비존을 통해 시청하였고 저녁마다 나에게 신문을 읽어줄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이즈막에 나는 저녁식사후면 어김없는 일과처럼 어머니에게 당보에 실린 사실과 정론으로부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소식들을 읽어드린다.

그때면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과 눈에선 다함없는 걱정과 흥분, 거기에 그 어떤 초조감이 한데 섞여 뚜렷이 나타나군하였다.

나는 생활과 경험을 통해 그것이 20대 젊은 시절부터 70고령에 이른 오늘까지 가슴우에 당원증을 엮고 한생을 변함없이 깨끗하게 살아온 로당원의 남다른 흥분인 동시에 삼년석달 우리의 간절한 열망에 대한 이름할수 없는 초조감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어머니는 자기의 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해왔고 또 그렇게 믿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느때없이 걸음을 재촉했고 역시 안정되지 않는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 젖어올랐다.

몇달째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새옷까지 갈아입고 텔레비존수상기앞에 앉아있었던것이다. 모든 감정과 의사를 오직 눈으로밖에 표현할줄 모르는 어머니는 나를 따뜻하고 정겨운 눈길로 맞아주었다.

《어머니도 오늘 중대방송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나는 흥분을 애써 가라앉히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명색이 짙은 얼굴에 혈조가 내비쳤다.

화려하고 경쾌한 화면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시간은 분분초초 흘러갔다.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나는 벽시계 바늘을 자주 쳐다보았다.

시간은 몹시도 굼뜨게 흘렀다. 어쩌면 지구의 자전이 흐름을 멈춘듯싶기도 했다.

어머니도 안타까운 눈길로 벽시계를 쳐다보군하였다. 시계분침이 5시를 점점 가까이하자 강직된 표정근육이 움썹거렸고 눈에서 한가닥의 광채가 빛났다. 그다음 그 눈길에 인간의 천만가지 언어를 대신할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지금 눈빛의 변화를 통하여 가슴속에서 끓어넘치는 말을 하고있다는것을 짐작했고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써는 다 하지 못할 감사의 뜻과 깊은 추억이 어렸고 기쁨과 행복이 담겨졌다. 그리고 로당원의 공지와 자부심, 의무와 자각에 대한 진지한 사고과정이 비껴있었다.

그것은 다시 감격과 환희, 초조와 불안의 뜻으로 엇바뀌었다.

어느덧 시계바늘이 5시 정점에 이르자 화면에 낮익고 친근한 방송원이 나타났다.

삽시에 방안은 엄숙하고 긴장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어머니와 나는 숨소리까지 멈추고 특별보도 내용을 글로 쏘아박듯이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넣었다.

특별보도 마지막무렵에 방송원이 격조높은 어조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였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나 목청껏 만세를 웨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만세도 부르지 못했다. 그대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고있었다.

두볼을 마구 적시는 그 눈물이 바로 어머니가 온 녀과 심장으로 웨치는 만세소리였고 박수갈채라는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나의 눈가에서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너무나도 웅당한, 꼭 그렇게 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있었던만 이 시각의 감격과 기쁨은 류다르고 특이하였으며 그래서 더욱 솟구치는 눈물을 막을수 없었다.

그것은 사람이 한평생에 두번다시 체험하고 느낄수 없는 그렇듯 뜨겁고 열렬한 감정과 정서의 분출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견잡을길 없는 눈물과 함께 나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두손을 부둥켜잡았다.

《어머니! 들으셨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셨어요!》

나는 어머니가 언어기능이 마비된 그리고 절대로 흥분시켜서는 안될 환자라는것도 감감 잊고 떨리는 목소리로 웨쳤다.

그러자 뜻밖에도 어머니는 내 말을 기다리고 있거나 한듯, 마치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있던것이 말할 기회가 없었기때문이기라도 한듯 떠뜸떠뜸 입을 열었다.

《이…젠…됐…다…》

《?!!》

나는 어안이 빙빙해지고말았다. 그리고 귀를 의심하였다. 어쩌면 그 말이 어머니 입에서가 아니라 창밖 먼곳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놀라움이였고 의혹이었다.

몇달동안 한마디 말도 번지지 못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과장없이 말해서 나는 어머니의 병치료를 위해 자식으로서의 정성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했던만 전혀 차도가 없던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으니 어찌 놀랍고 신기하지 않겠는가!

한동안 멍하니 어머니의 입언저리만 지켜보고있던 나는 꿈속에서 깨어난 때처럼 자신을 수습하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다른 말씀을 더 해보세요!》

어린애와 같은 나의 부탁에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을 이었다.

《오늘의 이 경사를 맞고보니 나도 말을 하게 되었구나. 며칠후면 나도 저 통일거리광장에 나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겠다…》

말소리와 발음은 처음보다 더 명백하고 정확하였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지금 자기 입에서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말마디에 무척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표정이었다.

나역시 꿈같은 현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 옷층에 살고있는 의대병원 너의사네 집으로 뛰어올라갔다.

《…의사선생, 언어기능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하며 나는 방금전의 기적같은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의 병치료를 성의껏 도와준 너의사도 유순한 두눈에 깜짝 놀라는 빛을 담고 한동안 깊은 의혹에 잠겨있다가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기억중추 아니면 피의 흐름이 막혔던 모세혈관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반응을 일으킨것으로 짐작되는군요…》

《?!!》

불현듯 나의 뇌리에선 섬광과도 같은 불꽃이 확 피여올랐다. 동시에 심장이 뒤편이면서 숨이 막혔다. 귀전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되살아났다.

《오늘의 이 경사를 맞고보니 나도 말을 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단순히 언어기능회복이나 말이 아니라 로당원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서 용암처럼 터져 나오는 감격과 기쁨, 환희의 폭발이다.

미증유의 그 거대한 폭발이 불치로 여겼던 우리 어머니 건강을 회복시켰다고 나는 확인한다.

그렇다!나의 어머니는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다. 그것도 70고령에 환희의 고고성을 터쳤다.

사람들이여! 이것을 기적이나 전설같은 이야기로만 생각지 마시라!

수령복을 년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열망과 다함없는 충효가 꽃피워주는 평범한 현실이며 진실이다.

대하의 세찬 물결마냥 가슴을 치는 걱정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해빛은 밝다. 눈이 부시다.

풍요한 대지는 대통운의 경사로 흠치며 설레인다.

흰구름 몇점 떠있는 아득히 높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만민이 터뜨리는 축하의 환호성이 메아리친다.

눈에 안겨오는 그 모든것, 광장과 거리, 고층주택구역의 골목까지도 온통 춤바다를 펼치었다.

머지 않아 우리 어머니도 저 환희의 물결속에 뛰어들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것이다.



작가들을 최상의 경지에 세워주시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축원의 꽃바다로 펼쳐져 아름답게 장식된 이해의 령마루에 우리는 서있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우리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승리자의 기상을 떨쳐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로 날과 달이 이어져 더더욱 보람차고 긍지높은 삶이 꽃피는 한 해를 보낸 우리 인민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하늘같은 사랑만을 받아안으며 성장의 걸음을 또 한번 크게 내짚는 긍지와 자랑에 넘쳐 감회로운 추억에 잠겨들고있다.

그러면 의례히 우리 작가들을 주체문학건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이끄시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로고가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진다.

이 세상 가장 값높은 칭호를 지닌 우리 작가들이 걸어가는 문학창작의 길.

그 걸음걸음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생을 빛내가는 행복의 길이다.

일찍부터 우리 작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친근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여 따듯이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모든 나날은 그대로 우리 작가들에게 베푸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으로 차고넘친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던 그때부터 우리 작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직접적담당자인 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 오시였다.

우리 문학의 력사에서 보면 이 시기는 작가들의 창작과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매우 뜻깊은 시기이다.

작가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서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혁명적인 문예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때로는 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온하루 작품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를 가르쳐주시

고 때로는 깊은밤 전화로 작가들의 안목도 새롭게 띄워주시며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어느해인가는 창작가들의 모임에 친히 참석하시여 각기들의 생활과 창작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들도 분석해주시면서 문학예술창작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기도 하시였다.

작가들이 지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과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의 문예전선의 초병들이라는 귀중한 칭호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문학작품창작활동에서 더 큰 전환을 이룩하도록 새로운 조치까지 취하여주시였다.

하여 우리 작가들이 낡은 창작관습과 결별하고 당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절실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우리 문학이 철저히 당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문학으로 발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소설, 시, 희곡, 아동문학, 평론 등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작가들이 당의 문예전선의 초병답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의 사상정치생활과 창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창작조건과 생활조건, 지어는 사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결국 작가들이 지난 기간 문학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속에 이룩된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창작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령도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작가들을 우리 당의 진정한 협력군으로 키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작가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걱정의 파도로 세차게 가슴들먹이던 그날의 감격은 얼마나 컸던가.

작가들이 올린 맹세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한자 한자 새기시여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회답서한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
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
다.

1990. 12. 27

김정일

이 얼마나 심장을 뚫게 하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구절구절인가.

이 땅에 인류가 생기고 문학이 생겨난지도
수천 수만년 , 그때로부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생겨나 오랜 역사와 기록을
남겨오지만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도 작가들
의 사명과 임무가 이렇듯 숭고한 높이에서 밝
혀지고 작가들이 그렇듯 귀중한 존재로 된 때
는 없었다.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이 부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들에
게 영원히 당의 작가로서의 존엄을 빛내이며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믿어
주시는 높은 뜻이 깃들어있다.

회답서한은 길지 않지만 거기에는 작가들을
자신의 가까운 자리에 친근하고 미더운 동지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신임이 차넘치고
있다.

회답서한은 작가들뿐아니라 당과 수령, 인민
이 일심동체가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지식
인들, 우리의 전체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믿음의 글발이다.

작가가 생겨난 때로부터 그들의 지위와 역할
문제는 역사발전과 시대에 따라 계급과 혁명과
의 관계속에서 논의되고 그들은 시대의 대변자,
계급의 선각자, 혁명의 기수로 불리워왔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을 그
어떤 명예에도 비기지 못할 가장 값높은 칭호
로 부러주심으로써 작가의 지위와 역할을 위대
한 정도자와의 관계속에서 완벽하게 해명해 주
시였다.

인류의 문학사와 정치사는 자기 계급의 수령
들과 개별적사람들의 호상관계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남기고있으며 로동계급이 역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작가들이 수령의 위업에 공감
하고 지지 옹호하여왔음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나라에서처럼 정도자와 작
가가 혼연일체를 이루고 정도자의 사상과 의도
가 작가의 모든 창작활동에서 근본초석으로 되
여 정도자의 혁명위업수행에 작가들이 참담게
이바지하고있는 실례는 없다.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주
체 시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역사적시대
에 맞게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위치에 올려세워주
심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기수로 나설수
있게 된것이다.

정녕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크나큰 믿음을
안고있는 우리의 작가들처럼 행복한 사람들
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사랑, 그 믿음은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창작의 무한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작
가들은 지금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고 창작
의 붓을 힘있게 달리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만고
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
강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놓아가시는 로고의 자욱자욱을 문학작품들에
담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사색을 모아가고있
는 우리 작가들이다.

최근에만도 우리 작가들은 수많은 혁명적이
고 전투적인 작품들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
지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
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
려일으켰다.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막아서도 경애
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나 고귀한 칭호를
빛내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신념엔 조금도
드림이 없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하였
던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성장한 당의 작가, 인민의 작가답게
언제나 시대의 앞장에 서서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를 걸어갈 인민의 신심과 의지를
만방에 노래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과 임무
를 다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사랑의 철학과 랑만적인 생활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을 읽고-

김철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은 주로 철학이 있는가, 생활이 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철학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그 작품은 성공한 작품이다.》

철학과 생활의 통일, 바로 여기에 작품의 성공을 보여주는 기본특징이 있고 만사물을 공감시키고 격동시키는 작품의 힘이 있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류동호)은 철학이 있고 생활이 있는 작품이 성공한 작품이라는 귀중한 명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작품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서정적형상을 철학과 생활이 조화롭게 통일된 높은 경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사람들을 끝없이 매혹심취되게 하여주었다.

멀리 가까이 흐르는
높고낮은 산발들
붉게 타는 저녁해도
차창가에 따라서는
굽이굽이 전선길로
야전군용차는 달린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에 자기의 붓, 자기의 느낌을 따라세웠다. 서해안의 섬초소로부터 최전방구분대들을 거쳐 동해안의 해병구분대들에 이르기까지 조국땅을 종횡무진으로 누벼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 때로는 어둡질은 험한 령도 넘으시고 때로는 차디찬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들판도 지나시고 때로는 파도사나운 갑판우에도 서시고 적들을 지척에 둔 위험천만한 언덕우에도 나서시며 끝없이 끝없이 가고가시는 장군님의 전선길!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을 목매여 우리르며 따라서는 시인의 가슴속깊이에서는 감동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시적체험의 도가니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불퇴의 선이 그 어지는 최고사령관의 전선길!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불패의 위력이 다져지는 최고사령관의 전선길!

시인은 이 뜨거운 정서적체험의 열도속에 전선길에 대한 형상을 더욱 심화시켜 철학적종자를 시형상의 터전에 심어놓았다.

이 나라 운명의 길
위대한 승리로 빛나는 전선길
영웅병사들이 태어나고
혁명무력의 장엄한 력사가 흐르는
최고사령관의 전선길!
혁명의 크나큰 심장
자신의 심장에
이 나라 마지막병사들까지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놓으시는 길이어
병사들과 작별이 없는
최고사령관의 길이어

시인은 한결음 더 나아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수천수만리 전선길을 병사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의 길로 보고있으며 언제나 병사들을 마음속에 안고가시는 길로 보고있다.

《병사들과 작별이 없는 최고사령관의 전선길!》여기에 가장 위대한 장군, 가장 위대한 최고사령관이 지니신 숭고한 령군풍모를 근본적으로 특징지어주는 애병철학의 발견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한 령군풍모에 대한 시대와 인민의 뜨거운 절감과 체험의 정수가 있다.

믿음은 총병을 낳고 사랑은 강군을 키운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병철학! 사랑으로 전군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시고 사랑으로 군건설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는 최고사령관동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철학이 함축되어있고 시대의 력사적체험과 감동이 뜨겁게 응결되어있는 종자는 시의 형상에 역세고 튼튼한 사상의 줄기를 자래웠다.

병사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무력은 필승불패이며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위대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가시는 전선길을 따라 우리 혁명무력의 영웅성, 필승불패성이 빛

발쳐 나가고 가장 승고한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지고 있다.

작품의 세계를 살펴보라.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 크나큰 사랑이 흘러가고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았는가를...

병사들이 못내 보고싶으시여 너무도 눈에 익은 야전군용차를 타시고 끝없는 전선길을 가고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 구분대, 어느 초소에 가도 만날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병사들이건만 그 병사들을 그리도 잊지 못하시여 차안에서까지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시며 그 모습들을 그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옆에 앉은 련합부대지휘관 리중훈에게 조용히 말씀하신다.

자신께서는 정말 병사복이 있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승고한 령군풍모를 그대로 닮으시여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고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고가시는 야전군용차를 따라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위대한 력사가 흘러가고있다. 그 력사가운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이 지성담아 올린 산삼을 적구에서 돌아와 치료를 받고있는 정광선영웅에게 돌려주시는 감동적인 사랑의 전설도 있고 몸소 조향륜을 잡으시고 깊은 밤 바람세찬 험한 령길을 넘으시여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승고한 화폭도 있다.

시인은 격조높이 웨친다.

이 위대한 사랑, 하늘같은 믿음이 있어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뜨거운 불도를 깔아드리는 정성지극한 병사들이 있고 정광선영웅과 같은 신념의 강자, 의리의 강자가 있고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는 시구절을 가슴에 품고 불붙는 비행기를 바다로 이끌어난 길영조와 같은 영웅이 있으며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으로 투철한 천만대군이 있다고...

이 하나의 길우에서
우리 병사들
우리 근위병들은
하나, 오직 하나만을 안다
그것은
자기의 최고사령관밖에 모르는것
그것은 오직 하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 그 하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전선길을 따라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화폭이 마련되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애병철학의 가장 승고한 철학적바탕우에서 뜻깊게 구가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대의 위력인 일심단결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그 원천을 두고있음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작품이 가지는 심오한 철학적깊이와 사상정서적체험의 심도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작품에 구현된 철학과 정서적의미는 이렇듯 크고 심오하다.

서정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애병철학의 가장 승고한 철학적바탕우에서 뜻깊게 구가하였을뿐아니라 랑만적인 정서가 넘치는 풍만한 생활형상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작품의 시세계는 마치도 진주보화를 안고 출렁이는 맑고 푸른 바다를 련상시킨다. 귀중한 애병철학의 발견을 안고 출렁이는 생활과 랑만의 바다!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바다처럼 풍만한 생활을 안고있는 작품의 시형상은 랑만적인 색채로 질게 물들여져있다.

장군님 즐겁게 웃으시며
덤비지들 말고
가까이 모여앉자고
다정히 병사들을 부르시는데

문득
하얀 수건에 무엇인가 소중히 싼것
군복자락에 품어안은 병사들
장군님곁으로 달려와라
-최고사령관동지, 불돌입니다
-날씨가 찬데 깔고앉으십시오
-발밑에도 놓으십시오
-이 불돌이 더 뜨겁습니다

저저마다 제 불돌을 겨끔내기로
장군님앞에 놓으며
응석을 부리는듯
어리광을 부리는듯
어서 일어섰다 앉으시라고
그이의 팔을 부여잡고
밝게 웃는 병사들

경애하는 장군님과 병사들의 웃음, 뜻깊은 고지의 야전식사장에 뭉게뭉게 피여오르는 웃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이 대견하시여 못내 사랑스러우시여 기쁨에 겨워 웃으시고 병사

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 불독을 깔아드리는 행복에 취하여 웃고웃는다.

이 웃음에는 한점의 티도 그늘도 없다. 오직 최고사령관복과 병사복이 어울려 행복의 무아경을 이룬 가장 숭고하고 밝은 빛발, 친근하고 압동적인 정서만이 있을따름이다. 이것이 생활의 진실이고 바로 이것이 랑만이다.

작품은 병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되어있고 혁명승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락관으로 일관되어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생활을 구체적이고 생동하며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랑만의 정서를 세차게 뿜어올리고 있다.

신심과 락관, 무비의 배짱과 담력에 넘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서정적형상화!이 얼마나 의의있고 감명깊은 형상인가!

우리는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으며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붉은기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대오의 맨 앞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언제나 우러르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혁명적 락관과 랑만에 넘쳐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뵈옵는것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무적의 힘과 용기가 되고 높은 신심과 든든한 배심으로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서정서사시는 이처럼 시대정신의 정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랑만적인 서정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의 랑만적인 화폭은 격식과 꾸밈이 없는 생활그대로의 화폭이며 진실한 화폭이다.

끝없는 전선길을 달리는 최고사령부 야전군용차!

병사들의 환호의 메아리를 싣고 달리던 최고사령부야전군용차는 어느 바다가 도래굽이에 멈추어서기도 하고 어둠질은 험한 령을 넘기도 한다.

온 하루 야전군용차가 달린 길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과 함께 보내신 야외점심식사의 즐거운 한때도 있고 석양이 비낀 저녁도 있고 별이 돋는 깊은 밤도 있다. 야전군용차를 따라 작품에 펼쳐진 시적정황에는 이렇듯 굴곡과 기복도 있고 시간적공간과 순차도 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서 병사들은 언제나 떠나본적이 없으며 병사사랑의 숭고한 령사는 순간도 멈추어섬이 없이 한본새로 줄기차게 흘러가고있다. 그래서 야전군용차가 바다가 도래굽이를 가든, 깊은 밤 험한 령을 넘든 언제나 병사들을 마음속에 안고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세계, 생활에는 랑만적인 정서가 물결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병사들속에 계시는것

을 커다란 기쁨과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신가!

바로 여기에는 드릴수 없는 생활의 진실과 론리가 있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에 사랑의 령사를 따라세우고 랑만적인 색조와 정서로써 충만되게 함으로써 시형상의 생활적진실성과 감화력을 비상히 강화하고있는것이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돌려주신 꺾배기에 대한 세부는 매우 인상적이다.

달리는 차안에서 리중훈이 오늘 고지의 야전식사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손수 나누어주신 꺾배기도 별맛이었다고》 하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말씀드리는데-

그이는 기뻐하시며

-그렇다?! 꺾배기... 허허

사실 그건말이요

우리 집에서 만든거요

별로 준비를 못해서

오히려 전사들에게 미안하게 댔소...

얼마나 진실한 생활이며 얼마나 밝은 랑만인가. 여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병사들사이의 혈연적인 관계, 육친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가정적인 생활이 그대로 있고 끝없이 소탈하시고 친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에 특유한 랑만과 회열이 그대로 있다.

작품에서는 생활적인 세부만이 아니라 최고사령부 야전군용차가 가는 길우에서 맺어지는 가지가지의 사건과 사연, 사건발전의 매 계기들마다에서 체험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내면세계, 시인의 감동적인 주정토로 등이 모두 생활적인 진실성과 랑만성을 구현하고있다.

이처럼 서정서사시는 랑만적인 생활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격조높이 구가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병철학을 밝혀내고있다. 병사들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세계형상에서 랑만적인 생활은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철학이 움트고 자라며 빛을 뿌리는 가장 적합한 생활적인 토양이다.

사랑의 철학과 랑만적인 생활!

이런 경우를 두고 필연적인 련관이며 조화로운 통일이라고 말할것이다.

참으로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은 철학과 생활이 조화롭게 통일된 세련된 시형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과 숭고한 품모를 시대의 가장 높은 칭송과 찬양우에 올려세운 우리식 서정서사시문학의 또하나의 성과작이다.

밝은 미소

로종익

해방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이었다.

새벽에 저택으로 들어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잠깐 쉬지도 않으시고 아침식사를 하시자 또다시 현지지도의 먼길을 떠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대문기둥에 손을 얹어 의지하신채 점도록 서계시였다.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진지도 오랫동안이나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그 모습을 애타는 눈으로 바라보던 단발머리 인복이가 달려나왔다. 요즘 어머님께서 몸이 편치 않으시여 속이 탈대로 타는 인복이였다.

《어머님, 몸시 아프세요?》

《애두 참, 일없다.》

인복이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함께 싸우던 전우의 딸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부대선회작전때 희생되였다. 어머니마저 여의여 문전걸식하던 인복이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돌봐주는 어머님이시였다.

《어머님, 제가 잠깐 좀 다녀올래요.》

《학교엔 안가구?》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그래? 인차 오너라. 숙제를 해야지.》

방안에 들어와 앉으신 어머님께서서는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티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선 온갖 새들이 솟기도 하고 끈지기도 하고 원을 긋기도 하며 자유로이 날고있었다. 새들도 해방된 기쁨을 한껏 즐기려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것 같았다. 그것을 보시는 어머님께서서는 몹시 안타까우시였다.

벌써 사흘째나 대문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어머님이시였다. 밖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인력거를 타고 왔던 직조공장집 안택이라는 리해옥의 하얀 얼굴이 눈앞에 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제 리해옥은 저택으로 찾아와 적지 않는 돈을 내놓으며 받아달라고 하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리해옥이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깨워 주시였다.

《성의는 고마운데 받을수 없군요. 지금 우리 집생활은 아무런 불편도 없어요.》

《저는 장군님께서 평범한 노동자와 같이 똑같은 배급을 받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백성된 도리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일제를 몰아내고 조선독립을 이룩하시려고 백두산에서 풍찬로숙하신 장군님께서 해방된 오늘에도 그렇게 검소하게 지내신다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결...》

리해옥은 명주수건에 산 지전을 밀어놓았다.

그 돈우에 놓인 하얀 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어머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저 손으로 돈을 벌려고 낮이나 망치는커녕 방비 한번 쥐여보았겠는가. 련애소설갈피나 번졌을 손이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천천히 고개를 드시였다. 살갓이 류달리 맑은 얼굴, 쌍까풀진 눈, 작고 발기우리한 입술... 이런 류의 사치한 녀성들에게는 교태가 있기마련인데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는 혼자서 불안고 모대기듯한 그 어떤 수심이 어리여있었다. 그 수심이 어떤 사연에 뿌리를 두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너인의 성품은 소박하고 단정해보였다. 내놓은 돈에도 진정이 어린듯싶었다. 하지만 돈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납득시켜야 했다.

《우리는 지주나 자본가들처럼 제혼자 잘살자고 싸운건 아니예요. 인민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산다면 더 바랄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서는 돈을 밀어놓으며 굳이 사양하시였다. 큰맘 먹고 찾아왔을 리해옥이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타이르신 어머님께서서는 대문밖까지 따라나가 배래워주시였다.

그때 꼬리치마를 감싸쥐고 인력거에 올라가 앉던 리해옥의 모습이 지금도 잊을수 없으시였다. 리해옥은 어떤 녀성일까? 그를 다시 만나고싶으시였다. 정말 할 일은 산같이 쌓여있었다. 한시바삐 몸을 추세우지 않으면 일이 밀리고 일이 밀리면 새 조국건설도 그만큼 밀릴것이다. 인복이가 련화동에 의원이 있다면서 병을 보이자고 했는데... 인복이를 보내여 의원을 좀 와달라고 할가? 직접 찾아가 볼가? 어머님께서서는 인차 도리를 저으시였다. 만약 그런다면 아무래도 여러 동무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장군님께 아뢰여 큰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어느 료양소에 보낼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장군님을 보좌해드릴수 없게 될것이다.

바깥에서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리였다. 장군님을 모시는 승용차의 귀에 익은 경적소리는 아니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어머님께서서는 문을 여시였다.

뜨락으로 어제날의 재봉대원이었던 오정화가 인복의 손목을 잡고 들어오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대뜸 짐작이 가시였다. 인복이가 소동을 일으킨게 분명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오정화는 방안에 들어 서기바쁘게 푸념부터 앞세웠다.

《이렇게 얹으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지도 않다니? 섭섭하군요. 생각해보세요.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모시는 정숙동무가 얹으면 어떻게 해요. 귀중한 몸인데도 돌보지 않고...》

오정화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아끼고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있었다. 얼마나 미더운 전우인가. 어머니께서는 이런 전우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아픔이 저절로 낫는듯싶으시었다.

《당장 의원집으로 가자요.》

조용한 말보다 결정적인 행동을 앞세우는 오정화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놓지를 앉았다.

《넘러마세요. 가끔 이러군하니까 인차 나올거예요.》

《끼니까지 번지면서도 인차 나아요? 부상당한 후환인데 어떻게 인차 나아요? 정 안가겠다면 가서 의원을 데려와야겠어요.》

파단성있는 오정화여서 막 떠나려 했다. 의원이 오면 자연 누구라는걸 알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될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했다. 오정화의 권고도 권고였지만 하루빨리 몸을 추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자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의원집을 다녀올 결심을 내리시었다.

《정화동무앞에서는 어찌지 못하겠군요. 의원집으로 가겠어요. 그러되 저 승용차는 보냈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한데두요?》

《그 마음은 고마와요. 하지만 차는 보내세요.》

어머니께서는 나들이차림으로 수수한 검정치마에 흰옥당목저고리를 입으시고 밖에 나서시었다. 오정화앞에서 병이 심하지 않다는걸 보여주려고 바른 자세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럼 함께 가자요.》

《병 보러 가는데 뭐 여러사람이 가겠어요. 내 조용히 다녀올테니 마음 놓으랴요.》

오정화는 자그마한 시중도 받아들이지 않자 깔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정숙동문 너무해요. 정을 줄줄만 알고 받으려하지 않으니...》

《별소릴 다 하는군요. 내가 동무들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지 않고 외진 섬에서 혼자 사나요? 자꾸 그러지 말고 내 부탁이나 들어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어제 찾아왔던 리해옥이에 대하여 자초지종 알려주시었다.

《그 녀자의 래력을 좀 알아봐주세요. 그게 내 병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한번 품은 결심을 철회하지 않던 오정화였건만 병석에 계시면서도 줄곧 일에 몸을 잠그시는 어머니의 강의한 의지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 대문밖으로 나서시었을 때 인복이 가 달려가 팔을 잡았다.

《저하고 같이 가는건 일없지요? 예?》

《같이 가자. 나는 의원집을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저녁 총화에서는 자기비판을 단단히 해야 한다. 왜 그러는지 알겠니?》

《때려도 맞겠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의원집으로 가시니 제가 이겼지요 뭐.》

인복이는 천진하게 웃어보였다. 하긴 그의 응석때문에 웃을 때가 많았다. 그만큼 정이 들고 귀여워서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노여워도 꾸중할 수 없으시었다.

해방된 거리는 흥겹게 붐비고있었다. 궤도전차의 경쾌한 종소리, 자동차들이 오가는 큰길옆으로 웃음이 함뿍 어린 사람들이 물결치듯 흐르고 있었다. 씩씩한 걸음, 걸으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 손에 손을 잡고 희희낙락 떠드는 꼬무래기들...

어머니의 앞으로 정복차림을 한 경위대원이 달려와 반갑게 거수경례를 했다.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걸음이...》

《일없어요.》

어머니께서는 밝게 웃어보였으나 경위대원은 짙이는데가 있는듯 인복의 손목을 잡고 서너발자국 이 끌어가면서 귀속말로 붙었다.

《편치 않으신지 오래니?》

《세날...》

《우리한테는 왜 알려지 않았니?》

《아무도 몰라야 하니까요.》

《음.》

경위대원은 저쪽 어딘가를 살피더니 어머니께 부탁하였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인차 오겠습니다.》

겨울을 갓 털어버린 봄이어서 날씨는 쌀쌀하지만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시며 어머니께서는 어데론가 가버린 경위대원을 기다리시었다.

잠시후에 경위대원이 달려오고 뒤통수 인력거가 굴러왔다. 경위대원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아주머니, 변상금을 요구하면 내가 물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다른 인력거를 타더라도 지금은 이 인력거들 내가 쫓으면 합니다. 환자가...》

그제야 전후사연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뒤로 돌아서시어 인력거앞에 서있는 경위대원을 질책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어머니께서는 걸음을 지체시킨 녀인에게 사과하라고 한발 다가서시었다. 순간 어머니의 시선은 그 녀인에게서 굳어졌다. 그는 리해옥이었다.

리해옥은 리해옥이대로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어머니께서 걸어다니시는데 자기는 인력거를 탔으니... 그는 고개를 숙인채 백고무신코만 내려다보며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권하였다.

《어서 타세요. 병환에 계신줄도 모르구...》

어머니께서는 얼굴을 경위대원에게 돌리시었다. 말씀은 없으시였으나 엄한 눈길은 이렇게 질책하고있었다.

《나를 왜 이렇게 딱하게 만듭니까? 잘된 일 같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국이 광복된 다음 사람이 끌고 다니는 이런 인력거를 타고 다니자고 일제놈들과 싸웠습니까? 예?!》

어머님의 눈길에서 그 심정을 읽은듯 경위대원은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기가 생각해낸 일이 이렇게 어머님의 노역을 사리라는걸 미처 생각 못한 그였다.

《제 잘못이 큼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저의 권고대로...》

어머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이 타이르시었다.

《내 근심은 말고 어서 가보세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로야령을 넘거나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처럼 힘겨운 걸음은 아니예요. 인력거는 돌려주요.》

어머님께서는 몸돌바를 몰라하는 리해옥이를 바라보시었다. 그에게 다가가서 인력거를 타는건 낡은 사회가 빚어낸 현상이라고, 그러니 더는 타서는 안된다고 타이러주고싶었으나 그가 딱해할것 같아서 어머님께서는 인복이의 손목을 잡고 걸음을 옮기시었다. 전주 한경간쫘 갔을 때 리해옥이가 달려와 앞을 막아섰다.

리해옥이를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눈에는 측은한 빛이 어렸다. 나라가 해방되고 새 생활이 꽃피고 있는 때에 아직도 남자가 끄는 인력거우에 녀자가 앉아서 거들먹거리는 모양을 보자니 눈뿌리가 아프시었다. 지금까지 어머님께서는 리해옥이한테 다소나마 깨끗한 량심이 간직되어있다고 여겼는데 이 순간에는 그 믿음이 싹 사라지는것을 느끼시었다. 흠 한줌 쥐여보지 않고도 밥을 먹고 손에 쟁기를 들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재미를 버리지 않겠다는 속심을 보는것 같으니 어머님께서는 매우 불쾌하시었다. 나에게 돈을 회사하겠다는것도 진심이 아니라 일종의 환심이나 사려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드시었다. 정말 그런 위선자일가? 어머님께서는 리해옥이가 그런 위선자가 아니기를 바라시었다.

리해옥의 목안에서 울리는 말소리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늘어졌다.

《저- 저의 소원입니다. 저 인력거는 우리 집 전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제것처럼 타고 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만 받아들일수 없군요.》

《어제도 저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자그마한 소청까지 마다하시면 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어서 타십시오.》

《우리는 저 인력거군과 같이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일제놈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동지들이 목숨바쳐 찾은 제 나라, 제 땅에서 몸이 좀 불편하다고 인력거를 탄다면? 절대로

그럴수 없어요. 인력거군도 인민이고 나도 인민의 한사람이에요!》

리해옥은 왼손에 쥔 가죽가방을 공연스레 만지작거렸다. 그의 얼굴에 가책의 빛이 어리었다.

《바쁜 걸음을 지체시켜서 미안해요. 어서 가보세요.》

어머님께서 권고하시었으나 리해옥은 못박힌듯 머리를 숙인채 서있었다. 잠시후에야 숙인 고개를 반쯤 들면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 인력거를 안타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제부터 저도 인력거를 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잘했군요. 그래야 해요.》

어머님께서는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하시고는 자리를 뜨시었다. 한참 걸으시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리해옥은 여전히 그자리에 서있었다. 아마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그의 옆에 온 인력거군은 채를 잡고 서서 아마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것 같았다. 리해옥은 손에 든 가죽가방을 열더니 지전을 인력거군에게 쥐여주고는 총총히 걸어가는것이였다. 그리고보면 리해옥은 부르조아냄새가 폭 배여 굳어진 향락과 사치만을 추구하는 녀자같지는 않았다. 저렇게 자기를 자각하고 새 조국 건설에 몸을 잠그는 근로녀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

유난히도 맑고 청신한 아침이였다. 간밤에 내린 비를 맞은 나무잎들은 티 한점 없이 푸르렀다.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안겨주는 아침이였으나 정원을 거니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그간 오정화가 알아본데 의하면 리해옥은 겨우 밥술이나 이어가는 가게방집에서 태여났다는것, 지금 그의 친정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살고있다는것, 리해옥은 공부깨나 한 지식인이라는것, 그는 직조공장을 경영하는 주인을 만나 부유하게 살고있기때문에 웬간해서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적적한 집안에 박혀있다는것 등이였다. 얼굴에 시름겨운 그늘이 덮여있는 원인을 어렵듯이 짐작할수 있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니 어머님께서는 오늘 그를 찾아가 만날 생각이 시였다.

오정화가 자그마한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누워서 병치료를 해야 할 어머님께서 밖에 나온 모습을 보자 오정화는 안타까움을 털어놓았다.

《아-니, 왜 일어났어요?》

《이젠 나은것 같아요. 아픈데가 없군요.》

《내 눈은 못속여요. 들어가자요.》

오정화의 재촉이 불같아서 어머님께서는 하는수 없이 방안에 들어가시었다.

더운물을 한사발 떠들고 올라온 오정화는 어혈을 푸는데 좋은 약이라면서 가루약봉지를 펼쳐놓았다.

《어서 드세요.》

어머님께서는 전우의 정성이 깃들어있는 약을 들면서 가슴이 후터워움을 느끼시였다.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는데 며칠간 누워서 병치료를 해야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간호원이 되려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말을 명령처럼 들어야 해요. 우선 누우세요. 한바탕 땀을 내면 거뜨해질거예요.》

오정화는 닝큼 일어나더니 이불장을 이고 베개를 내려놓는다, 이불을 퍼놓는다 하며 병간호를 단단히 할 잡도리였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의 권고대로 자리에 누워있을 수 없는 어머님이시였다.

《정화동무, 장군님께서는 나라를 일떠세우자니 인제가 부족하다고 늘 근심하고계세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고 애써온 우리가 하찮은 병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돼요. 리해옥녀성을 손잡아 이끄는 일은 장군님은 보좌해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미루지 말고 오늘 리해옥녀성을 만나보자고 해요.》

《그건 안돼요. 집에까지 가는건 반대여요. 차리리 내가 가보겠어요.》

《내가 가야 해요. 그는 나와 두번씩이나 만났으니 속을 줄거예요.》

오정화의 눈은 달아오르기만 하였다. 장군님의 전사라는 자각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자기 한몸을 돌보지 않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어머님의 충성심이며 체질화된 성품이였다. 어머님앞에서는 그 어떤 설복이나 간청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오정화는 잘 알고있었다.

《그럼 할수 없군요. 그러나 두시간은 초과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요?》

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대문밖에 나서시였을 때 쪼르르 달려와 팔을 잡는 인복이에게 물으시였다.

《너는 학교에 안가니?》

《오늘은 오후반이에요. 우리 학급엔 담임선생님이 없어서 어떤 시간에는 공부를 못해요.》

《그렇다구 놀지 말구 복습을 해야 한다.》

어머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귀엽게 번져가는 인복이를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고생의 언덕, 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넘느라고 발육이 뜨던 인복이였다. 그러던 인복이가 요즘 네할개를 치며 다니니 몸도 종와지고 머리가 총명하여 불과 몇달사이엔 신문을 제 눈으로 읽을수 있게 되었다.

길에 나서신 어머님께서는 우선 리해옥이가 자란 경위를 알고싶으시여 그의 친어머니가 살고있다는 경상동으로 가시였다.

리해옥의 친정은 규격이 서로 다른 천연스레트를 인 작은 집이였다. 프락은 넓지 못하지만 봄마늘, 부루, 배추가 싱싱 자라고있었다. 살림살이는 넉넉치 못한것 같았다. 돈냥이나 있다는 사

위도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는것을 대뜸 알수 있었다. 리해옥의 어머니라고 짐작되는 녀인이 방금 터밭에서 숙은듯한 배추를 다듬고있었다.

《안녕하세요?》

《예, 뉘신지?》

녀인이 반쯤 일어서며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을 알고싶지 않으시여 그저 무얼 좀 의논해보자고 왔다고 녀인앞에 마주 앉으시였다.

《배추가 잘 자랐군요.》

어머님께서는 함께 배추를 다듬기 시작하시였다.

《이러지 마세요. 옷 어지럽히겠어요.》

녀인은 손님에게 일손을 들게 하는것이 미안했던지 손을 털며 일어났다. 어머님께서는 녀인의 손을 잡고 함께 앉으며 말씀하시였다.

《마저 다듬자요.》

해방된 기쁨에 대한 이야기며 가계방수입에 대한 이야기, 생활에 대한 다반사를 나누다가 어머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물으시였다.

《집난이가 더러 놀러오는가요?》

녀인은 딸에 대해 묻자 이상하게도 한숨부터 알 앞세웠다.

《오지요. 오늘 오겠다고 했는데... 또 동창생들네 집에 간 모양이군요.》

《동창생들이 많아요?》

《서넛 되는것 같아요. 할일이 없으니 모여앉아서 신세타령만 한다더군요.》

《그래요?》

《해방되어 모두들 기뻐하는데 그애만은...》

녀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는것이였다. 아마도 하얀 머리카락 한오리한오리도 딸때문에 희어진것만 같았다. 그 이유를 알고싶었으나 싸늘한 가슴을 눈물로 적시는 그의 애달픔을 더해줄것 같아서 묻지 않으시였다. 잠간 여유를 두었다가 리해옥이를 두둔하시였다.

《리해옥동무는 남의 미움을 받을 녀자같지는 않을 녀자같지는 않더군요. 인물 잘나고 총명하고...》

《그ئن 어렸을 때부터 남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지요. ...》

녀인은 먼 추억을 더듬으면서 딸이 성장하던 때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무슨 말을 강조할 때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무릎을 다치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도 무릅없이 어머님의 무릎을 건드리며 말하였다.

... 리해옥은 소학교를 졸업했으나 집에서 돈을 대줄 형편이 못되어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향학열이 꺾이우자 눈물만 흘리고있을 때 이모가 와서 아까운 애를 그저 썩이겠는가 하고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시키겠다며 데리고 갔다. 리해옥은 이모네 집에서 고등녀학교까지 졸업하여 신녀성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의 리상은 교원이 되는것이였다. 그는 부풀어오른 희망과 앞날을

기약하는 꿈을 안고 집에 돌아왔으나 일자리를 생각할 여유없이 돌쩌귀에서 불이 나도록 다니는 중매군들의 성화를 받아야 했다. 수많은 총각들이 담을 넘겨다보자 어머니는 너자야 남편 잘 만나면 호강하는 법이라며 돈많은 직조공장집 외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후 가장이 된 어머니의 권고는 곧 명령이었다. 신녀성이라는 지식의 옷을 입었으나 어쩔수 없이 남존녀비라는 봉건의 사슬에 얽매인 해옥은 교원이 되고 싶던 리상을 꽃피울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바깥출입도 시키지 않았다. 요구하는것이란 부모에겐 효성하고 남편에겐 순종하고 자식에겐 선량한 어머니가 되라는것뿐이었다. 교원이 되려는 신녀성의 리상파위는 한갓 꿈에 지니지 않았다. 해방이 되자 《뒤골방 녀성》들이 거리로 활보하며 자유의 날개를 활짝 폈으나 리해옥의 묶이운 갓은 펼쳐지지 않았다. 집안에 불박혀있어야 한다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가 일제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죄의식이 그의 몸을 얽매었다. ...

《그러니 그애의 속이 편하겠어요? 밤에 홀로우는 두견새신세지요. 그저 너자로 태어난것이 죄지요. 자고로 너자는 얽매여 살기마련이니...》

어머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해오시였다.

녀성들을 비친한 존재로 차별하는 세상이 빛이 낸 후파가 아직도 이들에게서 가시여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하여 밖에서는 사람들이 활개치며 다니지만 이렇게 봉건의 높은 담장안에 갇혀있는것이다.

누가 오는지 대문밖에서 남자의 투박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나도 인젠 인력거를 버리고 공장에 들어가겠수다. 너는 찾지 말아주시우.》

이 집에도 인력거를 타고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아들이 있다더니 그가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일까? 어머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대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뜻밖에도 꼬리치마를 감싸쥔 리해옥이가 들어섰다. 그를 보시는 어머님의 눈에서는 삼시에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노여움이 어리였다. 인력거를 더는 타지 않겠다던 리해옥이가... 낡은 사상이란 이렇게도 집요한것인가. 그래도 새 제도에 공감되어 사회 활동을 하고싶어 몸부림친다는 리해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 기대마저 허물어지는듯 싶으시였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기고 인력거를 탄 죄스러움이 들었는데 리해옥은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생각같아서는 준절히 질책하고싶었으나 어머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도 있고 또 본인도 가책을 느끼는 기미를 보이는데서 일부러 웃어보이시였다.

어머님의 웃는 모습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리해옥은 발뻘발뻘 다가왔다. 그는 자기 어머

니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리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와뜰 놀라며 《그래?!》 하며 두손을 들었다가 제 무릎을 철썩 내리쳤다.

《제가 그만 귀인을 몰라보고 망녕되게 대했습네다.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오다.》

《왜 이러세요. 말씀을 낮추세요. 저를 친딸처럼 여기구요.》

《원 별말씀을... 왜놈들을 쳐부신 백두산의 너장수이신데 어찌... 우리는 어머님께서 총도 잘 쓰시고 채봉일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네다. 이렇게 우리 집에 다 찾아오시다니?!정말 꿈만 같습네다.》

어머님께서는 너인을 보니 빙그레 웃으시였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집보다 더 작은 초가집에서 자랐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다 우리 인민이 사는 집인데 제가 왜 못오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해옥동무네 집에도 가자던참인데 마침 왔군요.》

《저를 동무라고 불러주시는군요.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동무로 부르고 동무로 불리우는 사람들속에 휩쓸리고싶은것이 리해옥의 간절한 소원이었으나 물우에 뜬 기름처럼 어찌나 오늘이나 외토리로 떨어져있는 신세였다. 동무! 그 부름속에는 평등과 믿음이라는 가장 뜨거운 우정이 담겨져있었다. (리해옥동무!)

스스로 이렇게 불려보니 리해옥은 쓸쓸하던 고독이 어디론가 사라지는듯싶었다.

다 다들은 배추광주리를 안고 부엌에 들어갔던 해옥이 어머니는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께서 손에 묻은 흙을 씻고 리해옥의 안내를 받아 집안에 들어가시였다.

도배를 한지 오래서 벽과 천정에 붙인 도배지는 누렇게 색이 바래였다. 해대에는 새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 낡은것도 아닌 옷가지들이 걸려있었다. 그닥 유족하지는 못하지만 짜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였다. 방안을 둘러보며 어머님께서 뜻자리우에 앉으시였다.

부엌에서 그릇 부시는 소리가 났다. 그릇을 썬 둥그런 보자기를 든 해옥이 어머니가 사이문을 열고 말했다.

《앉아서 이야기나 하시우다. 제 잠깐 다녀오겠으니...》

밖에서 인복이가 차개놀이를 하느라고 쿵쿵 뛰는 소리가 날뿐 방안엔 침묵이 흘렀다. 어서 이야기하라고 재촉하는듯 패종시계가 열점을 쳤다.

《해옥동무는 마음고생이 많더군요.》

《...》

두무릎을 모아 옆으로 높히고 앉아있는 리해옥의 고개는 점점 숙어졌다.

《내 한가지 묻자요. 해방된지도 오랜데 왜 해옥동무는 사람들속에 어울리지 않고 집안에 앉아있어요?》

《저라고 왜 앉아있고싶겠습니까. 해방이 준 날개를 펴고 훨훨 날고싶고 무슨 일인가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구속하는가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갔어요.》

《그럼 남편이?》

《별로...》

《남편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저는 부르쥬아녀성인걸요.》

《그래 부르쥬아녀성이라고 누가 사회밖으로 내쫓던가요?》

《...》

《장군님께서 하신 개선연설을 들었어요?》

《예. 라지오로...》

《장군님께서서는 개선연설에서 다 가르쳐주시지 않았나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녀성의 지식이야 한갓 물거품이지요.》

《자신을 너무 구박하지 말아요. 지금 장군님께서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작성하고계세요.》

《남녀평등이요?》

리해옥이로서는 자기를 신녀성이라고 자처하였으나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이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력사와 지리, 문학과 예술, 종교와 도덕 등의 지식이 있었으나 그것을 녀성해방이라는 문제와 결부시킬수 있는 사상의식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래요. 남녀가 평등하다는거예요. 우리 녀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억눌려 살던 시대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할 주력군으로 나서게 되었다는거예요.》

리해옥은 사회활동을 하고싶었으나 자신을 그런 위치에 놓고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해방전에는 순종을 숙명으로 여긴터여서 의무만 알고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저 저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녀성도 인간인데 어찌 놀리워만 사는가고 한탄만 했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녀성의 권리를 찾아야 해요.》

《권리요?》

권리라는 말은 자기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온 리해옥이었다. 해방전에는 봉건적구속을 받아야 했고 해방된 오늘에는 부르쥬아녀성이라는 손가락총을 받아야 했다. 과연 권리가 어디 있는가? 그는 녀성의 존엄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물론 인간이 행사하지 말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고있다는것에 대하여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일깨워주시었다.

《해옥동무는 해방된 오늘에도 생활을 옳바로 하지 못하고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사치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권리>, 인력거군을 마음대로 부려 먹을수 있다는 <권리>... 우리는 지금 일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

하던 사회를 끝장내려고 해요. 그건 우리 장군님의 사상이고 의도예요!》

리해옥은 가슴이 후두두 떨리며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어머님의 말씀은 인간의 참다운 생존방식, 생활방식의 첩리였다. 돈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가장 파렴치한 《권리》를 행사해온 자기가 한없이 저주로왔다. 정말로 자기는 해방된 거리에 뿔뿔이 나설수 있는 권리가 없는 몸이었다. 속에서 무엇이 움트고 자라면서 굳어졌는지도 모르고 값없이 살아온 자기였다. 지금같이 사는 인간 리해옥이라는 존재가 진정한 삶의 궤도에 들어설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러웠고 그 서러움이 눈물을 솟구어 하얀 손등에 떨어졌다.

《나는 해옥동무에게 권고하고싶어요. 이제부터 자기 안락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참다운 삶의 권리를 행사해주시기 바라요. 그러자면 자기를 타매하되 구속하지는 말아야 해요. 해옥동무가 활동할 무대로 갈 문은 열려있어요. 그러니 날개를 펴라요.》

그럴수만 있다면, 정녕 그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리해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 시내에 동창생들이 있지요?》

《예.》

《그들도 교원이 되고싶어하는가요?》

《아닙니다. 식물학에 조예가 깊은 친구는 원예사가 되고싶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현대적인 주택설계를 하고싶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녀성기자가 될 꿈을 꾸고있습니다.》

《모두 리상이 뚜렷하군요.》

《하지만 그건 꿈인걸요.》

《그게 왜 꿈이겠어요.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마다 리상을 꽃피울수 있는 새 제도를 마련해주시였어요. 이런 제도를 보지 않고 방안에 앉아서 한숨만 쉰다면 리상은 리상이 아니라 꿈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을거예요. 오직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새 조국 건설에 지식을 바치려고 나설 때에만 리상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될거예요. 남들이 동쪽으로 갈 때 홀로 서쪽으로 가거나 주저앉았다면 꿈에서도 리상을 보지 못할거예요. 알겠어요? 해옥동무!》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지는 귀중한 말씀이었다. 리해옥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흐름속에 자기도 걸음을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

부엌문이 열리더니 보자기를 든 해옥이 어머니가 인복의 손목을 잡고 들어왔다.

《점심식사나 하자고 국수를 받아왔체다. 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어머니두 저는 대접을 받으려 온건 아닌데요.》

《그래두 내 집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서는 주인의 너그럽고 가식이 없는 태도를 마다하지 않으시었다.

《그럼 어머니의 성의를 받겠어요. 그대신 잘 차려야 한다니까요.》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어머님께서서는 일부러 통말을 건네시며 너그러이 웃으시었다.

《저는 어머님께서 군복을 입으신 엄엄한 분이 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하고보니 대번에 친혈육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요. 우린 모두 고생살이고개를 넘어온 한겨레이지요.》

어머님의 인품은 한없이 너그러우시여 상머리에 모여앉으니 정말 한식술처럼 느껴졌다. 입술에 미소를 그린 리해옥은 옆에 앉은 인복의 단발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어머님께 물었다.

《참 귀엽게 생겼군요. 따님인가요?》

《딸이지요. 조국의 딸이에요. 이에 아버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전사했어요.》

《어머님께서서는 바쁘신 몸인데도 이에 어머니가 되시었군요.》

《앞으로 이해들은 지난날 녀성들이 받던 수모는 전혀 모르고 살게 될거예요.》

리해옥은 행복에 겨워 웃고있는 인복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기도 이에 나이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이 나라 녀성들이 수수천년 눈물로 웃고름을 적시던 세월을 끝장내고 남녀가 평등한 새 사회를 안아오신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더욱욱 두터워졌다.

×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천정에 새겨진 도배지문양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동그란 원안에 꽃을 새긴 파르스름한 문양은 일매지게 같았다. 마치도 대를을 지은것처럼 보였다. 사람들도 정신적 차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이 저렇게 일매진 형태로 장군님두리에 뭉쳐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으시었다. 해방이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만 당하고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리해옥이를 놓고봐도 그랬다. 낡은 사상이란 얼마나 끈덕진것인지 다시는 인력거를 타지 않겠다던 그였으나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앞선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고 갈수는 없었다. 새로운 사상을 받아안기 힘들어하는 리해옥이같은 사람을 이끌어 대오에 세워야 했다. 리해옥이가 사회에 나서면 그의 동창생들도 따라설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계실 때 밖에서 인복의 랑랑한 부름소리가 울리었다.

《어머니-》

《인복이냐?》

어머님께서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인복이를 반갑게 맞이하시었다.

《어머니, 직조공장집 아줌마를 봤어요.》

《어데서?》

《학교정문앞에서 ...》

《학교?》

이렇게 뇌이시는 어머님의 안광은 빛났다.

《자세히 말해라.》

《휴식시간에 정문앞에 서있는 아줌마를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다봤는데 그냥 서있었어요.》

인복이가 전해준 말은 이것이 다였다. 리해옥이가 왜 학교를 바라보며 서있었을까? 지나가던 길에 들렀을까? 일부러 나왔을까? 어쨌던지 학교에 마음이 쏠리어 오래도록 서있은게 분명하였다.

교원이 되려는 그의 희망, 그 희망을 실현할수 없을가 하여 나왔을것이다. 그랬다면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것을 의미했다. 리해옥이로서는 일보전진이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는것을 느끼시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되였다. 지금이야말로 그를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할 절호의 기회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영문을 알길 없는 인복이가 눈을 울롱하니 뜨며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 잠깐 다녀올데가 있다.》

《제가 심부름가면 안되나요?》

《네가 할 일이라면 오죽 좋겠니? 내 인차 돌아오겠다.》

급히 저택에서 떠나신 어머님께서서는 먼저 시인 민위원회에 들리시었다. 시내 학교들에서의 교육실태를 료해하시었다. ...

어머님께서서는 한참후에야 나오시여 리해옥이네 집으로 향하시었다.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리해옥이네 집은 합각지붕을 한 팔간랑풍인데 오른쪽에는 사랑채가 있고 왼쪽에는 창고가 있었다. 정원은 넓으나 푸성귀 한포기 심지 않은걸 보아 그런것쯤은 문제로 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대신 트랙에는 꽃밭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채송화가 한창 피어있었다. 다른 꽃들은 꽃망울을 짓기도 하고 방금 터치기도 하였다.

리해옥은 꽃밭에 앉아 김을 매고있었다. 꼬리치마를 감싸쥐고 인력거를 타던 어제날의 리해옥이 아니였다. 학교구경도 하고 하인 손에 호미를 쥔것으로 보아 리해옥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느낄수 있으시었다. 귀부인차림에 전환 회장대를 풍기던 어제날의 리해옥에게는 인간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격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지금 흙을 다루고있는 리해옥에게는 새 생활을 지향하는 갈망이 력연하였다.

《어머님께서 오셨군요.》

리해옥의 얼굴은 일순간에 확 밝아지었다.

《그간 잘있었어요?》

《예.》

어머님께서는 잡초가 성한 꽃밭을 바라보시었다. 채 매지 못한 꽃밭은 어제날의 리해옥이고 잡초를 없앤 꽃밭은 근로녀성의 냄새가 풍기는 오늘의 리해옥이처럼 보였다.

《해옥동무는 김을 땔줄 모르는군요. 풀은 꺾거나 묻지 말고 뿌리채 뽑아야 해요. 내가 김을 땔테니 잘 보라요.》

어머님께서는 팔소매를 뒤집 걷어올리시고 낮은 목책을 넘어 호미를 쥐시었다. 막상 앉아서 김을 매자니 동통이 되살아나 몸을 움직이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시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보이지 않으시고 리해옥이 맨 꽃밭에서 다시 돌아날수 있는 잡풀의 뿌리를 호미끝으로 끄집어내면서 반반하게 흙을 퍼시었다.

《주인은 공장에 나갔는가요?》

《요즘은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한다며 노상 공장에서 산답니다. 술도 덜 마시구요. 영 판 사람이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친정집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온날 밤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주인은 나더러 행운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운아가 아니라 머저리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머저리야 아니지. 지난날 봉건적구속이 당신을 괴롭혔지. 나도 그런 위대하신분을 만나뵈웠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소.> 하는것이었습니다. ... 저는 요즘에야 자신에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일단 결심만 하고나서면 그 무엇이든 할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려져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리해옥의 가슴속에서 드디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핵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는 머리에 새겨진 공자와 맹자의 설교를 하나하나 짓밟으면서 자기라는 존재를 찾고싶어했고 드디어 찾았던것이였다.

《제가 주인에게 교원이 되고싶다고 비취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원? 하긴 너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자와 악수하는 때니까 교단에 설수 있지. 헌데 그건 당신이 가정에서 해방된것과는 다르지 않을가 나는 자그마한 공장이기는 하지만 공장주로서 노동자들을 두고있지 않소. 그러니 나나 당신은 지금 말대로 소부르조아관말이요. 부르조아녀성에게 새 조선 교육을 하라고 교과서를 맡길것 같소?> 하는것이였습니다.》

《거 흥미있군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각오만 가지면 된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리해옥이를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허허 웃으며 자기도 장군님을 따르는 공장주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몸에 날개가 돋쳐 훨훨 나는 기분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창생들

을 찾아가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도 해주고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 알려주고 저의 결심도 말했더니 막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했던말이지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해옥동무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겁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릴수는 없어요. 동창생들에 비하면 해옥동무가 선구자인데 그들도 새 조국 건설에서도 영감을 주어보세요. 내가 주는 분공으로 여기구요. 어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자면 해옥동무가 빨리 교단에 서야 해요. 그래 교원이 되려고 인민위원회에 찾아가 의논해봤어요?》

《아직...》

이럴 때 대문이 열리더니 오정화가 들어왔다. 어머님께서 김을 매는 모습을 보게 된 오정화는 그만 아연해서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김까지 매시다니... 원망은 리해옥이한테 갔다. 어머님께서 병환에 계신줄 알고있는 리해옥이가 서서 구경하고있는 꼴을 눈이 쓰러져 볼수없었다. 오정화는 더 참을수 없어 목책안에 들어가 빼앗은 호미를 리해옥의 손에 쥐여주었다. 속에서 참고참았던 울분이 막 터져나갔다. .

《부르조아녀성은 호미를 쥐면 못쓰나요?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

《어서 김을 매라요.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오정화의 목소리가 추상같이 울리며 언약한 리해옥이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였다. 처음엔 통담인줄 알았는데 오정화의 기상이 너무도 도고하고 눈길에 날카로워서 어머님께서는 두무릎을 꿇고 일어나시었다.

《정화동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해옥동무에게 김을 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중이에요.》

오정화는 안심하라는듯 너그러이 웃으시는 어머님을 기가 막혀 바라보았다. 아픔을 애써 참으시는 어머님의 심신을 오정화는 속속들이 느낄수 있었다.

오정화는 눈물이 핑 도는것을 어찌지 못하며 안타까이 말씀드렸다.

《정숙동무는 정말 너무해요. 정숙동무가 자꾸 이러면 우린 어떻게 하란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애달픔을 참을길 없어하는 오정화를 달래일수가 없으시었다. 더구나 딱한것은 오정화가 휘저어놓는바람에 기분이 좋았던 리해옥이를 궁지에 몰아넣은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어보이시며 정화에게 혼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정화동무, 난 일없어요. 이젠 한결 나은것 같아요. 더구나 오늘 새생활의 길로 들어서고있는 해옥동무를 보니 병이 뚝 떨어지는것 같아요.》

그러시고는 리해옥을 돌아보시며 미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해옥동무, 너그러이 리해하랴요. 나때문에 해옥동무까지...》

리해옥이 얼굴을 붉힌채 도리머리를 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기가 뒤틀방에 앉아있는 식충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징벌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충고를 부모한테서도 선생한테서도 남편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귀중한 말이 이 세상에 있는것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저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보니 정화동무가 해옥동무에게 참으로 좋은 말을 해주었군요.》

어머님께서서는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어 웃으시였다.

《우리 저기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자요.》

어머님께서서는 마루를 가리키며 앞서 걸으시였다. 리해옥은 호미를 쥔채 어머님의 옆에 앉고 오정화도 불이 부은채 마루에 앉았다.

《해옥동무, 동무가 주저하며 가지 못했던 인민위원회에 내가 대신 갔다왔어요.》

《저때문에요?》

《그래요. 동무가 아직도 자기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슴을 태우는걸 보고만 있을수 없었어요.》

《...》

《이걸 받으세요. 내가 동무를 보증했어요.》

어머님께서서는 품안에 간수했던 봉투를 꺼내여 리해옥에게 주시였다. 그것은 리해옥이를 교원양성소로 보내는 시인민위원회 《파견장》이였다.

리해옥은 봉투안에서 《파견장》을 꺼내여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읽기만 했다. 그랬으나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학창시절부터 꿈꾸어오던 교원이였다. 누구도 떠밀어주지도 이끌어주지도 알선해주지도 않던 교원이였다. 그 꿈을 글씨 향일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헤아려주셨던것이다. 어머님께서서는 아직도 봉건적질곡에서 헤매이던 자기에게 부르조아녀성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던 자기에게 오늘 해방의 해빛을 안겨 주시였다!

리해옥은 끝내 참지 못하고 어머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지금까지 쌓이고쌓였던 설분이 흰겨번에 터졌던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녕 꿈은 아니였다. 그는 고개를 버쩍 들었다. 지기를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어머님의 인자한 모습을 오래도록 우러렸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입술에선 미소가 피여났다. 격

동의 눈물이였고 환희의 미소였다. 그는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언제였던가고 물으면 오늘이라고 대답할것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던가고 물으면 오늘이라고 대답할것이고 생일이 언제인가고 물어도 오늘이라고 대답할것이다!

어머님께서서는 목이 메여 말을 못하는 리해옥의 흠뻑은 손을 꼭 잡으시였다.

오정화도 눈물이 글썽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인간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려고 그처럼 애를 써오시는 어머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가 그 눈물속에 력력히 어려있었다.

×

초여름이였지만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길에는 일요일이여서 그 어느날보다 행인들이 많았다.

김정숙어머님과 오정화는 인파속에 어울려 걷고있었다. 녀맹기총조직을 꾸리려고 동평양의 가두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였다. 앞에서 걸어오던 두 처녀가 걸음을 멈추고 펼쳐든 책을 짚으며 무슨 말인가 열렬히 주고받는것이였다. 그들의 옆으로 무슨 설계도면같은 긴 종이말이를 든 나이 지숙한 녀인이 의젓한 걸음으로 오고있었다.

책을 들고 다니는 녀성, 가죽가방을 척 끼고 걷는 녀성, 기자인듯 사진기를 메고 가는 녀성... 어머님께서서는 도시의 풍경을 더더욱 이채롭게 채색한듯싶은 지식인녀성들의 어엿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길에 학생가창대 대렬이 나타났다. 그들이 목소리를 합쳐 부르는 노래소리는 거리의 모든 소음을 누르며 울려 퍼졌다. 해방전에는 학생가창대를 한번도 보지 못했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것이였다.

학생대렬속에서 노래를 부르던 소녀가 손을 들어 흔드는것이였다. 인복이였다. 그를 알아보신 어머님께서도 장하다는 뜻으로 손을 들어 흔드시였다. 그제야 인복이네 학급담임교원이 리해옥이라는 생각이 드시여 대렬에서 걷는 교원에게로 시신을 돌리시였다. 리해옥은 양복차림을 하여서인지 처녀처럼 젊어보였다. 그는 교원으로 입직하던 날 어머님께 회사하겠다던 돈을 교육비로 쓰라고 학교에 기부함으로써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빛내이게 되였다. 얼굴에 비졌던 그늘을 다 털어버리고 씩씩한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의젓했다. 어머님을 띄여본 리해옥은 손을 흔들며보이며 반갑게 웃었다. 어머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그를 축하해주시였다.

대렬이 굽인돌이를 돌아 더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서는 존안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채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눈송이

차명숙

송이송이 눈송이
꽃잎같이 내리는 흰눈송이에
내 마음
내 노래를 실습니다

어머님 그리워 달려가는 내 마음
천송이만송이 내리는 송이마다
뜨거워 이 마음은 먼저
백두의 밀림우에 소리없이 내립니다

만경대의 봄을 부르며
사향가의 노래 은은하던 우등불가
어머님 넘나드시던 츠렁바위에
내 마음 송이송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눈을 긋지만
백두산의 그 눈을 다 맞으신
어머님의 그 거룩한 자옥우에
내 마음 뜨거운 마음 꽃눈되어 내립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릴 때면
혈전의 행군길이 떠오르고
고난의 행군길이 눈앞에 그려질 때면

오늘의 우리 행군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런 날 이런 걱정을 안을 때면
내리는 눈송이도 두볼에 녹아
눈조차 뜨겁습니다
어머님의 그 따뜻한 영상을 우리르며...

천송이만송이 내리는 눈송이마다
어머님의 거룩한 그 자옥우에 꽃잎되어 내립
니다
어머님의 생의 자옥우에
삼가 노래의 꽃잎을 깔아드립니다

아, 감사의 눈송이 그리움의 천만송이
어머님 그 자옥우에
천년을 내리면 그 끝이 있고
만년을 내리면 그 끝이 있을가...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한평생앞에
따르는 마음의 눈
천년을 내리렵니다!
만년을 내리렵니다!

몸소 지으신 배낭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한없는 걱정으로 온 나라가 뿔어번지는속에 우리는 백두산너장군의 탄생일을 맞는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를 가슴뜨거이 돌이켜보며 김정숙동지의 충성심을 따라 배워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해갈 충효심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주체의 광휘로운 해발을 받아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혈전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시였으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시여 조국해방위업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다.

조국이 해방된후에도 항일전의 그 나날처럼 수령님의 친위전사가 되시여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그이께서 바쳐오신 로고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는 주체36(1947)년 2월 어느날 밤이었다.

한 일군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밤도 깊어 자정이 가까운 때여서 그 일군은 몹시 지어하면서 출입문안에 들어섰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방에서 불빛이 환하게 흘러나왔다.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있는것일가?)

이런 생각으로 그 일군은 선뜻 방으로 들어가 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러한 때에 김정숙동지께서 인기척을 느끼시고 방에서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밖에 서있는 그 일군을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일군을 방으로 안내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니 바닥에 보위색천이 놓여있었는데 금시 재단을 끝낸것이였다.

일군이 자정이 깊은 밤에까지 휴식을 잊고 무엇을 하시는가고 묻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어디 맞혀보라고 하시였다.

어리둥절해있는 일군을 잠시 눈여겨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색한 안색을 지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 절실히 필요할 인민군대의 새 배낭전본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형언할수 없는 걱정과 휩싸였다.

그 일군의 심중을 헤아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무토록 배낭을 혁명군대의 정규적면모에 어울리면서도 전투활동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겠는데 어느 하나의 시제품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쓰던 배낭형식을 참작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고, 그래서 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항일유격대원들이 지고다니던 배낭을 참작해서 시제품전본을 만들어 보던중 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재단한 천조박들을 방바닥에 하나하나 퍼놓으시였다.

순간 일군은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는 백두산너장군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렬하고 드림이 없는것 이라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상적인 웃음을 지으시면서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실현해보자고 일군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 만드시는 배낭시제품제작에 그 일군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깊은 한밤에도 재봉기를 돌리시는 그이의 모습은 정녕 청봉밀영에서 600벌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수십밤을 패우시던 백두산너장군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이께서 재봉을 끝내고 실밥까지 말끔히 털었을 때는 새날이 잡혀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오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완성된 배낭시제품을 정갈한 붉은 보자기에 싸시면서 이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가 만든 배낭시제품을 보시면 매우 기뻐하실거라고, 정규적혁명무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밤을 몇천밤이라도 패고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중요한 전투장구류의 하나인 배낭에도 나라의 혁명무력을 확대강화발전시키는데 바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한량없는 로고가 뜨겁게 어리어있다.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제일먼저 감수하시고 그 관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김정숙동지.

그이의 충성심은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현시기 우리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중국)김성옥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여기 주작봉마루에 엮어졌는가
붉은 기폭 펼쳐진 영생의 단상우에서
오늘도 조용히 온 나라들 굽어보시는
김정숙어머님

하늘가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은
혁명에 바쳐진 어머님의 넋인가
수려한 이 강산에 일떠선 락원은
어머님 그러보신 조선의 모습인가

한없이 고결하신 그 짧으신 생애
받으셔야 할 인민의 축원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수수한 조선옷차림으로 계시는 어머님

빛나는 그 한생
자신을 위하여 남기신것 무엇인가
주교주신 그 사랑 끝이 없고
베푸신 그 은정 더욱 한없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김정숙어머님

인생의 길은 많고많아도
오직 수령님을 받드는 한길에
한몸 다바쳐오신 어머님
오늘도 충신의 그 모습은 계시여라
여기 주작봉마루에

사람들은 여기서 듣고있어라
어머님의 말없는 심장의 부탁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는 길이
주석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의 새날을 맞이하는 길임을

아, 이 세상 아무나 오를수 없는
가장 높은 영생의 릉이여
어머님의 숭고한 그 모습을 우러르며
후회없을 인생을 자각하는 이 마음

나도 어머님처럼 살리라
조선의 어머님 김정숙어머님처럼!

나의 천만리 외1편

김은숙

내 삶이 여기에 놓였습니다
나의 꿈도 소원도
여기에 놓였습니다
천만리 천만리
내 가는 천만리

돌아보면
사랑의 선물옷 입고
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가던
그 정든 길도 이 길에 놓여있고
눈보라치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투사들이 걸어온 그 자욱자욱을
청춘의 이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던
잊지 못할 그날도 이 길에 새겨져있거니

이 길은
나를 키워준
장군님을 따라가는 천만리입니다
우리 당의 총비서
아버이장군님의 그 손길을 잡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스러운 길입니다

아, 이 길은
이 땅에 태어난 첫날부터
나를 소중히 안아 내세운 사랑의 길
이 세상 가장 참된 삶이
바로 이 길에 있다는것을 깨우쳐준
혁명의 길 보람찬 투쟁의 길

그래서 나의 녀은
이 길에서 더욱 불타고
그래서 나의 순결한 의리와 량심도
오직 이 길에만 바치며
한생을 하루같이 살고싶은 마음이거니

내 이 길 가다 쓰러지면
백번천번 다시 일어나
내 운명의 은인이신
우리 장군님의 따스한 손길을 잡고
억세게 나가렵니다

내 만일 순간이라도
이 길을 잃으면
내 삶은 수치의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질것입니다
내 운명은
갈길몰라 헤매는
방랑아로 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나의 삶이
이 길에 놓였습니다
별처럼 빛날 내 한생이
이 길에 놓였습니다
행복의 천만리
영광의 천만리
아 장군님 따라가는
영원한 전사의 길 천만리입니다

백두산의 봄

송이송이 흰눈이
햇숨같은 하얀 눈이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며 내리는
오산덕

백두산 풀물이 든 군복가슴에
진달래를 안으신 어머니
우러르면
마음은 봄날처럼 따스합니다
마음엔 진달래 향기가 넘칩니다

산과 들엔 포근히 흰눈 덮어도
어머님 가슴엔 붉게 타는 진달래
조국진군의 그날 두볼에 대이시던
그 꽃송이인듯
삼지연 못가에 피어웃던 그 꽃잎인듯

아, 집 잃고 고향 잃고
바람세찬 먼 길 가실 때에는
피멍든 가슴에
망양나루 쪽배에

설움만이, 눈물만이 가득 실렸더니

혁명의 수천만리
눈언덕, 불언덕을 다 넘으시며
사령부 창가에 피우시여
봄향기 가득 채우던 그 진달래
고드름 드리운 백두밀영고향집에 가꾸어
조국의 향기 풍겨주던 그 진달래

항일전의 폭풍속에
해방전의 불길속에
어머님의 그 마음이 봄이었고
어머님의 그 마음이 조국의 꽃이었습시다

아, 불같은 청춘을 바치시여

우리에게 가꾸어주시고도
이 세상 끝까지 피어나라고
이 강산에 영원히 만발하라고
오늘도 군복가슴에 안고계시는
백두산의 봄
백두산의 진달래

이 땅우엔 위대한 태양이 빛나
어머님의 봄은 가지 않는 봄
어머님의 꽃은 지지 않는 꽃
흰눈 송이송이 강산을 덮어도
봄을 안고 진달래를 안고
어머님은 영원히 한모습으로 계십니다
봄의 고향에 계십니다

진달래를 안으셨네

김송남

고향의 언덕엔
천송이 만송이 피는 꽃 많아도
다만 한아름 진달래를 안으시고
어머님 환히 웃음 지으시네

붉은별 군모에
허리띠 조여매신
영생의 그 모습
백두의 창설이 녹아내리던
그 품에 안겨
오늘도 붉게 타는 진달래

오산덕 이 언덕에 피고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피여
어데 가나 내 나라는
진달래 피는
봄, 봄인데

어머님 어이하여
그날에 안으시고
오늘도 못놓으시는 꽃
아, 진달래, 진달래인가

수령님 따라서신
해방의 혈전만리길에
조국의 모습으로 반겨 웃던
봄맞이꽃
진달래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밀영의 그 창문가에
금시 망울터친 진한 향기로
조국의 기쁨을 목메이게 실어온
축복의 꽃
진달래

어이 놓으시라
그처럼 간절하신 희망에 불붙고
한없이 뜨거운 소원에 피어난
꽃은 어머님 마음
꽃은 세월이 바라던 인민의 봄
오늘도 어머님은 진달래를 안으셨네
진달래 안으시고
어머님 웃으시니
산이 웃네 들이 웃네
천만년 영원할 조선의 봄이 웃네!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꽃피난 애국적 상공업자들의 참된 삶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

- 텔레비존련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에 대하여 -

리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며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숭엄한 마음으로 새겨 보고있다.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반영한 텔레비존련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은 감동적인 생활화폭과 인상깊은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고있다.

작품에서는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우리 나라 북변의 한 도시에 있던 개인상공업자들의 운명을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보람찬 삶을 안겨주신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은정과 배려를 참으로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높이 받드시고 광복정치의 빛발아래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시기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사랑과 믿음은 한량없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새 조선이 나갈 길, 자기들이 해야 할바를 모르고있던 상공업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개선연설이 실린 신문을 전해주도록 하시였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할데 대한 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받아안은 상공업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에 차넘친다.

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 광복정치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해 많은 로고를 기울이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이 지방의 여러곳을 다니시며 새 조국건설이 잘되어나가도록 정력적인 활동도 적극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함경북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장군님의 건국로선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능란한 정치사업과 인민적품모로 사람들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러 일으키신다.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은 장철삼과 유심이의 대화에서 감동적으로 반영되고있다. 그때 장철삼은

어머님께서 그 지방을 다녀가신 사실을 존경과 흠모에 넘쳐 이야기하면서 설아에게 청진에 오셨던 어머님께서 부르신 《사향가》를 야학생들에게 배워줄것을 부탁하는 장면은 해방후 어머님의 혁명활동과 품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이다.

특히 텔레비존련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에서 관중들에게 그토록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김정숙동지께서 양주소 주인인 주인공 박주복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보여준것이다.

지방할거주의자 권이중의 좌경적처사로 양소소를 몰수당한 주인공이 해방전에 일제와 거래한 사실로 하여 민족반역자로까지 몰려 비판과 락심, 동요와 번민 속에 헤매이고있을 때 그의 운명을 구원해주신분은 김정숙동지이시였다. 한 애국적기업가가 억울한 루명을 쓰고 양주소까지 몰수당 한채 구금되어있는 사실을 료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에게 뜨거운 은정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하여 주인공 박주복은 몰수당했던 자기의 양소소를 되찾고 자신의 미약한 애국적량심과 건국열의를 믿어주시고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과 어머님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새 조국건설에 헌신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였다.

식량이 귀한 때 산열매를 수집하여 그것으로 술을 생산하고 그 술을 탄광로동자들에게 공급하며 휴양소건설에 거액의 돈을 바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생산합작사조직에 앞장서 나선것은 주인공이 새롭게 받아안은 참된 삶, 자기 일개인의 재산보다도 나라와 인민의 부강번영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그의 성격발전을 보여주는 인상깊은 사진들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성심과 고매한 인민적 품모, 영광찬란한 혁명사적을 생동하게, 인상깊은 화폭으로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민족산업장려정책과 위대한 광복정치의 빛발아래 참된 삶의 길에 들어서는 개인상공업자들의 곡절많은 생활이 진실하게 그려지고

있다.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로 나라의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돈벌이에 몰두하던 지난날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님의 세심한 배려와 크나큰 사랑속에서 새 조국건설의 참다운 근로자로 성장발전하게 된다.

주인공을 비롯한 개인상공업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재부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라는 의의있는 종자가 심오하게 꽃피어나고 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적잔재, 개인리기주의근성이 농후하던 개인상공업자들도 애국, 애족, 애민의 바른길에 들어서게 한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복정치의 생활력이 생동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처음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유산계급을 용납할수 없는 착취계급으로 규정하고 청산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상공업자들에게 민족산업장려의 넓은 길을 펼쳐주었다.

비록 개인상공업자들에게 수전노적요소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지만 그들도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 차별과 멸시, 억압과 구속을 받아왔으며 그속에서도 민족적량심을 간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사회현실에 맞게 국영공업을 발전시키면서도 민족산업을 적극 장려하는 현명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애국적인 개인상공업자들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었다.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나라의 개인 기업가, 상공인들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개인리기주의적잔재를 점차 뿌리빼고 새 사회 건설의 당당한 역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작품에서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적대단결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시대적흐름과 혁명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의의있는 주제사상적해명을 주고 있다.

텔레비죤연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에서는 이러한 의의있는 내용이 관중들의 기억속에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형상적으로 훌륭히 밝혀지고있다. 관중들이 이 텔레비죤연속극을 시종일관 흥미있는 기대와 깊은 감동속에 보게 되는것은 이 작품이 안고있는 사상에술적감화력과 인상깊은 생활화폭과 풍부한 정서 속에 가치있는 생활철리를 실감있게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줄수 있는 개성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드러내야 한다.》

작가는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드러내기 위하여 풍부한 생활체험과 깊이있는

창작적사색, 개성적인 예술적탐구를 통하여 형상창조를 대담하게 시도하고 인상깊은 인간성격을 창조하였다.

작품이 사람들속에 깊은 사상정서적여운을 주는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텔레비죤문학작품에서 김정숙동지를 형상한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예술영화들을 보아도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작품은 적지 않아도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의 혁명활동을 반영한 작품은 매우 드물었다.

이런 실태에서 텔레비죤연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은 김정숙동지의 영광찬란한 해방후 혁명활동을 감동적으로 반영하고 형상하는데서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건국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을 전반적인 사건해결의 가장 심각한 고비에서 보여주었다.

주인공 박주복이 지방할거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양주소를 물수당하고 집까지 강탈당하며 가정적으로까지 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해주신분은 김정숙동지이시었다.

해방후 이런 사태를 제때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을 단결시키고 민족산업을 장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이 외곡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그 지방의 개인상공업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서 떼어냄으로써 새 조국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었으며 인민들속에서도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권이중의 종파적야심과 좌경적모험의 해독성과 후과를 간파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몸소 긴급대책을 세우시여 주인공에게 물수했던 양주소를 돌려주게 하시고 인간재생의 참된 삶을 열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숙동지의 은정어린 손길아래 주인공 박주복은 지난날 자기만을 위한 돈벌이에 전념하던 자신을 뉘우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방침을 관철해나가는 참된 인생의 길, 새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했으며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신 김정숙동지의 해방후 혁명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감동깊게 반영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충신의 빛나는 귀감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주인공의 감명적인 계기의 작품의 주요계기밑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한것은 이 작품에서 작가가 대담하게 시도한 측면이며 거둔 성과들중의 하나로 된다.

다음으로 작품이 사람들속에서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각이한 개인상공업자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훌륭히 창조한것과 관련된다.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개인상공업자들은 일제의 구축과 압박에서 벗어나 기를 펴고 기업활동을 할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점차 수령님의 건국로선과 민족산업장려정책의 정당성을 깨닫고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당시 그들은 제의 구성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있었으며 인민들속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개인상공업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광복정치의 혜택속에서만 참된 인생길에 들어선,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애국심과 민족적량심을 지닌 새 조선의 근로자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텔레비죤연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은 개인상공인들의 전형창조를 중심에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풍부하게, 생동하고 인상깊게 창조하였다.

작품은 개인상공업자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 해방후의 사회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그들의 사상감정이 개성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날수 있도록 생동한 생활 사건들과 세부들을 집중하여 형상하고있다.

작품에 나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이 담겨진 개선연설 전달장면, 개인이 중소기업을 투자운영할수 있다는 공업허가령의 제정, 산업국유화법령의 실시, 생산합작사조직 등은 당시의 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반영한 대표적실례로 된다.

당시 사회력사적현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개인상공업자들의 형상은 일반화와 개성화의 수준이 높이 보장됨으로써 훌륭하게 전형화되었다.

주인공 박주복은 민족적량심과 인정을 지닌 개인상공인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자기 기업, 자기 재산보다도 새 나라건설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적인 인간, 자신뿐아니라 다른 개인상공업자들도 옳은 길로 다같이 이끌어가는 선구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

해방전부터 자기의 뼈심을 들여 양주소를 차려놓고 기업활동을 벌려온 그는 개인기업을 하고는 있지만 민족적량심과 인정만은 간직하고있는 사람이었다. 해방전에 그는 일제의 천대와 멸시에 격분하여 그 지방에서 가장 큰 2층양옥집을 보란듯이 애써 지어놓고 정상적으로 술을 보장하라는 왜놈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해방후 나라의 독립을 진심으로 기뻐한 그는 새 조선건설을 위해 적으나마 기여를 하기 위해 물심량면으로 노력한다.

그는 탄광복구를 위해 양주소의 로동자들을 선포 동원시키며 식량도 지원하고 물지계를 지면서까지 자기네가 쓰던 양수기를 지원한다.

휴양소건설을 위해 동생에게 새 집 사주려던 돈까지 다 합쳐 가정의 명의로 현금한 사실, 생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을 심장에 받아안고 이 사업을 달가와하지 않는 개인상공업자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사실들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준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은 개인상공업자로서의 측면과 인간적인 개성적측면을 밀접히 련관시킴으로써 그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였다.

혈혈단신이던 유심이를 입원치료시켜주고 일차리와 집까지 마련해주는것, 탄광복구와 휴양소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것, 권이중의 처사에 격분하여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것, 해방직후 왜놈이 쓰고살던 집을 불사르려 할 때 그 집을 새 조국건설에 써먹도록 사람들을 설복하는 등은 다 그의 개성적성격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또한 작품은 다른 개인상공업자들의 성격도 개성화하여 보여주고있다.

형에 대한 의리를 귀중히 여기면서도 돈벌이라면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주복의 동생 주룡, 그는 유심의 입원비를 형이 부담하는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돈 안주는》 탄광복구지원에 대해 반대하며 자기 집을 사게 된 돈까지 다 휴양소건설에 현금할 의향을 듣고 펄쩍 뿜다.

작품에서는 돈벌이에 앞서 인정, 덕을 먼저 생각하는 주인공과 《인정》보다도 제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돌아가는 동생 주룡의 대조속에서 개인상공업자들의 수전노적인 성격을 일반화하고 주룡의 성격도 개성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한푼의 돈이라도 더 제 주머니에 넣으려고 탈세행위까지도 서슴치 않는 주룡의 행동은 당시 개인상공업자들속에 남아있던 사상정신적, 도덕적 부족점과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일반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직품의 주요인물들인 애안관주인 최공세, 응기공장 녀주인 엄과부 등 개인상공업자들의 성격도 흥미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최공세와 엄영옥은 리해타산이 밝은 개인상공인들로서의 일반적인 성격적공통점과 자기나름의 생활과정에 체질화된 개성적인 인간들로 형상되고있다.

주복이 해방을 맞이한 기쁨속에 술을 공짜로 사람들에게 낼 때 돈은 좀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최공세, 그와 대치되게 비록 녀자지만 속이 크게 공짜로 내겠다고 하는 엄영옥,

최공세는 남의 비위를 말라맞추며 돈벌이에 열중하고 약삭바르게 행동하는 인물로 개성화되었다.

박주복이 탄광복구를 위해 지원하자고 하자 최공세와 엄영옥은 자기들에게 차려질 몫, 보수부터 먼저 생각한다.

이와같이 개인의 리익과 재산, 돈, 기업에 대한 리해타산이 매우 밝은 개인상공업자들의 전형

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대조와 대비의 수법이 능숙하게 활용되고있으며 생동한 생활세부와 사건들이 설정됨으로써 작품전반이 진실하고 흥미있게 펼쳐지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은 자기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재치있게 활용하였다.

텔레비죤문학은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형상창조가 실현되는것만큼 연속물인 경우 수많은 장면과 장면, 사건과 사건들이 극적인장감을 가지고 흘러야 한다.

작품은 시작화면의 효과적인 리용, 비약과 함축, 집약과 집중의 수법 등 다양한 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텔레비죤극문학으로서 예술적감화력과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이 작품의 시작화면으로 제시되는 아담한 2층 양옥집, 의미깊은 제명과 함께 펼쳐지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강한 극적인인력을 받아안고 작품이 전개되는데 따라 차츰 새로운 극적 감동과 긴장감을 가지고 작품의 세계에 잠겨들게 된다.

작품은 주인공의 곡절많은 운명발전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주인공의 해방직후 2년간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주인공의 운명에서 의의있는 중요사건들을 취사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수법을 리용하였다. 작품에 전개된 탄광복구지원사업, 양주소몰수와 그 해결, 산열매수집운동, 휴양소건설헌금, 생산합작사조직 등이 사건들은 다 인물들의 운명발전과정을 집약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인간관계와 장면들도 집중적으로 설정되고 그 과정의 시간간격공간들도 대담하게 비약했다.

이밖에도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세계를 보여주는 시계추소리를 비롯한 세부들과 인

상깊은 장면들이 효과적으로 설정되어 시종일관 작품의 극성이 흘러가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주는것은 또한 현시기 당의 요구,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어디까지나 력사적사실에 의거하기때문이다.

작품의 전반내용은 복변의 한 도시에 현존하고있는 사적건물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다.

물론 작품이 실재한 인물, 사건, 사실에 의거하고있다고 하여 그것이 그대로 형상세계로 되는것은 아니다. 작품에는 실재한 감동깊은 력사적 사실에 접한 작가의 창작적 사색과 탐구가 깃든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작품은 력사적 사실과 원형에 철저히 기초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강한 정서적여운과 사상정서적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오늘도 서있는 집》은 이처럼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감동적인 혁명활동을 특색있게 반영하고 그녀의 은정속에 참다운 삶을 받아안은 개인상공업자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거족적인 통일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의 광복정치의 생활력을 실감있게 보여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작가로서의 긍지를 안고 창작사업에 불타는 열정과 사색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의의있는 우수한 성과작들을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가사

어머님과 미래

전병석

천고의 백두밀림 그 사랑을 노래하고
마안산의 눈보라도 그 사연을 전해주네
아, 백두산 그 시절에 한품에 안으신 미래
어머님은 그 미래와 영생하시네

단심줄 오리오리 붉은 마음 키워주며
아동단원 가슴마다 새 봄빛도 주시였네

아, 백두산 녀을 심어 손잡아 키우신 미래
어머님은 그 미래와 영생하시네

어머님 바쳐오신 래일위한 한평생이
사랑넌친 궁전마다 노래되어 울려가네
아, 백두산 후손들이 영원히 번영할 미래
어머님은 그 미래와 영생하시네

혁명의 어머니

황성하

눈이 내린다.

그리고 하얀눈이 사뭇사뭇 내려썰이며 이 나라 산천을 소리없이 싸덮는다.

이해따라 이 12월따라 이 땅에 오는 눈은 하많은 사연을 담고있는듯 말없는 나무가지들에 은테를 둘러주고 못사람들의 어깨에 꽃잎마냥 소룩이 내려앉는다. 10월의 하늘가에 그리고 장엄하게 메아리쳐갔던 민족대경사의 환호도 이 눈송이에 다 실려있는듯싶다.

그리고 정답고 소중하고 깨끗한 이 눈은 어디서 오는것일까. 뜨거운 생각의 뜻을 조용히 띄워보느라면 눈덮인 백두의 설령이 우렁이 가슴울렁이며 다가온다. 아, 저기 백두산에서 오는 흰눈이다. 날마다 그리움속에 모시고 살던 우리의 김정숙어머님을 못잊어 그리고 그리던 마음과 마음들이 저 하늘을 덮고도 남아 흰눈으로 하염없이 내리는것인가.

혁명의 군복을 입으시고 불길만리, 눈보라만리 그 험로를 헤치시며 어머님 싸우시던 저기 백두산!

어머님의 위대한 한생이 흘러갔고 어머님의 열정이 뜨거운 불길이 되어 타올랐으며 어머님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가장 고귀하게 피어났던 백두산.

바로 거기서, 성스러운 그 백두산에서 우리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의 빛나는 생을 아름답게 수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사수였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었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 동생을 다 잃고 친척들과도 생리별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였고 동지들을 사랑하였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이 말씀을 새겨보느라면 참으로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혁명의 어머니로서 성스러운 한생을 빛내신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사무치는 경모와 뜨거움에 가슴이 젖어든다.

조국땅에 무겁게 내려앉은 어둠의 장막속에서 이 땅을 찬란히 비쳐주는 희망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시고 티없이 맑고 열화같이 뜨거운 충성을 바치시며 성스럽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김정숙어머님.

오늘은 우리 인민이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21세기의 태양으로 온 인류가 심장과 심장을 합쳐 부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가슴터지는 궁지와 자부심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실로 어머님의 한생은 민족의 태양을 충효의 마음으로 받들어모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을 위해 바쳐진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혁명의 어머니의 한생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자신의 온넋으로 받아안던 잊지 못할 만강의 봄날에 있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 가슴을 울려주는 것인가.

동강에로의 행군을 앞두고있던 어느날 숙영지의 개울가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 녀대원과 함께 나오시었다. 숲속은 봄빛에 한껏 취해있었고 내물은 해살을 머금어 반짝이며 흐르고있었다. 봄의 정취에 잠겨 조용히 부르시는 어머님의 노래소리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내가로 나오시었다.

크나큰 감격에 젖어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시던 어머님께서 수령님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을 말씀올리자 수령님께서 감회에 젖어 만경대고향집에 대해서와 자신께서 조국을 떠나오시던 때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병환에 계실 때 좁쌀죽도 끓여드리지 못한데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너무도 뜻밖에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격정에 목이 메여 눈굽이 젖어오르시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국땅에 묻고 어린 동생들과 리별하신 우리 수령님처럼 그리고 큰 슬픔을 안고계시는분이 또 어디 있을까, 수령님은 정녕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고 우리 인민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새겨안고계시는분이시구나! 자기자신의 슬픔과 피로움보다 겨레와 인민의 재난과 고통을 더 크게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

진정 착취받고 억압받는 우리모두가 운명을 맡기고 살 유일한 품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다.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의 전사로 살

며 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이 없음을 심장깊이 느끼며 어머님께서는 그 영광을 안고 그 행복속에 살며 싸우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만강의 그 봄날에 다시금 뜨겁게 다지신 신념의 맹세를 지켜 어머님께서 수놓아오신 한평생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어찌 말과 글로써 더 전할 수 있으랴.

위대한 태양을 지켜 한몸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셨고 그 태양의 따뜻한 해발이 되셨던 김정숙어머님.

대사하치기전투에서 혁명의 사령부가 위협에 처했을 때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수령님을 옹위한 모습은 수령님의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모습이었고 태양을 옹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진두에서 헤쳐나가시느라 수령님의 군복이 초연에 그슬리고 땀에 배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언제나 백두산장군으로서의 기품이 넘쳐나던 그이의 군복에 스며진 그 사연을 우리 어찌 걱정없이 들을수 있겠는가.

명주숨을 총탄이 잘 뚫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수령님께 명주숨의투를 해드리시느라 전투와 행군의 휴식참이나 숙영지의 광솔밭옆에서 몇밤을 지새우시며 한뼘한뼘 정성들여 명주숨의투를 지으신 어머님!

간고한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해 겨울의 이야기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가슴을 못견디게 두드리는 이 이야기이다.

행군의 실참에 얼어붙은 얼음을 까고 어버이수령님의 옷을 빨래하시던 어머님께서는 비상소집 신호가 울리자 수령님의 옷을 말려드리기 위해 젖은 빨래를 가슴에 품으신채 행군대렬에 서시었다.

어머님께서는 얼음장같이 얼어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군복을 말리워드려야겠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가슴을 태우시며 광풍을 맞받아 행군길을 헤쳐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얼음장으로 굳어진다해도 마다하지 않으실 어머님이시였다.

해방후에도 자신께서 손수 그림을 그리시고 정치 수를 놓으시여 기장 깨끗하고 순결한 진정이 담긴 꽃이불을 수령님께 올리시며 조금이나마 기쁨속에 편히 쉴수 있도록 해드린 감격으로 하여 남몰래 조용히 눈물지으시던 어머님이 아니셨던가.

참으로 김정숙어머님은 자신의 온 넋과 숨결, 피와 살 그모두를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 고결한 분이시였다.

20세기의 위대한 태양, 민족을 구원해주시고 사회주의 한길로 우리 인민을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신 어머님의 빛나는 업

적은 21세기의 태양을 높이 받들어 우리 인민과 인류에게 내세워주신 또하나의 크나큰 위업으로 더더욱 빛나고있다.

항일의 준엄한 불바다속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올리시고 탄띠두른 군복의 그 품안에서 조선혁명의 억년 곳곳한 미래를 키워오신 혁명의 어머님!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그 환호성의 메아리가 그대로 우리 혁명의 천만년 미래를 열어 우리에게 오늘의 경사로운 날을 펼쳐주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고있는것이 아니던가.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가장 큰 비애에 잠겨 온 나라가 슬픔의 바다에 잠겨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저앉은 우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너무도 큰 행복감에 잠겨 어머님 계시는 주작봉마루로 달려가던 우리들이였거니.

백두밀영고향집의 눈덮인 트랙에서 첫걸음을 댄 우리 장군님을 쪽무이포단에 싸안아 키우고 군복을 줄여 입히시며 백두의 슬기의 담력을 지닌 미래의 태양으로 키워가신 김정숙어머님!

그이는 항일의 포연속에서 미래의 태양을 안아오신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이시거니.

김정숙어머님은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도 이룩할수 없었던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지만 길이 않은 한생애 단 한번의 락도 누려보지 못하시였다.

어머님 걸어오신 길은 시련과 고생이 겹쌓이는 가시덤불길이었고 걸음걸음은 불바다 눈보라를 뚫고 나간 험로역경이었다.

어머님의 지나온 한생을 되새길 때마다 눈물겹게 떠오르는 그 사연이 오늘도 가슴울려준다.

너무도 일찌기 우리 곁을 떠나신 김정숙어머님을 찾고부르며 강산이 흐느끼던 그때 어머님을 모시고 사업하던 녀성일군들이 어머님께서 쓰시던 자그마한 장농을 열어보았다.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오신 어머님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지만 그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가.

농안은 거의나 비여있었다. 자신을 위해 변변한 옷한벌 마련해두지 않으신 어머님의 빈농을 부여잡고 그들은 뚫어오르는 오월에 몸을 떨며 묵놓아 어머니를 부르고 불렀다.

한채의 집이 생겼을 때에는 해방된 조국에서 갖 살림을 편 전우에게 주시고 한벌 옷이 생겼을 때는 조국해방의 성전에서 싸우다 희생된 전우의 자식에게 입혀주신 어머님의 그 마음을 더듬으며 녀투사들은 가슴속아픔을 누를길 없었던것이다.

실로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기 않고 시고 자신을 위한 걸음은 단 한자육도 남기기 않

으시고 자신을 깡그리 혁명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천만년 무궁할 미래를 위하여 다 바치신 불같은 한생!

그렇다. 이 땅에 거세찬 주류를 이루고있는 수령결사옹위의 드높은 신념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오늘의 역센 투지도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김정숙어머님의 충효의 세계와 잇닿아있는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 부드러운 마음과 고운 인정도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고 무성해진것 이다.

사시절 푸른 소나무 설레이는 대성산의 주작봉 마루에 혁명의 붉은기와 함께 계시는 김정숙어머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우리 가는 진군길을 고무해주시나.

해마다 12월이 그러하지만 이해 12월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올린 김정숙어머님은 정녕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어머님 념원이 꽃핀 이 강산을 곱게 단장하며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환희와 추억을 불러오는 눈이다.

눈덮인 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한 태양이 솟아오른다.

맑은 하늘가에서 눈부신 태양이 빛을 뿌리며 우리가 들고선 붉은기를 더 붉게 물들여주며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앞길을 찬연히 비쳐주고 있다.

사랑과 아버지

(총련)서정인

깊은 밤
막내자식 축구화의 끈을 매주며
내 생각하노니
끝이 없을것 같던 내 청춘기도 지나가고
자식들 하는 일 잘되면 더 기쁜
아, 어느새 내 그런 나이 되였는가

내 자라온 습성대로 자식들에게
칭찬은 적게 주고 교훈을 감절로 주며
세계 꾸짖은 다음 돌아앉아서
오히려 내려가지 않은 가슴으로 하여
이마에 주름이 하나 자리를 내는 나이

흘러가는 세월이 하도 힘해서
두어두면 남이 될것 같아
어루만지다간 탄 꿈을 쫓을것 같아
아직은 키우는 재미보다도
걱정되는 일 더 많아라

자식을 세워두고 한참 말을 하다가도
더듬으니 내 어릴적
나의 아버지 하던 말 내 또한 하는것이
문득문득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누나
말이의 외람된 언행속에
저만할 때 내 모습이 엿보여도
그래도 욕을 하는것이 아버지의 본분이던가

하지만 사랑이라면
젖을 준 부드러운 사랑 먼저 알지만
인생의 멀고먼 길 가면서
비로소 더 속깊은것을 알게 되는것이지

그래서 내 생각하노니
세상엔 어머니 사랑의 노래 하 많고
다심하다면 어머니라고 하나같이 말해도
넘쳐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엄한 눈빛 떼지 못해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 뜨거웁다고

고르로운 숨결소리 가슴으로 들으면서
막내자식 머리맡에 축구화를 놓아주며
내 아버지 속깊이 묻고살던 사랑
새삼스레 느껴안아라
아, 그 아버지 오늘도 이 아들을
말없이 그 눈빛으로 지켜보고있어라

내 지금도
아버지앞에 서면 어린 자식
내 조국앞에 서면 철부지이건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도 비기고싶노라

아버지를 내 조국에
아버지를 당의 품에

백두산의 녀장수

최근 전국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중에는 백두산녀장수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내용을 담고있는것들이 적지 않다.

평안북도 창성군 금야리에서는 《김대장 축지법안은 항일녀장수 곳곳에서 왜놈 전몰케 한다.》라는 글발이 새겨진 구호목이 발굴되었고 평안북도 운산군 영웅리에서는 《조선의 녀신 항일녀장수 김대장 축지법 쓰며 왜놈 물리친다》라는 글발이 새겨진 구호목이 발굴되었다.

이 구호목들에 새겨진 글발들을 보노라면 그때 당시 사람들속에서 축지법을 쓰며 왜놈들을 죽이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백두산녀장수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들도 많이 나돌았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한다.

실지로 팔도강산에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의 비운이 말끔히 가서지고 방방곡곡에서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고있던 그때 청진일대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전설들이 여러가지로 나돌았다고 한다.

정자나무그늘밑에 돛자리를 펴고 둘러앉은 로인네들은 연신 무릎을 치며 그 이야기로 해저무는줄 몰랐고 강가의 빨래터에 모여앉은 녀인네들과 놀음에 정신이 팔려 뛰어다니던 올망졸망한 아이들도 저마다 흥이 나서 말주머니들을 풀어놓았다.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왜놈들을 삼대배듯 쓸어놓히며 싸우시던 녀장수가 우리 청진땅에 오시였는데 그 녀장수로 말하면 하늘이 낸 뛰어난 인물이라네.》

《백두산녀장수는 김일성장군님처럼 축지법을 쓴대요.》

《총으로 5리밖에 있는 엽전을 쏘아 구멍을 내신대.》

이야기가 시작되기만 하면 사람들은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시간가는줄을 잊어버렸다.

그때 들은 이야기라면서 청진태생의 한 로인은 다음과 같은 전설을 들려주었다.

족발이 왜놈들이 백두산에서 추풍락엽같이 목이 떨어져나가던 때 있는 일이다.

어느날 백두산 장군봉마루에 금빛갑옷을 펼쳐 입고 손에 보검을 든 한 녀장수가 우뚝 서서 멀리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동해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두산녀장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푸른 동해바다우에는 일본땅을 떠난 배 한척이 기우뚱거리며 조선땅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에는 왜병들이 타고있었는데 그놈들중에 술법을 쓰는 세 왜놈이 있었다. 이놈들로 말하면 《천황》이 온 일본땅을 뒤져 골라낸 자들이었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높이 솟은 다음부터 《무적》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대일본제국》이 쇠퇴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천황》은 내진에 들어박혀 밤잠도 못자고 끝치를 앓았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백두산으로 파해도 들려오는 소식은 패전뿐이었다.

밤낮까지 앓고 궁리를 짜내던 《천황》은 온 일본땅을 살살이 뒤져 술법을 쓸줄 아는자들을 골라내어 궁전으로 출두시키라는 엄령을 내렸다.

《천황》의 엄령은 큰 도회지에는 물론이고 외진 산골에 있는 자그마한 절간에까지 내려갔다.

얼마후 《천황》이 있는 궁전으로 세 왜놈이 도착하였다.

룡상을 타고앉은 《천황》은 어서 각자 자기의 재주를 보이라고 분부를 내렸다.

《천황》의 분부가 떨어지자 먼저 임진왜란때 왜놈들을 끌고 조선땅에 쳐들어왔던 왜장 소서비의 몇대 후손이라고 하는 왜놈이 올챙이처럼 딱 바라진 가슴을 내밀고 나서더니 옷을 훌훌 벗었다. 벗어제긴 몸통이에는 보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두터운 뱀비늘이 뒤덮여있었다.

《제 몸을 칼로 토막을 내보시오이다.》

뱀비늘이 뒤덮인 몸통이들 술술 문대고난 왜놈은 궁전뜰에 벌렁 나가눕는것이였다.

《천황》은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 어서 칼을 내다 치라고 분부하였다.

분부가 떨어지자 힘꼴이나 쓰게 생긴 우직스러운 왜놈이 긴 칼을 쥐고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사정을 보았다가는 네놈의 목이 떨어지리라.》

《알겠소이다.》

칼을 든 왜놈은 곧바로 누워있는 왜놈곁으로 다가가더니 칼을 두손으로 머리우에 높이 쳐들었다.

한순간 옥!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번쩍하였다.

그순간 썩가당! 하는 소리가 나더니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두동강이 나는것이였다.

뱀비늘이 뒤덮인 왜놈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도리어 히벌쭉 웃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칼에 맞은 자리를 살펴보니 조금도 베이지 못할것이 분명하였다.

그를 바라보던 《천황》은 만족한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음, 그만하면 재주가 보통이 아니로다.》

《천황》은 그에게 술 한잔을 내다주라고 분부를 내린 다음 다시 한 왜놈을 가리키며 물었다.

《너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그 왜놈은 머리를 조아리며

《예, 저는 화공법을 쓸줄 아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게 대체 어떤것이나?》

《여기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지피도록 해주시오면 제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황》은 곧 령을 내려 장작더미를 쌓게 한 다음 불을 지르게 하였다. 바깥 마른 장작더미에서는 곧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타오르는 불결으로 다가간 왜놈은 입을 크게 벌리더니 '후!'하고 들이마시었다. 그러자 시뻘건 불길이 모조리 입으로 빨려들어가는것이였다. 불을 삼킨 왜놈은 고개를 쳐들더니 허공중에 대고 후-하고 내뿜었다. 그러자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쏟아져나가는것이였다.

《음, 대단한 재주로다.》

《천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술 한잔을 내다주게 하였다.

마지막 세번째 왜놈은 분신술을 배운자였다.

《천황》의 분부가 내리기 바쁘게 한번 몸을 비틀고 땀뿜이를 치자 돌, 넷으로 변하더니 잠간사이에 수백으로 불어나는것이였다.

《천황》은 그 왜놈에게도 술 한잔을 내다주게 하였다.

그다음 신하를 불러 세 왜놈에게 금술이 달린 군복을 내주게 하고나서 《천황》은 엄령을 내렸다.

《이 시각부터 너희들을 <토벌대장>으로 임명하노라. 각자 한부대씩 거느리고 곧 백두산으로 떠나도록 하라. 공을 세우면 큰 상을 내릴터이니 그리 알고 공을 세워 파인의 근심을 덜기 바라노라.》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천황》의 분부를 받은 세 왜놈은 술한 잔을 배에 태우고 떠나게 되었던것이다.

왜놈들이 탄 배는 동해바다를 건너 부산에 이르러 닻을 내리었다. 배에서 내린 왜놈들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기세등등하여 백두산으로 기여들었다.

그런데 백두산으로 다가갈수록 당장 무슨 일을 칠것만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말았다. 밀림속에 뻘뻘이 들어선 이깔나무들을 보아도 그 나무들이 당장 군사들로 변해 불벼락을 내릴것만 같아 흠칫흠칫 놀라곤하였다.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을 보노라면 《백두산군사들은 구름을 타

고 다닌다》는 말이 생각나 머리칼이 곤두서고 등골로 진땀이 흘러내렸다.

이력저력 백두산밑에 이른 왜놈들은 더는 용기가 나지 않아 주저앉고말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왜놈들은 머리를 싸쥐고 오래동안 공론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방도도 나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날을 보냈다.

그러던중에 백두산대장수가 백두산을 떠나 다른곳으로 갔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왜놈들은 무릎을 치며 《됐다!》하고 소리를 쳤다. 백두산대장수가 없는 절호의 기회에 백두산에 올라 지형을 살핀다음 곳곳에 숨었다가 한번 맞서보자는 생각을 한것이였다.

왜놈들은 지체없이 부대를 백두산으로 내몰았다.

그때 백두산 장군봉마루에 서서 왜놈들의 동태를 손금보듯 살피고있던 백두산녀장수는 축지법을 써서 한결음에 백두산으로 기여드는 왜놈들 앞에 나서는것이였다.

《무엄한놈들, 목숨이 중하거든 빨리 조선땅을 떠남이 좋으리라.》

백두산녀장수는 산이 찌렁찌렁 울리게 호령을 내리었다.

깜짝 놀라 호령소리가 울리는 산마루를 쳐다보던 왜놈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렴 녀인이야 못당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온몸뚱이에 비늘이 덮인 왜놈이 먼저 칼을 쭉 뽑아들더니 《도쁘께끼!》하고 목구멍이 찢어지게 고함을 치며 졸병들을 앞으로 내몰았다.

백두산녀장수는 그 꼴을 가소롭게 바라보더니 총을 뽑아들고 방아쇠를 당기었다.

《땅!》

요란한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었다.

총구에서 튀어나온 총알은 길다란 불꼬리를 달고 거침없이 날아가며 어느새 불화살로 변하는것이였다. 온몸에 비늘이 덮인 왜놈은 자기한테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보려고 '앗! 앗!' 하고 기합을 썼다. 그러나 불화살은 호박에 동침들어갔다. 비늘덮인 왜놈의 가슴팍을 푹 꿔뚫었다.

《헉!》

왜놈은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푹 꼬꾸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화공법을 쓰는 왜놈이 입으로 시뻘건 불길을 토하며 졸병들을 내몰았다.

순식간에 사방은 불천지로 면하고말았다. 산은 온통 삼단같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이였다.

백두산녀장수는 보검을 뽑아들더니 허공에 대고 한바퀴 휘둘렀다. 그러자 번쩍 번개가 일더니 요란한 천둥이 울며 청청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비구름으로 짙어지는것이였다.

하늘에서는 곧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왜놈이 지른 불은 순식간에 말끔히 꺼지였다.

그래도 비는 몇지 않고 그냥 쏟아져내렸다. 물은 점점 불어나 골짜기를 메우고 산봉우리를 잠그며 사뭇쳐 흘러내렸다. 화공법을 쓰던 왜놈은 졸병놈들과 함께 사나운 물살에 휘말려들어가 수중고혼이 되고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분신술을 쓰는 왜놈이 나서더니 맴돌이를 쳤다. 순식간에 수백으로 변한 왜놈들이 떼를 지어 개무리처럼 달려들었다. 백두산녀장수는 총을 들어 그 왜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땅!》

요란한 총소리에 이어 불화살이 날아갔다. 불화살은 날아가는 동안에 수백개로 변하였다.

그 불화살들은 수백으로 불어난 왜놈들의 가슴팍을 빠짐없이 꿰뚫었다. 그런데 어찌된셈인지 그 왜놈들은 불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고 그냥 기여오르는것이였다. 분신술을 쓰는 왜놈이 제놈은 바위위에 숨고 제놈과 똑같이 변한 헛개비들만 내몰았던탓으로 불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았던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왜놈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다.

어떻게 저 왜놈들을 막아낼가?

그때 문득 하늘공중에서 《녀장수는 이 호로병을 받으라!》하고 크게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녀장수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어느새 나타났는지 흰구름을 탄 백두산대장수가 호로병 하나를 떨어뜨리는것이였다.

백두산녀장수는 호로병을 받아들자 곧 아구리를 열었다. 그러자 호로병 아구리로 세찬 광풍이

쏟아져들어가는데 개미떼처럼 무리지어 기여올라오던 수백명의 똑같이 생긴 왜놈들이 모조리 호로병속으로 빨려들어가는것이였다. 호로병을

들고보니 분신술을 쓰던 왜놈이 술한 《토벌대》놈들과 함께 개미만큼하게 작아져 병속에 갇혀있었다. 왜놈들은 호로병밖으로 나와보려고 아우성을 치며 뒤흔들거렸다.

백두산녀장수는 쓴웃음을 짓고나서 마개를 막더니 호로병을 일본땅으로 내던지였다. 그러자 갑자기 서풍이 크게 일더니 호로병은 동해바다를 건너 일본 《천황》이 있는 궁전 앞뜰에 떨어져 박산이 나는것이였다.

술법쓰는 왜놈들을 조선땅으로 건네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희소식이 오기만 기다리고있던 《천황》은 갑자기 궁전뜰에서 일어나는 지동치는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 룡상에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한참만에 겨우 정신을 차린 《천황》은 궁전뜰을 내려다보았다. 궁전뜰에는 호로병이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머리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된 《토벌대》놈들이 너저분하게 쓰러져 있는데 그속에 분신술쓰는 왜놈이 끼여 간신히 숨이 붙어 헐떡거리고있었다.

《어, 어찌된 셈인지 알아오라.》

《천황》 떨리는 소리로 분부를 내리였다.

《천황》의 령이 떨어지자 한 신하가 분신술 쓰는 왜놈결으로 다가가 사연을 알아왔다.

《백두산으로 갔던 일이 어, 어찌되었는고.》

《천황》이 묻는 말에 신하는 두손을 마주비비며 분신술 쓰는 왜놈한테서 들은대로 사실을 말하였다. 사연을 듣고있던 《천황》은 점점 얼굴이 시커멓게 질리더니 신하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이쿠! 일본은 망했구나!》하고 한마디 내뱉고 까무라치고말았다.

며칠후에야 《천황》은 겨우 정신을 차리었는데 다시는 백두산쪽을 바라보지도 못하였다 한다.

아 우리 어머니

양승근

향기로운 꽃다발 안고
만경대혁명학원
정다운 나의 모교를 찾아왔노라
오늘도 항일복차림으로
흰 백포자락 날리시며 서계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
내 삼가 옷깃 여미고 섰노라

바지에 굵게 붉은줄이 간
학원복을 입고
학원의 품에 안겨 뛰놀던
내 어린 시절
수령님이 그리울 때마다
이른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달려와 우러르던 아버지모습

생각은 깊어지여라
이해 정월초하루
백두산눈보라를 앞세우시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을
찾으셨던 우리 장군님

수령님 동상앞에 이르시여
오래도록 발길 못돌리시고
추억을 실어오는 눈발속에서
그리움과 그리움에 젖어
하시던 말씀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은
우리 어머니께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고싶어하는 학원원아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모시도록 하여주신 동상입니다

아 우러르는 이 마음속에
이날에 하신 장군님의 말씀
뜨겁게뜨겁게 안겨오고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생각

세월은 흘러
내 머리에도 흰서리 앉았고
아버이수령님 동상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 준공식이 있는
그날로부터 근 반세기
내 오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듯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그리워지는 모습

눈정기 빛나시는 수령님 모습에서도
천만년 굳건할 대돌에서도
새겨진 한자한자 글발마다에도
풍겨오는 어머니의 후더운 숨결
어려오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그 영상

유서깊은 혁명의 고향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아버지장군님의 모습 안겨주시려
바치신 정성
기울이신 로고를 생각할수록
그 나날에 잊지 못할 어머니 영상
하많은 이야기를 더듬어볼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아,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니시여

1

깊어가는 밤
삼태성도 기울고
소쩍새도 울다 잠들었는데
해방산기슭의 숙소 창문엔
꺼질줄 모르는 한점의 불빛

새 조선 건설 위해
바쁘신 수령님 보좌하시며
온종일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길도 많이 걸으신 어머니

쌍이신 피로를 푸셔야 할 몸이시건만
어찌하여 이 밤 잠못이루시고
낮게 드리운 전등불아래서
끝없이 생각을 더듬고계시는것인가

이제 날이 밝으면
수령님 모시고 찾아가실
간리의 혁명자유가죽학원 립시교사

거기에는 백두산에서 함께 싸우다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채
 낫설은 산야에 묻힌
 혁명동지들의 유자녀들이 모여있어라
 수령님의 무릎을 베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투사들이 부탁하고 간 자녀들
 땅을 창건하고
 새 조국 건설의 분망하신 나날에도
 투사들의 그 부탁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할 일중에서도 제일 먼저 할 일로
 자나깨나 마음써오신
 수령님과 어머니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해
 애국투사후원회를 조직하시고
 먼길 떠나보낸 사람은 얼마였던가
 주소도 이름도 모르고
 온 동북땅을 찾아떠난 투사들

의지가 없었어
 남의 집 아이보개로
 풀머슴으로 시달리며
 해방이 된줄도 모르고
 길에서 방랑하고있는 아이들
 금싸래기를 얻듯이
 해를 넘겨가며
 하나하나 찾아낸 아이들

줄곧 눈길 못떼시고
 어머니께서 보고계시는
 가지색뚜껑의 작은 수첩
 그것은 혈벗은 마안산의 아이들을
 수령님 안아주셨던
 그때부터 몸에 지니고계시던것

또박또박 박아쓰신
 희생된 동지들의 이름
 유가족, 유자녀들의 주소와 나이
 몸에 있는 류다른 특징들
 상세히 그려진 거주지의 략도들

거기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절개를 지킨
 동지들을 영결하며 부르신
 추도가의 한구절도 적혀있었나니

...
 렬사들의 뼈와 살은 옥토속에 묻혔으나
 혁명정신 살아있고 일편단심 남아있다
 ...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조국진군의 길
 대부대선회작전의 길에서도
 유지로 싸고 또 싸시며
 소중히 몸에 간수하시고
 글씨가 희미해지면
 그우에 덧글씨 써가시며
 이날까지 안고오신 수첩

보풀이 인 그 수첩장
 한장한장 넘겨가시며
 조용히 외워보시는 희생된 동지들의 이름
 그러보시는 유자녀들의 얼굴

이렇게 한밤을 지새우시며
 날뵈기를 기다리시던 어머니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아이들을 찾아 달려가실 때
 얼마나 가슴 진정하실길 없으셨던가

어느덧 차가 학원마당에 들어서자
 불시에 여기저기서 터져오르는
 원아들의 환성
 감격에 목이 메고
 기쁨과 행복에 더운 눈물 흘리며
 환희의 물결로 파도쳐와라

아, 이날이 오리라 믿었다
 어서 오너라 어디 보자

막혔던 물목이 터졌는가
 구름처럼 달려오는 유자녀들
 얹어질세라
 걱정부터 앞서신 어머니
 서둘러 두팔 벌리시는데

순간 어이된 일인가
 수령님앞에서
 주춤거리며 하나, 둘
 그자리에 굳어지는 아이들
 문득 제 옷주제를 생각했던가
 더부룩한 머리
 꺾진 베적삼구멍으로 드러난 멍든 어깨
 닳아떨어진 쥘신
 뼈죽이 내민 발가락
 여위고 거칠은 두손은 어디다 건사할지

너무도 가슴 미여지는 이 정상앞에
 와락 아이들을 껴안으시며
 눈물 감추지 못하시는 어머니

학원앞마당은 울음판이 되었는데
 갈리신 음성으로 하시는
 어머니님 말씀
 -이러지들 말아라
 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고
 이런 신발을 신었다고
 나무람하지 않으신다
 못입은게 어찌 너희들의 죄냐
 이라고도 곳곳이 산 너희들이기에
 더 귀중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장군님이시다

그제야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수령님품에 안기는 아이들
 더 크게 터뜨리는 울음
 -장군님!
 -어머니!

얼마나 안기고싶었던 품인가
 얼마나 그리고그리던 품이던가
 찬바람 찬눈속에서 ,
 집없이 떨며 찾고찾던 품
 부모가 혁명가인 탓으로
 모진 세상에서 온갖 천대 멸시를
 받을 때마다
 천리건 만리건 달려가 안기고싶었던 품

지나온 나날이 생각나서
 설움에 북받쳐 울고
 오늘의 이 기쁨이 너무도 꿈만 같아
 그칠줄 모르는 아이들을
 더 꼭 껴안아주시는
 수령님의 목소리도 갈리시여라

-자 이제는 울음을 그쳐라
 백두산에 눈내리고
 바람 사나와질 때면
 너희들 생각이 더 났단다
 이제는 너희들의 세상이 왔다
 어서 그쳐라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이들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함께 계시던 수령님과 어머니
 이제는 그만 떠나가실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서시려는데

잠시도 떨어저선 못살것만 같아
 백날이고 천날이고
 이렇게 함께 있고싶어
 눈물이 그렇게 팔에 매달리는 아이들

차마 발걸음 떼지 못하시는 어머니
 아이들의 등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하시는 말씀
 -이제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
 만경대에 큰 집을 지어주신단다
 그러자 순간에 피어나는 얼굴들
 아이들은 기쁨에 웅성거리는데
 대사하전투에서 희생된
 전동무의 딸 순희가 묻는 말
 -어머니
 만경대에 가면
 아버지장군님을 매일 뵈울수 있나요?
 -그럼
 매일 뵈울수 있구말구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어머니는 생각하시여라
 건국사업에 그리도 바쁘신 수령님께서
 어떻게 매일 학원에 나가실수 있으랴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차안에서
 흘러가는 푸른 산천을
 말없이 보시면서도
 기쁨에 행복에 넘쳤던 아이들의 얼굴
 다시금 하나하나 그려보시며
 어머니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갔어라

2

뜻깊은 개원식이 진행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도
 어리신 **김정일**동지와 함께
 여러차례 학원을 다녀오신 어머니

만날 때마다
 정이 더 깊어지시는 어머니
 보고싶고 또 보고싶으시여
 짬만 있으면 찾아가시던
 간리의 립시교사

가실 때면 인제나
 들고가시는 회색손가방
 거기에는 들어있었다
 차곡차곡 개여놓은

여러가지 색깔의 천들
 구리빛나는 학원복단추들
 약병들 참빛 그리고 거울

장난이 심해
단추가 떨어진 아이들을 보시고는
옷을 벗기시여 단추도 달아주시고
뒤산에 올라가 뛰놀다가
바위돌에 굽히운 아이들을 보시고는
약병도 꺼내드시고

밤이 되어 원아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침실에 들리시여
차던진 담요도 다시 덮어주시며
얇음소리를 내는 아이들은 없는가
다심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어머니

그러시던 어느날 밤이었어라
문득 저 한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잠꼬대
어머님은 분명 그 잠소리를 가려들으셨더라
-장군님!
-아버지!

가까이 가보니
원쭉들에게 일가친척 다 잃은
오동무의 아들 국철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꿈에서도 수령님 뵈옵고있는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느때나 수령님을 뵈고싶어하는
원아들의 소원을 풀어줄수 있을가
어머님의 뇌리에서 늘 떠날줄 모르는
이 하나의 생각

조국해방 두뚝을 맞으며
제2차 민주전국박람회가 열리어
어리신 **김정일**동지와 함께
남산동으로 향해가실 때도
박람회장을 돌아보시면서도
어머님의 생각은 오직 그 하나
새 나라의 주인된 인민의
창조의 숨결이 깃든 진렬품들을
유심히 살펴가시다가
그 누군가가 창작한
로동자 농민의 조각상앞에 이르신
어머님과 지도자동지

문득 떠오르는것 있으시여
오래도록 그자리에 멈춰서시여
보시고 또 보시며
발걸음을 못떼시는 어머니께
어리신 **김정일**동지 말씀올려라

-아버지장군님을
매일 보고싶어하는 원아들에게
사진을 많이 만들어
한장씩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시다
그러나 이 조각상을 보니
동상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리도 생각이 같았던가
순간에 빛나시는 어머니의 얼굴
수령님의 동상을
아침저녁 우러르며
수령님을 만난듯 기뻐할
원아들의 모습 그리시는가
그처럼 훌륭한 생각을
어리신 **김정일**동지께서 하고계셨으니
어머님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의 미소 행복의 미소

그 미소를 안으시고
우리의 어머니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어느 해안도시를 향해
먼길을 떠나셨어라
이름없이 묻혀있던 한 조각가를 찾으시여

3

너무나도 뜻밖에
자기를 찾아주신 어머니를 뵈오며
몸돌바를 몰라하는 조각가를
가까이 앉히시며
그날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오늘도 귀전에 뜨겁게 울려와라

-문선생
장군님의 동상을 만경대에 모시려는것은
장군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언제나 그 품에 살고싶어하는
학원원아들의 소원이고
희생된 전우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만경대혁명학원에
수령님 동상을 모시면
언제나 학원의 유자녀들
수령님을 만나뵈고 수령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할것이라 하시며
방학이 끝나서 학원에 돌아올 때도

저희들을 기다려 서계시는
친아버지품에 안기듯
동상을 향해 막 뛰어올것이라고

간절히 하시는 어머님 말씀

아 승고한 그 의리의 말씀앞에
조각가도 머리숙이고
동상건립에 대한 어머님의 구상을 들은
항일의 투사들은 또 얼마나 기뻐했던가

만경대에 수령님의 동상을 세운다는
반가운 소식 순간에 온 나라에 퍼져
앞을 다투어 모여온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건설장은 편일 불야성을 이루며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나니
그 나날에 잠을 아셨던가
휴식을 아셨던가
너맹원들과 나무도 심으시고
손수 솜장갑도 낀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을 고무하는
연예대공연도 조직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을 다 바쳐가신 어머님

통강에서 동상대들을 실어오는 날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스산했어라
온몸이 비에 다 젖었건만
누구 하나 작업장 뜰념을 잃고
신바람나서 일하는 그 모습
사랑어린 눈길로 지켜보시던 어머님
만경대고향집을 찾아가셨어라

어느때와는 달리
차마 말씀 못드리고 머뭇거리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슴지 말고 어서 말하라고
다정히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시는데
딱하신듯 얼굴을 붉히시며
하나의 청을 말씀드려라

-장군님의 동상을 세우느라고
노동자들이 비를 맞으며 일하고있는데
간식으로 더운 음식을
대접했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있는
조부모님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여라
동상을 모시는 일이 시작된 뜻깊은 날에는
몸소 손잡아 모시여
할아버님께서 첫 삽을 뜨게 하시더니
공사가 한창인 오늘에는
만경대고향집의 정성이 깃든 고구마를
수고하는 건설자들에게 대접해
조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려는 어머님

너무도 사랑스럽고 대견하시여
그 정성이면
저 동해천리 물속에 있다는
장생불로초라도 구할수 있다 하시며
부엌문을 활짝 열고 몸소 나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팔을 걷어올리시고
찬물에 손을 담그시는 어머님 따라
고향집의 온 가족이 펼쳐나섰어라
큰 가마에 고구마를 찌서
광주리에 듬뿍 이고 나서신
어머님과 만경대고향집분들
김이 문문 나는 고구마를
건설자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실 때
선뜻 받아들지 못하는 건설자들
감격의 눈물을 지었거니

아 단 하루라도
수령님을 뵈지 않고 못사는
희생된 전우들의 아들딸 위해
그들을 부모들처럼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해
어머님께서 바치신 정성
기울이신 로고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4

력사여
만경대여 영원히 기억하라
주체37년 10월 24일
이날은 만경대학원의 새 교사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모신 날

수천만년 만경대가 생겨
이날처럼 사람들 많이 모인 날 있었던가
온통 사람들로 하얗게 덮인 만경대
전국각지에서 온 혁명가유가족들
강선에서 달려온 노동자들
고창에서 온 농민들
강동에서 달구지에 앉아
밤새워 달려온 늙은이들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어머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신곳
만경봉과 마주한 교사의 정면에 모신 동상
이제 하얀 제막포가 벗겨지면
솟아오르는 아침해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날 수령님 모습 그려보며
사람들 흥분으로 가슴 설레이는데

만경대고향집에 들리시여
조부모님들 모시고 나오신 어머니
항일투사들과 건설자들
유자녀들과 함께
제막의 시각을 맞이하셨어라

드디어
새하얀 제막포가 내리워지자
하늘땅을 뒤흔들며
터지는 환성
-김일성장군 만세!만세!

만경대의 산과 들이
기쁨의 파도
감격의 파도로 설레인다
발을 동동 구르며
꽃다발을 흔드는 유자녀들
절절한 소원이 풀린 이 순간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여라

백두광야에 날리시던
백포자락 걸치시고
쌍안경 드신 거룩한 그 모습
권총을 차시고
저 멀리 남쪽하늘 바라보시는
위대한 령장 김일성동지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이 시각이었던가
어머님의 구상속에
어머님의 정성속에 솟아오른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여!

양춘을 다시 만난
만경봉소나무도 기쁨의 노래 불러라
조선의 정기가 어린
고향집박우물도 행복에 솟구치여라

왜놈에게 짓밟혔던 내 조국을
기어이 다시 찾으리라
혁명의 굳은 맹세 다시시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우리 수령님 떠나가신 만경대

눈보라 사나운 백두의 광야에서
기나긴 20성상
혈전의 준령을 수없이 넘으시며
일제를 쳐부시고
해방된 조국을 안고

다시 오신 여기 만경대에
그 누가 수령님의 첫 동상을 모시였는가

아 태양의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여
정녕 우리 조국을 구원한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온 민족앞에 소리높이 전하는
다함없는 칭송과 환호의 절정

그것은 우리 조선이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조국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포
우리는 모두가 김일성민족이고
자라나는 혁명의 새 세대들 모두는
수령님과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충직한 아들딸임을
눈시울 뜨거이 가슴속에 새겨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었거니
경건히 동상을 우러르니
어머님께서 몇밤을 지새우시며
지으신 글
화강석대돌에 아로새겨진
뜻깊은 글발이 가슴을 울려라

-조선빨찌산의 영웅을 세계에 떨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
장군님이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가의 자제를 위한 만경대학원을 세워
장군님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빛나는 이름을 아로새겨 길이 전하노라
1948년 10월 12일

이 글발 가슴에 되새기며
얼싸안고 걱정을 터치는
들끓는 환호의 물결속에서
사람들은 찾았다
천추만대에 길이 전할
대공을 이룩하신
김정숙어머님을

그러나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시각에
어머님은 어디에 계셨던가

아 주방에서 울리는 칼도마소리
그 칼도마앞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팔소매를 걷어올리신
어머님께서 서계시였거니

사랑스러운 전우의 아들딸들이
나서 제일 기쁜 명절을 맞고있는데
그들에게 차려줄 음식을
어머니가 제손으로 해주어야 한다면
주방문에 들어서신 어머니

오늘의 경사를
제일 기뻐하시는분은 우리 어머님
제일 축하를 받으셔야 할분도 어머님
칼장단을 울려가시는
어머님의 손등우엔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떨어져내리고있었나니
그 누구도 보지 않는곳에서
어머님은 기쁨에 울고계셨어라

울고계셨어라
준공을 앞둔 지난밤
흥분으로 가슴 진정할길 없으시며
별빛 흐르는 정원길을 끝없이 걸으시며
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자꾸만 생각키워

-왜놈들에게 갇은 천대와 구박을 받으며
그리고 고생하던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큰 집을 세워주고
마음껏 공부시키게 되었으니
오늘에야 내 가슴속에 쌓였던 시름이
다 풀리는것 같소

산에서 희생된 동지들을 두고
가슴이 아프시여 잠 이루지 못하시고
끼니마저 번지시며 슬픔에 잠겨계시던
수령님 생각이 떠올라
격해지는 마음 달래이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보시며
수령님 목소리도 갈리시였어라

-좁해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정숙동무가
오늘은 웬일이
하기야 오늘처럼 기쁜 날에는
눈물을 흘려도 좋고
목놓아 울어도 일없이

아 칼도마소리
칼도마소리
환희로이 울리는 칼도마소리
그날에 그 누가
이 칼도마소리의 주인이
김정숙어머님이신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음식그릇 드시고
아이들의 상앞에 놓아주시는
앞치마 두르신 어머니를
사람들은 뜨거움을 삼키며 우려했거니

송구한 마음 이룰데 없어
저저마다 어머님을 식탁으로 모시건만
어머님은 웃음으로 사양하시며
아이들결 뜨실줄 모르시고
맛있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고계셨더라

항일의 나날 어머님께서 만드신
송기떡 받아들고 그리도 기뻐하던
이들의 부모들을 다시 보는듯
너의 아버지는 설기떡을 좋아했다시며
저가락에 끼여 손에 들려도 주시고
너의 어머니는 산나물채를 좋아했다시며
입 넣어도 주시며
-오늘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다
너희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온 나라 인민의 명절이구나

흥성던 축하연도 끝나고
멀리 대보산너머 저녁노을 비끼는무렵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김정일**동지와 함께
대동강가로 나가시였라

유유히 흐르는 맑은 물결우엔
두둥실 하얀 돛배들이 떠흐르고
푸르른 소나무 끝없이 설레는 만경봉
일만경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름다운 대동강기슭
불타는 노을속에 찬란한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수령님 동상

원아들과 건설자들
각계각층 대표들이
오늘의 이 행복을 생각하며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수령님 동상 우러러 눈길 못떼는데
어머님과 어리신 **김정일**동지께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어머님
아버지장군님 동상이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잘 보이는구나
-어머니

평양에 가셔도 잘 보일가요
—거기서야 머니까 어떻게 보이겠니

한동안 말썸없이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일**동지
어머니만이 아닌
온 세상에 대고 웨치듯
힘주어 말씀하시여라

—어머님,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평양에서도 보이고
그 어디서도 다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날의 그 말씀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산천이 새겨들었는가
그때로부터 반세기
수령님을 높이 받드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충효의 마음 안고
얼마나 많은 동상들이
이 나라 가는곳마다 높이 모셔졌는가

성스러운 혁명의 자욱이 어린
유서깊은 땅을 찾을 때마다
그날의 수령님 모습 뵈고싶어
인민이 높이 모셨노라
만경대의 유자녀들처럼
자나깨나 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온 나라의 간절한 마음들이
자기들이 사는 도시마다 높이 모셨노라

지구를 대돌로 받들어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수령님 모습
불타는 아침노을을 펼치시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서계시는 수령님
오늘은 온 세계가
혁명의 태양으로 우러르나니

력사앞에
인류앞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드신
어머님의 그 충정
그 충정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충효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노래불러 끝이 없으리라
끝이 없으리라

×

어디 가나 잊지 못할 나의 학원
사연깊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경건한 마음안고 우러르노라면
떠오르노라
그날의 어머님의 그 모습이

항일의 그 나날로부터
오직 수령님만을 알고
자신의 마음 바치시고
모든 정성 다 바쳐오신 어머님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여
한목숨 다해 싸우시며
수령님의 해발이 되시고
충성의 귀감이 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인정도 깊으시고
사랑으로 뜨거우시여
눈물도 많으신 어머님께서
인민의 녀원
희생된 전우들의 녀원 안고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첫 동상
그밑에서 수령님께 충직한 만경대아들딸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던가

가지색뚜껑 수첩에 적혀있던 그 이름들
사랑의 그 품속에서 자라난
그날의 원아들이
선렬들의 붉은 피줄기를
그대로 넘겨받아
주체의 혈통
백두산의 혈통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이어
백두의 붉은기정신이 짝 들어찬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으로 자랑떨치는
억년 드물지 않는 성세 방패가 되어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보며
어머님의 그 사랑 노래하나니

아, 우리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수령님의 주체위업 굳건히 이어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빛내여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 땅우에
김정숙어머님이시여
어머님은
천만년 길이길이 영생하고계시여라

회령에서

최성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다고 하시었다.

조국의 북부지구를 편담중이던 내가 두만강연안의 뜻깊은 력사의 고장 회령을 찾은것은 벌써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의 절기였다.

고무산청년역을 얼마간 지나서부터 회령천기슭을 가까이 하고 달리던 렬차는 오후시간에야 회령역에 들어섰다.

현대적인 면모로 일신한 북방의 아름다운 도시 회령시가가 차창을 통해 한눈에 안겨들었다. 야산을 끼고 조화롭게 들어앉은 하얀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였다.

옛날에는 인적 드문 산간오지로 버림받아오던 고장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북방경비를 목적으로 회령 부라는 말단행정구역 명칭도 생겨나고 성곽들도 허약하게나마 쌓아졌지만 부패무능하기 그지없는 봉건통치배들이 나라방위에는 관심이 없고 치부와 향락, 권세욕에만 눈이 어두웠던탓에 이고장 사람들은 세상의 눈밖에 있었다.

해방전 일제통치시기에는 망국의 비운이 짙게 드리워 더욱 사람 못살고장이였다. 일제침략의 검은 발굽이 북변의 땅에도 미치여 도처에 군대와 헌병, 경찰들이 밀려들어 자그마한 항거의 싹도 짓뭇개버렸으며 지주, 자본가놈들이 가난한 인민들에게서 고혈을 짜냈다.

그러던 회령이 해방후에 천지개벽을 하였다. 도처에 지방산업공장들을 비롯한 크고작은 공장들이 일떠서고 탄광이며 농촌 등 어디라없이 자기의 발전면모를 일신하여 회령이라면 물산이 많은 고장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곳 회령이 온 나라에 더욱 알려지고 세상에 빛나게 된것은 우리 혁명력사에 영광의 고장으로 새겨져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여기 회령의 유서깊은 고향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애국의 큰 뜻을 키워가시였다.

하여 오늘도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참관생들이 이 영광의 땅을 찾아오는것이였다.

나는 이러한 생각들로 하여 흥분된 마음을 안고 역을 나섰다.

북방의 한낮은 초가을이지만 따스했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났다.

려장을 풀어놓기 바쁘게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찾았다. 역전에서 뻗어간 번듯한 포장도로를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오산덕기슭에 서계시는 어머님의 동상이 보이였다. 밝은 햇빛을 함뿍 받으시며 항일의 군복차림그대로 서계시는 위대한 어머님의 동상이였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왔다. 조국해방의 봄을 위하여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멀고 험난했던 시련의 길은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어머님께서 생시에 그토록 그리던 고향땅에 저 항일의 군복차림 그대로 들리시였다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지만 위대한 어머님께서 해방의 봄빛을 안고 조국에 나오신 다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받들어 바쁜 나날을 보내시느라 회령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고향에 들리지 못하시였다. 하여 인민은 위대한 어머님을 못잊어 회령땅에 동상을 높이 모신것이였다.

활짝 핀 진달래를 정겨이 안으시고 조국강산에 축복의 밝은 빛을 뿌려주시는 녀사의 미소, 혁명에 소중히 차고계시는 권총이며 군모우에 빛나는 오각별...동지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조선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어머님의 사랑과 공적에 대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날아오는 적탄도 한몸으로 막아나서던 어머님의 그 충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였다.

어느해엔가 회령지구를 현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산덕기슭의 어머님동상을 찾으시였다. 항일전의 모습그대로이신 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동안 뜨거운 감회에 잠기시여 어머님을 추억하시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서계시는 어머님의 동상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시였으랴. 녀사의 티없는 충성심에 대하여 두고두고 말씀하시며 한생 고생만 시키다가 먼저 떠나보내신 그것이 못내 가슴아프다고 하시던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심중이 어려와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나는 오래도록 녀사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나는 그길로 어머님의 고향집을 찾았다.

오산덕기슭에 있는 고향집은 해방전 북부오지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가난의 흔적이 력력한 작은 초가집이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이 집에서 탄생하시여 나라잃은 인민이 당하는 슬픔을 뼈속깊이 체험하시며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다. 방안에는 어머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살림도구들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밑굽이 다 떨어진 합지며 귀떨어진 물동이며 하는 살림도구들은 가난한 살림살이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어머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하시여 부모님들의 일손을 착실히 도우시였으며 계급적원썬들에 대한 증오심이 남달리 강하시였다고 한다.

그러하신 어머님이시였기에 그이께서는 한생을 동지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듯 자애에 넘치시였으며 원썬들과의 싸움에서는 용맹하신것이였다.

어머님께서 유년시절을 보내시던 주체11(1922)년 봄에 일가는 악착한 지주놈에 의하여 소작부치던 땅마저 빼우고말았다. 하여 이해에 어머님께서서는 류량의 길을 떠나는 일가와 함께 두만강을 건느시였다.

강사의 해설을 듣느라니 어리신 녀사께서 정든 고향의 트랙우에 눈물을 뿌리시며 이역땅을 향해 떠나가시였을 그날의 정경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나는 문득 언젠가 한 녀성투사동지를 만나서 취재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항일전의 간고한 나날 두고온 정다운 고향을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으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어느날 백두산이 가까이 보이는 언덕에 이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회령이 어느쪽인가고 물으시였다고 한다.

그처럼 사랑하시였고 그리시던 고향이었지만 어머님께서서는 해방되였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바쁜 나날을 보내시느라 찾아오실 시간을 내지 못하시였다. 그래서 더더욱 오산덕기슭의 추녀났은 초가집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것이였다.

나는 고향집을 나서자 눈앞에 안겨오는 오산덕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오산이란 이름은 자라처럼 생긴 산이라는데서부터 자라 《오》자를 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고서를 보면 고려때까지만 하여도 이고장 이름을 오산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만 고향집과 잇닿은 크지 않은 산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유래가 그래서 그런지 모양새가 특이해보이는 오산덕은 지금 혁명사적지이다. 김정숙어머님의 어린 시절 자옥이 여기에 새겨져있는것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땅없는 농민들의 서글픔을 체험하시며 늘 오산덕에 오르시여 나물도 캐시고 이삭주이도 하시면서 수난에 찬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다.

고향집에서 멀지 않은 팔울천에도 위대한 어머님의 자취가 어리여있다.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팔울천, 조국의 하늘을 비껴담고 변함없이 흐르는 내물가에서 어리신 녀사께서는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 자주 빨래를 하시였다.

여기 회령땅은 그 어디에나 어머님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유서깊은곳이다. 어머님께서서는 오산덕마루에도 자주 오르시여 계급의식을 키우시였으며 오산덕의 원경대에 오르시여서는 나라잃은 설움을 안고 두만강을 건느는 류량민들을 아픈 눈길로 바라보시며 왜놈들이 없는 새 세상을 그려보기도 하시였다.

나는 어머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으며 두만강기슭으로 향했다.

키높이 자라오른 나무들사이로 난 잘 포장된 길이 두만강쪽으로 이어져있었다. 지금은 참관자들의 대오가 끊임없는 흐름을 이루고있지만 해방전에는 류량민들의 발에 짓이겨지고 다져진 숲속의 진창길, 뽕얇게 먼지가 피어오르는 황토길이 있을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인민이 이 길우에 망국노의 서러운 눈물을 뿌리며 고국 떠나산절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떠나갔을것인가!

이 나라 력사를 담아신고 유유히 흐르는 북변의 장강-두만강! 사연깊은 이 강기슭에 망양나루터가 있다.

나는 나루터를 찾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주체11(1922)년 봄 바로 이 나루터에서 사랑하는 고향땅을 뒤에 두시고 이역땅 북간도로 떠나가시였다.

지금은 이곳이 망양로동자구로 되여 생활이 끓어번지고있지만 어머님께서 두만강을 건느시던 그때까지만 하여도 게딱지같은 초라한 집들이 드문드문 보일뿐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눈물이 마를새 없던 원한의 나루터였다. 살길을 찾아 이국땅을 향해가는 류량민들이 고국과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터치는 리별의 울음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황토먼지우에 휘뿌려졌다.

그날 녀사께서는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수 없는 사랑하는 고향땅과의 리별이 가슴아프시여 어머님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였다.

녀사의 어머님께서서는 그러한 어리신 따님의 손을 잡아끄시여 바람부는 나루터의 언덕우에 세워주시였다. 어리신 따님의 가슴속에 고향의 모습을 새겨주시기 위해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루터 언덕에 서시여 고향 회령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어리신 시절을 보내신 정다운 고향, 동무들과 함께 종달바구니를 안고 나물도 캐시고 봄꽃향기에 취해보기도 하시던 정다운 오산덕, 일가의 소박한 생활과 화목한 웃음이 가난속에서도 스러질줄 모르던 고향집이 있는 그 기슭... 하지만 그 못잇을 고향은 침략자 왜놈들의 구두발에 짓밟혀 신음하고있었다. 하여 저기 오산덕기슭과 실버들 자란 회령천기슭의 회령시가는 한줄기 빛도 없는 칙칙한 정적에 싸여있었다.

그날의 어머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었으랴. 뼈저덕 뼈저덕 하는 노젓는 소리와 함께 두만강의 거치른 물결우를 떠가는 매생이우에 앉아가시면서도 어리신 그이께서는 침략자들의 발굽아래 짓밟혀 신음하는 고향의 정경이 가슴아프시여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으리라. 왜놈들이 없는 세상, 독립된 새 조선의 그날에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설 사랑하는 고향의 모습도 그려보시었으리라.

바로 그 념원을 안으시고 이 강을 건느시였던 김정숙어머님께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항일혈전의 수만리길을 헤쳐오시었으며 해방의 봄빛을 안고 오시었다.

나는 그날의 어리신 녀사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해드렸던 나루터언덕에 올라 회령시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후터워지고 눈곱이 찢릿해왔다. 황토먼지 날리는 그날의 언덕에서 어머님 바라보시던 그 눈물의 땅, 수난의 산천이 오늘은 얼마나 눈부시게 변모되었는가! 도처에 일떠선 크고 작은 기업소들과 공장들, 산수 수려한 회령천기슭의 하얀 고층살림집들... 절기도 한창 좋은 가을철이라 저기 전야들에서는 난알의 구수한 향기도 날

아오는듯하다. 어머님께서 그날에 그리시던 착취 없고 압박없는 세상, 행복의 리상촌이 주체시대에 와서 현실로 꽃피난것이였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인민은 이 땅의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한생을 더욱 잊지 못해하는것이다.

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고저 여기 회령땅에 어머님의 동상을 모심과 함께 기념비들을 세웠다.

나는 망양나루터에 세운 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녀사의 빛나는 생애앞에 감사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드리며 나는 비문의 구절구절을 읽어나갔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나루터의 모래불에 작은 쥘신자옥 남기시며 꿈결에도 못잇을 정든 고향 회령을 떠나가시면서 어리신 마음에도 슬픔을 금치 못하시였고 원썬들이 없는 해방된 그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였다.

북간도의 피바다속에서 사랑하는 혈육을 여의시고 나라 잃은 슬픔과 원썬에 대한 적개심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시여 강도 일제를 무찔러 용감히 싸우시였다.

한생을 다 바치시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드신 주체형의 혁명가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는 이 나루터에서 이어져나간 간고한 혁명의 로정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영웅의 삶은 저 하늘처럼 영원하리

정렬

령장의 마음속에 있는 전사

길영조영웅이여
나는 감격에 목메여
그대 이름 부른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그대 마지막으로 출격의 동음 울린
우리 비행장으로 오시었다

그대 최후를 마친 하늘에
그 어떤 표적은 남지 않았어도
저 하늘을 바라만 보아도
그대 생각이 난다 하시며
가시던 걸음 멈추신 그이
소문도 없이 들리셨다

자나깨나 꿈결에도 뵈고싶던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대 생전의 소원이 오늘에야 풀려
그이의 옷자락을 스치는 바람결은
걱정에 겨워 기쁨에 반기는
영웅의 뜨거운 숨결인가

그대 날마다 뜨고 내리던
못잊을 활주로도 밝아보시던 그이
그대 티없는 충효의 마음 어린
수첩장에서
자작시도 읊어보시었구나

하늘만리 함께 날으던
주도기비행사인 나도
자주 불러보지 못하는 그대의 이름
그이는 뜨겁게 회억하시며

그대 녀이 어린
먼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셨구나

길영조영웅은
최고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진짜 영웅이라고
그 누구도 재여보지 못한
영웅의 충효의 높이를 새겨주시며
생전에 더 주지 못한 사랑
세월을 이어 주고 또 주시는
그 은정의 끝은 어디인가

구름은 흐르고
기류는 흐르고
눈비는 내리여
무한대한 하늘도
때없이 가리워지나니

하지만 위대한 령장
그이의 깊고깊은 심중의 세계에는
그대 값있게 생을 마무리한
그날의 하늘이 언제나 맑게 비껴있었구나
그대 생을 매듭지은 그 한끝에서
영생으로 다시 시작되는 생명을 주시었구나

아 그 어떤 비바람도 때낼수 없는
령장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전사
그 이름 길영조
비록 목숨은 졌어도
영웅이 받아안은 영광은
저 높푸른 하늘처럼 영원하여라

구령은 내렸어도...

《탈출하라》
이 구령은
비행훈련장에서
락하사술을 뿜으며
자주 숙련시키는 구령이다

착륙을 앞두고
락하산탈출을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그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지

-비행사에게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전을 담보하기전에는
탈출할 권리가 없습니다

길영조영웅이
그랬었구나
그대 착륙항로를 따라
기수를 돌리던 그 시각
갑자기 동체에 휘감긴

검은 연기와 불길...

그 순간 시창에 비쳐든것은
은빛날개밑으로 정답게 흘러가는
고층살림집들의 밝은 창문
그 한가운데는
그도 정성의 꽃다발 안고 즐겨 찾던
아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동상

만약 위험을 피하여
탈출한다면
이 한몸 기지로 무사히 돌아갈수 있어도
거리의 평온한 생활은 뒤틀리고
전사의 삶은 치욕으로 더럽혀지리
이 한몸 기꺼이 던져

불행을 행복과 바꿀수만 있다면...
순결한 랑심에 묻고 대답하며
영웅은 하늘에서 바다로
주저없이 내리꽃혔더라
해빛밝은 거리에 들썩워질
천만재난을 순간에 막으며...

오 길영조영웅이여
그대는 자신에게 내려진 탈출신호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를
불발을 모르는 육탄으로 보여주었구나
그대 저 하늘을 크게 울린 여운은
아름다운 노래로 흐르며
억만년 사라지지 않으리라

위훈의 시작점

위훈은 빈터우에서
저절로 번쩍 빛발치는것 아니여라
만사람들의 경탄속에
영광의 언덕에 오른
그대 위훈의 시작점은 어디?!...

영웅은 풀색의 배낭을 메고
비행부대에 처음 온 날
발뒤꿈치 모으고 거수경례 드리며
수령님의 동상가에서
병사의 첫걸음 떼었더라

해마다 2월과 4월 명절이 오면
정성 다해 가꾼 꽃을 골라안고
수령님 동상가에 남먼저
싱그런 봄향기 풍겼더라
깨끗한 효성을 고이고
충성을 싹틔우며...

진정 그것이였구나
구만리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영웅의 그 위훈
수령님 동상가에서부터 이어져 나래쳤구나

별

노을이 피는 새벽에도
별이 돋는 저녁에도
은빛동체에 새긴 오각별에
영웅은 제마음을 비쳐보며
거울처럼 닮고 또 닮았다

고공비행의 밤
계기등만 비치는 좌실에서
마음의 탕개를 조이며
최고사령부의 안전을 지켜가는
비행사의 영예가
정다운 별로 빛나는것인가

조국의 하늘에 숨새드는
그 어떤 낯설은것 귀에 설은것은
추호도 허용치 않으며
구름발 천리를 날으는
비행사의 티없는 그 랑심
별로 새겨져 빛나는것인가

동체의 별에 그의 마음 어렸는지
그의 마음 동체의 별에 비꼰는지
영웅은 정다운 별을 쓰다듬으며
은빛매와 다정히 속삭였다
너와 나 영원히 한몸되어
장군님 사랑하시는 별이 되자고...
아 비바람에 변색을 모르고

《탈출하라》
이 구령은
조국이
금싸라기같은 비행사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령이다

하지만 길영조영웅이
그대 복무의 나날
명령앞에선 집행밖에 몰랐건만
어이하여 그날만은

이 구렁에 응답이 없었던가
하나의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충효의 별을 지니고 살았기에
영웅은 그 별처럼 삶을 빛낼수 있었더라

짧고도 긴 25 초

보통때의 25초
그것은 너무도 짧은 한순간
허나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서
그 25초에
기나긴 한생이 비끼더라

아차하는 그 순간에
헛디디면
인생은 살아도 수치로 넓고
곧바로 드림없이 가면
그 삶은 끝나도
길고긴 영생을 얻더라

길영조영웅의 삶의 좌우명은

자나깨나 장군님의 안녕이었기에
그가 새겨온 충효의 자옥에는
한순간의 빈 공백도 없었더라
맞다든 인생의 분기점에서
그의 신념의 이정표는 흔들릴줄 몰랐거니

플라짚으면
천년을 살아도 못다 이를 위훈
그는 충성의 직선항로로 곧바로 날아
그 짧은 25초에 빛냈기에
장군님 것처럼 잊지 못해 하시는구나
온 나라가 다 아는 금별의 영웅으로
만사람들 축복속에 내세워주시었구나

영웅과 시

영웅은 시인이 아니었다
어려운 비행임무 끝낸 그에게
축하의 꽃다발 안겨주면
사내대장부답지 않게
얼굴 붉히던 순박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숨은 열정가
조국의 하늘에 올라 폐부로 느낀
가슴속 충동의 망울을 터치고싶어
자주 즉흥시를 쓰고 읊던
다감한 청년이었다

리륙을 앞둔 어느 밤이었던가
천개에 쏟아져내리던
여문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전우들에게 속삭였다지
저 별밑에 최고사령부가 있다고
이밤도 지새실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
우리 충성의 제1호위병이 되자고...

그의 깨끗한 마음이자 시였기에
장군님 그의 자각시를 몸소 보아주시며
치하하셨구나 제목도 특기가 있다고

야간비행을 끝내고 돌아온
불밝은 교양실에서
노을비긴 휴식장에서
전우들의 심금을 울리던
그의 자작시의 불같은 구절구절이어
...

나는 하늘의 육탄용사
후날 사람들 추억할수 있게
참되게 살리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붙는 불이 되어 육박하리라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
한몸 붙는 불이 될 육탄정신
그것은 그의 신념의 핵, 삶의 목적

사람들은 알리라
육탄정신으로 박동치는 전사의 심장이
기관총탄같은 한편의 시가
얼마나 위력한가를
그는 만리대공에 올라
조국앞에 증명하지 않았던가

영영 돌아올수 없는 천길나락으로
한몸 천만조각으로 흩어지면서도
그는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지켜
후회없는 웃음을 지으며 갔거니

오 길영조영웅이여
그대는 가슴속 샘에서 솟구친
자작시의 구절구절을
목숨으로 하늘에 새긴
진짜 영웅시인이었구나
주옥같은 명시를 남기여
조국에 영원한 숨결을 주고갔구나

룡암산의 화불

강일주

불도젤은 산중턱 길가에 멈춰섰다.

그앞에서는 다리공사가 한창이었다. 두 산골짜기사이를 편결하는 다리는 열흘 남짓한 기간이 걸려야 완공될 수 있었다.

기다려야 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리당비서 정석철은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수십밤을 지새우며 궁리하고 타산하고 일군들과 협의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이렇게 뒤번져질줄이야.

종이와 연필을 들고 지우고 다시 쓰고 력서에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불도젤조립기일과 그것이 군에서 종산땅에까지 와닿는 시일, 당면한 추수와 탈곡전투, 다리공사의 (이미 있던 낡은 다리로는 불도젤을 넘길수 없었다.) 착공과 완공날자... 이 모든것을 그야말로 빈틈없이 치차처럼 맞물려가며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가.

순조롭게 착착 물려오던 일이 어제부터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예비로 가지고있던 불도젤본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로 조립해오던 찬명이네가 갑자기 《착실한 계획》을 뒤번져놓았던것이다. 온 농장이 달라붙어 유휴자재를 모으고 없는 부속을 자체로 깎기도 하면서 말그대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자체로 만들어내는 간고분투의 나날을 거처드디어 어제 불도젤조립을 끝냈다.

계획된 날자를 훨씬 앞당겨 끝낸 불도젤조립은 석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의 여운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 석철이를 크게 격동시켰다. 군에서 여기까지 오자면 적어도 이들은 걸리리라 생각했던 불도젤을 불과 하루밤새에 끌어왔던것이다.

일손이 껌싸고 어벌이 큰 찬명이네는 늑다리 황소걸음으로 《기여가기》가 싫었고 아까운 기름을 길에 넣어놓는것이 마음에 싸지 않아 궁리를 모았다고 한다. 그다음은... 하여간 무슨 수로 어떻게 운전수를 주물러놓았는지 그들은 대형자동차에 불도젤을 싣고왔다...

건들건들 가을바람이 개버들가지끝을 찌른다. 일만량식의 구수한 향기가 무드기 실린 흐뭇한 바람이다. 술에라도 취한듯 오롱천이 흥떡이며 이해의 마지막 노래를 서둘러 읊조린다. 등이 뭉실뭉실한 돼지들이 이삭을 실어들여간 강냉이밭을 뛰지며 쉼평중게 꿀꿀거린다. 마을 상공에 깃을 접는 점심참의 안식과 평온을 달래듯 어데선가 아랑아랑 기계톱소리가 들려온다.

마음만 편하다면 배불리 호흡하고 흥그러운 생각만 골라가며 지겹도록 거닐고싶은 강변이었다. 한순간 석철은 자기의 목가적인 서정에 와락 골을 내며 손에 쥐고있던 나무가지를 핵 던져버렸다. 나무가지가 떨어진곳에서 놀란 늦메뚜기들이 폴쩍폴쩍 달아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룡암산쪽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석철의 가슴은 바질바질 끓었다.

다리공사가 끝날 때까지 불도젤을 저 산중에 세워둘수는 없었다. 하루빨리 끌어내려 개간지에 삽을 박아야 한다. 무슨 수로? 어떻게?...

길은 하나뿐이고 다리공사는 시간을 요구한다. 욕심같아서 룡암산을 타고 끌어내렸으면 좋겠으나 그건 어렵었다. 깎아지른듯한 산비탈로 내려오다가 아차하는 순간이면 불도젤이고 사람이고 없었다. 생각만 해도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

찬명이네를 만나봐야 한다. 사람들의 예상을 멋들어지게 뒤집어놓을줄 아는 그들에게만은 꼭 무슨 수가 있을것 같았다.

멀지 않은 개버들숲속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석철의 발목을 잡았다.

《참 답답하오.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불도젤을 훌쩍 싣고와 저기 세워놓음 어찌라는거요... 그대두 반장과 의논이라두 했어야지.》

기계화작업반장 김홍국이였다. 기계화반장이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걸핏하면 흥분하여 침착성을 잃는 성격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종종 책망을 듣군하는 사람이였다.

《일이 그렇게 됐소다... 무슨 수가 또 나지겠지 오다.》

더듬거리듯 통명스레 한마디 내뱉는 사람은 장찬명이였다.

《당신 일은 언제 보나 그렇단말이오... 그 말은 그만하지요. 그리구 이젠 사업애긴 아니오.

여보, 옛말에 사랑두 인정두 품앗이라는 소리가 있습데. 그런데 동문 뭘요?》

《건 또 무슨 소리오다. 빙빙 에돌지 말구 직광 말하오다. 반장동지.》

사업상 한계를 벗어나서는 흥허물없이 너나들이로 통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계선을 짝 그어놓고 점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

《그래 모르고있소 자넨? ... 비서동지 어머니가 요즘 몹시 앓고있다는걸...

어쩔 그럴수 있소. 어릴 때 일찍 어머니를 잃은 동무네뻘에... 비서동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쓰

셨는가. 응? 친어머닌들 게서 더했겠다. 친어머닌들… 물론 그새야 짬이 없었다치구 아 새벽에 왔음 어머니부터 찾아뵙는게 사람도리가 아니겠다. 이렇게 강변에서 빈둥거릴 새면 열번두 갔다왔을거네. 열번두…》

《난… 빈둥거릴려 여기… 있는건 아니우다.》

기가 죽은 찬명이가 변명하듯 중얼거린다.

《듣게 싫소. 어째, 세월이 흘렀다구 다 잊어버렸나 아니면 제 밥 먹구 컷다구 호박잎에 뛰여오른 장마철 개구리 심뽕가?》

석철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말이 튀어나오는바람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여래껏 지긋게 매달려 피롭던 죄의식이 되살아나며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이른새벽, 집을 나서는 석철이를 불러세우던 녀의사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이틀밤째 내내 어머니결에서 새는 수고많은 의사였다.

《비서동지, 어머니결을 비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속삭이듯 힘겹게 겨우 말하는 녀인의 목소리에 석철은 눈을 짙 감았다.

《어머닌… 80이 넘은 늙은이라… 자주 앓았댔지요.》

《자주 앓았다는것과 심하다는건 다릅니다.》

《정말루… 심합니까… 아, 됐습니다. 뻔한걸 몰었군요. 그런데… 요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비서동지야 늘 그렇지요…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리깨아들을 대신해서 잘 봐주십시오. 하긴… 우리 어머닌 강한분입니다.》

석철은 목을 놀리운 사람처럼 고개를 비틀며 힘겹게 더듬거렸다.

석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집에 자주 들리리라 마음 다지며 문을 나섰다.

그런데 일은… 단 한번밖에 집에 들릴수 없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궁리로 가득찬 새날이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목을 무겁게 잡았던것이다. 이번 일을 해놓고는 꼭 집에 가보자 하면 그일이 미처 끝나기 도전에 또 새로운 일이 제기되곤했다. 일에 파묻혀서 어머니한테 못갔다! … 그것으로 불효막심한 처사를 변명할수는 없다. 무서운 생각이 갈마든다. 정말로 어머니병이 심하다면…

괴로운 상념의 거미줄이 온몸을 칭칭 감기 시작한다.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바르르 뚫다.

숲속의 목소리는 석철의 생각따위는 내 알바 아니라는듯 무자비하게 날아온다.

《여보게, 사내한테서 인정하구 의리 빼면 뭘지 아냐? 그건 귀 빼고 뿔뿔 하늘소나 갈단말야.》

《이거 말이라구 아무거나. 이보우다 반장동무, 그럼 내가 하늘소하구 갈단말이오다?》

너무 순박하고 고지식하여 사람들의 말을 끝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찬명이가 하도 억이 막혀 마구 부르짖는다.

《너무 몰아대지 마루다. 나두 사람가죽을 썼지 하늘소가죽은 빌려입지 않았수다. 나 원…》

딱-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에 이어 와삭와삭 개버들숲이 뒤편져진다. 얼굴이 노기에 달아오른 찬명이가 씨근거리며 나왔다. 어질게만 보이던 두눈이 모닥불이라도 안은듯 황황 불타다.

《찬명동무!》

《…이거 비서동지가… 어떻게…》

《정말 오래간만이오. 그새 수고 많았소. 정말 큰일을 했소.》

찬명은 어쭙게 두손을 부비며 어쩔줄 모른다. 기름에 절고 찢쩍 터갈라진손, 조갈로 헌 입술에 붙인 닭알속껍질, 움푹 깎이워들여간 두볼, 귀를 덮은 거푸수수한 머리칼…

《새벽에 왔다는걸 알면서두 이제야 만났구만.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기야… 저희들이 찾아가 보고해야 하는 건데… 어쩐지 저놈을 산에 세워두구선… 아직도 신통한 수도… 못찾으면서…》

생략이 많은 그 더듬거리는 말에서 석철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다 읽을수 있었다.

《됐소… 잠시 눈이라도 붙일거지. 사람두.》

《그럼 전…》

찬명은 석철에게 잡힌 손을 슬그머니 뺀다.

《아니 찬명동무?!…》

그러거나 말거나 찬명은 아무데나 대고 꾸벅 절하고는 도망치듯 징경징경 걸어간다. 그가 걸어가는 쪽에서 메세 한마리가 애처로운 소리를 내지르며 하늘높이 떠오른다.

멀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석철의 가슴속에는 섭섭한 생각이 안개처럼 그물 그물 피여오른다. 만나고싶었던 사람, 동계동계 비단숨에 싸서 만사람앞에 내세우고싶었던 사람, 머리를 마주대고 불도젤을 끌어올 방도를 토론해보고싶었던 사람! … 그가 석철이를 외면하고 달아나는것이다.

《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등뒤에 홍국이 다가왔다. 그를 보자 석철은 대뜸 화가 치밀어오른다.

《동문 뒷땀에 사람을 못살게 구오? 것처럼 강한 일을 한 사람을… 한시간이라도 편히 재우지 못해 가슴이 타는데 동문 도대체…》

가슴이 버글버글 끓는다. 이마전에서는 맥박이 세차게 들뚫다.

《그래 동문 인정과 의리를 강요나 욕설루 구하는 녹거리 물건짝으로 아는건 아니요? 어째 동무만 의리를 알구 아래사람은 영 무정하다고 감히 생각하오?》

노기에 떠는 목소리가 쩡쩡 정적을 밀어내린다. 강물이 움츠러들며 소리를 낮춘다.

《…사실 그 사람이 너무한것 같아서…》

《그만두시오. 사람이란 다 제 나름대로의 인정과 의리로 살아가는거요. 괜한 걱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란말이요.》

《그럼 제가 방해할?… 건 너무합니다.》

홍국은 쌍꺼풀진 두눈에 억울한 원망을 그득채 운다. 신살을 넘긴 인생의 흔적이 상형문자처럼 여기저기 패들이기 시작한 그의 얼굴을 보니 느닷없이 분기가 수그러든다.

《홍국동무, 지금은 화를 내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허식을 부리고 쓸데없는 사업을 전개하고… 이런걸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쓰고 힘을 집중해야 하오. 농사를 잘 짓는데서 인정두 의리두 찾아야 하오… 지금은 기계화반이 달라붙어 불도젤을 끌어 내릴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소.》

《방도요? 허 참, 다리가 되지 않구서야 무슨 수로… 비행기로 넘적 물어오면 몰라두… 명백합지요. 불도젤이 바위돌이라면 룡암산에서 굴러내리기라도 해보지요. 판수는 없수다.》

룡암산… 석철은 아침부터 뇌리에 지못게 달라붙어 따라다니는 룡암산에 시선을 돌린다. 오만하게 어깨를 으쓱 쳐든 산말랭이를 보는 순간 또 다시 무서운 환영이 떠오른다. 아서라! 리성은 룡암산의 유혹을 쫓으라고 명령한다.

그 옛날 오룡천에 살던 엄지룡이 천국구경을 가보다말고 눈물겨운 지상세계가 너무 기가 막혀 그대로 굳어졌다는 전설을 품고있는 높은 메부리와 물매 급한 바위마다에 산존의 흘러온 력사를 고이 간직한 룡암산이다.

언제부터였는지… 눈물과 한숨, 원망과 절망에 떠는 지팽이에 몸을 실은 정배살이의 가냘픈 운명들이 이 나라 마지막같은 외진 이 산골에 피나리 보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자갈밭을 푸지는 아츠러운 호미의 비명소리가 룡암산을 울렸다. 불모의 땅은 겨우 거죽밖에 빗길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피땀의 보수를 짜내고는 대대로 물려 가는 가난만을 후하게 선사해주었다.

허나 세월은 흘러 룡암산에도 행복한 음향이 울리기 시작했다. 트랙토르가 자갈밭에서 해빛을 고대하던 흙을 뒤집어올렸고 땅은 자기의 풍만해진 젖가슴에서 난알을 통통 살찌워주었다. 드디어 땅은 풍년과 풍족을 선사하기 시작한것이다.

해빛이 따스하고 산천이 유정한 세월이라 사람들은 나날이 불어만가고 더 잘살려는 아름다운 희망은 자꾸만 높아져갔다. 그들의 아름답 욕구를 충족시키자면 땅이 더 있어야 했다.

우리 향토, 우리 땅을 더 잘 가꾸고 살을 찌워 향상되는 사람들의 지향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하여 석철이네는 두세톤의 소출밖에 나지 않던 강기슭강냉이밭에 흙갈이를 하기로 결심한것이 다.

여름철부터 불도젤조립조가 일에 착수했고 시간 맞추어 며칠전부터는 다리공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개간사업은 착착 맞물려 준비되고있었다.

허나 석철의 타산은 벌써 첫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것이 드러났다. 수습해야 했다. 마음의 탕개를 더 바짝 조이고 예리한 관찰과 열정적인 사색, 용감한 실천으로 전진하는 현실의 앞장에서 서야 한다.

《반장동무,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하오. 필요성이 대학보다 낫다고도 하오. 찾아야 하오. 무조건 찾아야 하오.》

《허, 만사가 욕심대루라면야 하늘에 다리를 놓지요다. 하여튼… 노력해보겠수다.》

홍국은 마지못해 웅얼거리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석철이가 관리부위원장 하걸이를 만난것은 룡암산 골짜기의 오솔길에서였다. 노력바위에 앉아 헐 헐 손부채질을 하던 하걸이 엉거주춤 일어서며 반색을 지었다.

《허, 비서동무가 마침… 또 저길 가우다?》

하걸은 호미자루같은 손가락으로 다리공사장쪽을 가리키며 벌쭉벌쭉 웃는다.

《속이 달아오르게우다. 불도젤이 번디디고 켜으니… 걱정마우다. 이 하걸이 책임진 공사가 아무런 기일을 넘기겠소다. 맘놓수다.》

제잡담 오금이 늘어진 소리만 뚱얼대는 하걸이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여보, 간밤에 룡암산노루가 아일 엮어갔다오.》

《네?》

하걸은 큰 눈을 겁적거리며 불편을 실룩거린다.

《당장 말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신은…》

《네… 그런걸 난 또… 일이란거야 이제 다 잘 되겠지요다.》

하걸은 풀대를 쭉 뽑아 입에 물었다.

《일은 일이구. 자 이게 산골이오다. 예-능구렁이같은 봉수리포수령감을 겨우 구슬렸수다. 우리 종산독초 몇꾸러미 썰려줘서야 내놓질 않겠소다.》

하걸은 옆에 놓았던 단지를 석철이앞에 내밀었다.

《?!…》

《어째 우물길에서 반살미 받은 병어리처럼 서만 있소다. 이젠 어머님께 대접하라는거우다.》

《어머니한테?!…》

석철은 대번에 가슴이 찌르르 저려난다.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고맙소. 하철동무, 그것땀에 우정…)

석철은 하걸의 어깨에 한손을 얹으며 고개를 들었다. 나무우듬지들이 저들끼리 속삭이며 떨고 있었다. 가을철답게 높고 푸른 하늘에 계절조 한 무리가 금을 굶고있다.

《다리쪽 일은… 일없겠소?》

석철은 왕청같은 말이 튀어나오는데는 자기 스스로도 화가 나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잔뜩 이마를 찡그리고 못되게만 생겨먹은 자기 마음을 열변도 넘게 저주하였다.

《공사장을 비웠다고 걱정이우다, 허허… 걱정 마우다. 일이 다 잘되게 해놓구 다니니…》

하걸은 그저 벌벌벌벌 웃으며 투덕투덕 다리를 두드리기도 한다.

《에… 이젠 다 된것 같수다. 도데 80리길을 걷구선 요렇게 풀썩 주저앉으니… 옛날에야 체네보려 밤중에 100리를 오가구두 새벽엔 힘만 썩싱 나더니… 글렀수다. 어제가 옛날갈소다.》

입에 문 풀대를 뱅뱅 돌리며 사지맥을 풀어놓고 앉은 하걸이를 보니 어쩐지 마음이 울적해났다. 석철은 하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대 피우기요.》

석철은 하걸이 내놓는 씹지에 손을 넣어 큼직하게 한대 말아 물었다. 호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내 켜드는 석철이를 보는 하걸의 눈이 이상하다는듯 둥그레진다. 담배는 넣고다니면서도 조만해서는 피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뻑뻑 빨아댄 첫모금에 사래가 들린 석철은 편송 발은 기침을 내뿜었다. 허리를 뭉칭 꺾어 불을 꺼버린 그는 후 한숨을 내그었다.

사실 석철은 경험이 축적되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맥을 놓고 나이타발질에 열심하는것을 볼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다. 나이타발에는 정신의 로쇠가 두툼히 깔려 흐르고있었다. 바로 장찬명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가. 생각은 여름철의 찬명이네 집 프락으로 날아갔다.

…찬명이한테서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는 불도젤조립조를 책임못지겠다고 했다. 리유는 나이가 있는데다 기력이 팔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자신이 없다는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농업대학에 입학한 막내딸을 농장에 그냥 두겠다는것이였다. 일하면서도 통신으로 얼마든지 대학공부를 할수 있다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행》을 환영했다.

저녁무렵 석철은 찬명이네 집을 찾아갔다. 마침 찬명은 프락에서 달구지바퀴를 만들고있었다.

《<아바이>, 수고합니다.》

찬명은 《아바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하여 사망을 살피며 일어섰다. 분명 자기를 보고 《아바이》라고 불렀는가.

《옥순일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면서?…》

그제야 긴장되었던 찬명의 얼굴이 풀렸다.

《네.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두…》

《정말 단순하고도 명백한 생각이요… 안되오.

옥순일 주간대학에 가야 하오. 수재로 소문난 애를, 몇번의 시험을 치러어 입선한 애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소.》

《네에?!》

의혹의 빛이 넘쳐나는 두눈에서 금시 수다한 질문이 떨어질것 같았다.

《호미를 잡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소. 하지만 벼한알이 밤알만큼 되게 하구 강냉이 한대에 이삭이 열, 스무개가 달리게 하는 연구사업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요… 내나 동무가 일생동안 농사지어 몇톤의 수확을 낼수 있을까? 수십톤, 아니면 수백톤? … 그러나 저 애가 과학자가 된다면 우리가 일생 거둔 수확을 단 한해에 손쉽게 해놓을수도 있을거요. 당은 옥순일의 지식을 소중히 여기며 지식의 열매를 기대하오.》

《비서동지!》

깊은 생각에 잠기였던 찬명이네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동무의 문제요. 그래 이렇게 달구지바퀴나 만들고 기계화반에서 수리만 하고있겠소, 아니면 불도젤을 조립하겠소.》

《…》

《어째 대답이 없소?》

《…사실 베칩니다… 이젠 건사한 나이두…》

《그 보물처럼 <건사한>나인 대체 몇이요?》

석철은 눈밑에 자리잡으려는 노여움의 주름살을 애써 퍼며 나직이 물었다.

《한일없이 선하구두 다섯살 더 먹었수다.》

《선다섯살… 너무 오래 살았구만. 너무 오래.》

석철은 뒤집을 잡은채 프락을 거닐었다.

《…뿔뿔에 로인대접을 그리 서둘러 청하는거요. 벽찬 현실이 어째 빠근하오? 왜 동문 현실을 도피하오.》

《뭐 도피까지야… 기력두 점점 약해가구… 자식들이랑 커가는데 또 그전처럼 실수라도…》

석철은 책 돌아서며 한손을 들어 허공을 찼다. 관자노리의 피줄이 팽팽해났다.

《동문 언제까지 <그전처럼>이라는 낡은 옷을 껴입고있을셈이요?》

가슴이 하도 답답하여 숨구멍까지 막힐것 같았다. 몇해전에 가스로를 만들다가 그것이 폭발되어 시끄러운 일을 겪었던 찬명이다. 사고는 물론 엄중하였다. 하지만 리당에서는 찬명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때의 일을 품고있는것이다. 일종의 《피해망상증》으로 봐야 하는가?

《알만하오.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된 딸을 농장에 잡아두려는 <충실한> 생각두 해냈고 계절루 나이<자랑>두 했됐구만…》

석철은 한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안되오. 무조건 불도젤을 만드시오.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당을 믿어야 하는가를 배우시오. 그 과정을 통해 건사한 나이를 잊어버려야 하오.》

안타까움에 떠는 석철의 말에 찬명은 깊이 머리를 숙이고 오래오래 서있었다...

낡고 진부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사상관점이란 일곱개의 껍질을 뒤집어쓴 마늘처럼 모질고 검질긴 것이다. 개버들가지처럼 일시 휘긴해도 쉬이 꺾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걸의 푸념은 석철의 머리속 사업수첩에 진한 글씨로 새겨졌다. 된바람을 일으킬 방안도 순간에 세워졌다.

《부위원장동무, 찬명이네가 그사이 수고 많았는데 뭐 좀 없을까?》

석철은 기대어린 눈길로 하걸의 일을 응시했다. 《찬명이?! ... 에, 그 사람 말두 마오다.》

풀대를 질질질질 씹는 이짚으로 씹쓸한 풀냄새와 함께 무뚝뚝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너무 어자어자하지 마오다. 큰일 했다구... 그 사람이 뒤에서 뭐라는지 아오다. 행, 개떡같이... 일군들이 뭐 낡은 피리를 불고있나나요.》

《낡은 피리?!...》

석철은 전기에라도 닿은듯 흠칫 몸을 떨었다.

《그래 새 피린 어떻구 낡은 피린 어떻다우다.

사람들이... 까다로와지우다. 묘한 말재주나 부리구... 어데 리해나 하겠수다. 나 원...》

하걸은 입에서 돌리던 풀대를 훌 뽑아 허공을 뱉다. 율타리에 마주선 소처럼 머리를 잔뜩 숙이고는 씹씩 숨을 몰아쉬기도 한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소...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소. 시야가 더 넓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앞에 나타나고있소. 그들을 리해 못하면 우린 일군의 자격을 이미 잃은 사람ियो.

낡은 피리!웁소. 그가 정확히 말했소.

하걸동무, 새롭게 살아야 할 때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지휘성원들에게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신임과 기대가 깃든 구호를 제시해 주시였소. 이 구호에는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맨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라는 의미만이 담겨져있는게 아니요. 거기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전위적투사가 되어 군중의 앞장에서 그들의 사상정신을 이끌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소... 대중은 자기를 리해할 줄 아는 일군의 구령을 따르는거요. 부위원장동무, 우리 함께 쓸모있는 사람, 군중이 따르는 일군이 되기 위해 애쓰지요. 보람찬 생활의 진두에서잔 말이요...》

달빛이 좋은 밤이다. 탈꼭기며 프락포르의 동음이 홍수처럼 넘쳐흘러내리는 달빛을 붙잡고 설레를 부리는 밤이다. 어느집이나 불빛이 환하다.

뭔가 아름답고 씩씩한 꿈이 어린 불빛이다. 땅

에 숨결을 이어가는 농민들의 소박하고도 준엄한 근로 정신이 깃든 불빛이다.

다리공사장에서 내려오던 석철은 마을의 매혹적인 밤풍경에 흘러 한참이나 서있었다.

《와 와 이놈의 소, 천천히 가자. 흠꺾이한 밤에 풍년든다니 저도 흥이 난게지.》

처녀의 활기에 찬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밤공기를 흔들어깨웠다. 산기슭에서 소달구지가 이쪽으로 느릿느릿 굴러오고있었다.

《어마- 비서동지 아니예요?》

뜻밖에도 찬명의 둘째딸 옥림이가 콩콩 달려와 석철의 손을 잡는다. 가는 땀발이 내똥은 처녀의 얼굴은 은은한 달빛과 조화를 이루었다. 온몸 어데라없이 싱싱한 기운이 내풍기는 활발한 처녀와 마주서자 석철의 무겁던 기분이 훌 가셔지는것 같았다.

《허, 하늘나라에서 오신 귀한 손님은 이 달밤에 무슨 일로 예 오셨소?》

《소녀는 저 황금수레에 보배흙을 싣고왔나이다.》

하하하... 석철은 몸을 뒤로 젖히며 시름없는 웃음을 맘껏 터쳤다. 처녀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까르르 웃는다.

《넌 참... 틀림없는 배우야 배우... 허허허》

《비서동진 연출가구요. 맞아요. 난 배우, 비서동진 연출가... 참 멋있어요.》

옥림은 소잔등을 어루쓸며 그저 재미난다는듯 상글상글 웃음을 날린다.

《그런데 옥림인 이밤에 어디서 오나?》

《네. 부식토를 싣고와요.》

《분조발에 널거냐?》

《아뇨. 이건 개간지논에 널거예요.》

《개간지논에?!...》

충격은 석철의 심장 복판에 면바로 떨어졌다.

첫삼도 뜨지 않은 개간지가 벌써 저 처녀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살아 숨쉬고있는것이다.

《네가 벌써... 어찌면 그런 생각까지... 용쿠나 용해...》

석철은 옥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어루쓸었다.

《제가 뭘 했다고 자꾸... 비서동진 늘 말씀하셨지요. 청년들은 언제나 래일에 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초급단체동무들은 개간지계획이 발표되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앉아 결의했어요. 하루일이 끝나면 한사람이 한달구지씩 흙을 모아놓자구 말이에요... 요즘은 어머니까지 절 도와나서 매일 두달구지씩 해요. 뭐, 불도젤을 만든 정찬명의 딸답게 제일 앞서야 한단나요. 호호.》

《그렇단말이지. 멋있어. 정말 멋있어...》

석철은 넘쳐오르는 흥분을 지그시 누르며 달구지였을 왔다갔다 한다. 인간의 아름다운 녀를 발견한 행복의 무아경속에 오래오래 잠겨있고싶었

다. 당사업의 목적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 순결한 정신을 마주할 때의 그 고귀한 행복의 진미를 어떻게 다 표현하랴.

《어마- 비서동진 시라도 쓰실래요?》

옥림이 자기를 잊은채 생각에 잠겨도는 석철이를 보며 툭 내쏘았다.

《어- 내 무슨 이런 실수를... 옥림동무, 이거 제발 잘못했수다. 허허.》

《이-〈잘못했수다〉 아유, 우리한테 비판대상이 또 한명 늘었네.》

《비판대상이라니?》

《...우린 딱 듣기 싫어요. <이랬수다. 저랬수다, 없소다>... 막 곰팡이냄새가 나는 옛날식의 촌말! 부끄럽지도 않은가보지요. 그렇게 말하문 우린 회의에서 혼쫓을 뻔요. 청년들은 이젠 다 문화어를 써요. 그런데... 하늘소고집이 있어요. 나이많은 분들이 말이예요. 비서동지도 혼나야 돼요.》

《허허, 그래 맞았어. 이 비서부터 혼나야 돼. 청년들의 몽둥이로 보기 좋게 때려라. 때려. 허허》

옥림은 달빛이 부시는 가쁜한 이를 드러내고 곱게 웃는다.

기특한 새 세대들이다. 언어활동에서도 새 짝은 쓸모직은 덧잎을 밀어제끼며 생기있게 솟아오른다.

석철은 이 사랑스러운 처녀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저, 비서동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뜻밖에 처녀쪽에서 먼저 말을 꺼낸다. 석철은 무뎠 기뻐다.

《뭔데, 어서 말해라.》

처녀는 손톱눈을 썰며 바재이더니 드디어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힘든 일 도맡아하시는 비서동질 도와드리지 못하는 주제에... 더우기... 다 알아요. 요즘은 어머니가 앓는다는데도... 그저 일밖에 모르시지요...》

땅땅 여문 쿵알같은 처녀의 입에서 토막쳐 흘러나오는 소리에 석철은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그걸 얘기하자는거냐?》

《아냐요. 저...》

옥림은 황급히 부정하고는 또다시 갑자른다.

《얼룩이 있어요. 사람들속에...》

《얼룩이?!...》

《네. 어떤 사람은 몸은 하난데 서너가지 책임을 분공받고있어요. 청년동맹비서 겸 리초급위원회 위원 겸 선동원 겸 리예술소조부책임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농장원이지요. 왜 그 사람이라구 아무것도 할줄 모르겠어요.

믿어주고 내세워주면 누구나 할수 있을것 같아요.》

《!!...》 시간은, 생활은 매 순간마다 자기의 엄정한 요구를 제기하며 앞으로 앞으로 내달린다.

처녀의 제기는 석철의 사업의 빈공간을 정확히 때려주었다. 한사람에게 집중된 신임과 믿음은 다른 한사람의 창조적 능력과 열정을 억제한다.

리당비서는 할일이 많은 사람이다. 드바빠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사랑과 믿음, 아름다움과 희망,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불굴의 의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초월처럼 태울줄 아는 훌륭한 천품의 향기로 마을의 드넓은 전야를 짙 채워야 할 아름답고도 숭고한 의무에 충실해야 할 사람이다.

《미안해요. 그저... 무거운 짐만 자꾸... 덜어드리지 못하고 덧놓기만 하지요. 우린 정말...》

《옥림이, 정말 고맙다. 넌 나에게 큰결 깨우쳐 주었다. 큰결...》

석철은 사려깊은 처녀의 작은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석철은 간신히 눈을 떴다. 무질서한 환영이 란무한다. 불길한 꿈속에 있는것 같기도 하다. 다시 눈을 감았다. 모든것이 몽롱하고 알수 없다. 지금의 이것이 죽음인지 삶인지 분명치 않았다.

그는 한참후에야 겨우 눈거죽을 밀어올렸다.

(여기가 어덴가. 왜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가.)

그제야 현실적인 의심이 생겼다. 점점 의식이 되돌아온다. 희미한 생각의 수레는 힘겹게 느릿느릿 룡암산쪽으로 굴러간다.

...옥림이와 헤어진 석철은 내치 걸었다. 심신에 새힘이 우썩우썩 솟아올랐다. 대담하고 용감한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룡암산으로 불도젤을 끌어내리자.)

무섭게 떠오르던 환영은 이제 더는 떠오르지 않았다. 룡암산의 아찔한 경사며 깎아지른듯한 절벽파위가 더는 두렵지 않았다. 천하가 줌안에 들어온것 같았다. 심장은 모험의 가능성이 주는 흥분으로 불타올랐다.

불도젤을 만들어 하루밤새 끌어온 찬명이네의 위훈이 힘을 주었고 심장속에 개간지를 안고사는

옥림이네의 진함없는 소박한 열정이 용기를 주었다. 문화주력 창가마다에 비친 불빛들이 완강한 의지와 대담성을 주었다.

달빛이 어두워지며 물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불어온다. 석철은 어둠속을 더듬으며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고로쇠며 개암파위들이 우거져 말라붙은 잡관목숲을 헤친다. 락엽층에 발목이 묻힌다. 꺾꺾꺾한 물판이 발목을 잡는다. 바위모서리에 박은 손끝에서는 피가 흐른다. 흐르는 땀에 눈이 쓰린다.

어둠이 점점 짙어간다. 미구하여... 추덕추덕 비가 떨어진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석철

은 신발을 벗었다. 나무가지를 꺾어 신발을 꿰달고 불을 달았다. 어둠이 기신기신 쫓겨간다.

다시 걸음을 옮긴다. 넘어진 나무를 타고넘는다. 머리속에는 불도젤이 내려올 길이 그어진다.

젖어드는 옷이 무겁다. 비물인지 땀인지 눈을 가린다. 목에서는 확확 혀불내가 난다.

한순간 바위모서리에 박았던 발이 쭉 미끄러진다. 다급히 잡았던 잡판목이 툭 부러진다. 몸은 사정없이 미끄러져내린다. 어젠가 머리가 무섭게 부딪쳤다. 어둠속에 잠긴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입안에 뜨끈하고 찻찻한것이 차오른다.

《비서동지… 비서동지…》

누군가 애타게 부르며 몸을 흔든다. 온몸의 힘을 다 모아 간신히 눈을 떴다. 찬명이다.

《찬명이… 이 길루… 불도젤을…》

석철은 말을 맺지 못한다.

《정신차리오다. 비서동지.》

어딘가 찬명의 부르짖음은 먼데서 들려온다… 석철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때로부터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점점 흐려졌던 눈앞이 개인다. 천정지의 무늬가 또렷하다. 무슨 생각에선지 석철은 아이들처럼 천정무늬를 세어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열까지도 못세고 눈을 감았다.

(나두 <다된> 사람인가. 허…)

석철은 문득 자기 나이를 생각해보았다. 이런, 선여덟이다. 흠칫 놀랐다. 도대체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단말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생활이 이제야 시작되는구나 했더니 벌써… 석철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살아갈, 더 활기차고 일감이 많을 새 생활을 위하여 준비를 해왔다고 굳이 믿고있었다. 그야말로 첫걸음마를 뗐다 할가… 그런데 선여덟살이란단다.

《정신이 드는가?》

우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조용한 음성에 석철은 가볍게 몸을 떨며 슬며시 눈을 떴다. 어머니의 납작하게 짓눌린것 같은 별스레 작아보이는 그 모습이 석철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어머니, 먼목이… 없습시다…》

《아름 말하지 말구 누워있게 가만히…》

언제나 만시름을 가져주던 어머니의 그 유정한 음성이 이 순간만은 석철의 가슴에 찔러넣는 괴로움을 주었다.

멀리 흘러간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는 석철의 머리를 어루스다듬어주면서 베개를 바로 배워주었다.

《어머니!》

어린 시절처럼 아무런 불안도 없이 달콤한 풍상의 세계에 잠겨 어머니의 다정한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요즘 일이… 힘들지…》

《네… 좀 빠르합니다만… 일없어요.》

《땅을 개간한다는것이… 그리 쉽겠나. 새로 하는 일이야 늘쌈… 힘들지. 그래두 이를 옥물고서… 해야지…》

어머니의 오폭조꼴한 작은 손이 석철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어머니, 몹시… 아프시지요…》

《좀 아픈들 뤼라나… 난 자네가 앓을짬 없이 바깥일을 보는게 좋아서… 잠이랑 맘놓구 잔다네.》

《!…》

어머니에게 여쭙 살뜰한 말이 입안가득 뱅뱅 돌았지만 왜서인지 입은 열리지 않는다. 석철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 몰래 한숨을 내고었다.

《찬명이네 불도젤을 만들었더구만… 잊저녁 자넬 업구온 찬명일 뵈네… 몹시 상했더구만. 큰일 하자니 잠인들 제대루 잤겠나… 꿀을 안겨보냈네. 하걸이 그 사람한테 미안한걸 알면서두… 이 늙은게 무슨 보약이나 새나. 찬명이같은 보배들이 싱싱 건강해야지… 찬명이 안받겠다구 펄쩍 뛰네. 하지만 이 늙은이 고집도 웬간한가…》

《어머니…고맙습니다.》

입술이 푸들거리는바람에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머리를 돌렸다.

《찬명이랑 하걸이랑 모두들… 좋은 사람뿐이네. 차네 에미 마음 가지구 사람들을 애끼게. 때론 욕두 하고… 풀숨에 찌끼른 사람은 구실을 못하네.》

어머니는 숨이 가쁜듯 말을 끊었다. 어머니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방안을 조용히 흔들었다.

석철은 꿈 모지름을 쓰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가 숨길이 딱 막힌다. 켜는듯한 아픔에 신음소리가 튀어나온다. 등골에 식은 땀이 쭉 내뿜고 골안이 뒹 저려난다. 석철은 단념하고 도로 누웠다.

《저기 문옆에 지팽이가… 있을거네. 내 아이에 미보구 하나 만들라구 했네…》

《네에?!…》

《땅 가꾸는 사람이야 땅을… 떠나선 못살지…》

《어머니 두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저두 이제…》

석철은 터져나오는 걱정을 삼키며 부르짖었다. 눈곱에 핑그르 뜨거운것이 돈다.

석철은 충격적인 힘에 끌려 몸을 일으켜세웠다. 방안이 한고패 빙 돌았다. 입술을 깨물며 곳곳이 허리를 폈다. 어머니가 웃음이 담긴 눈을 슬며시며 고개를 끄덕여준다.

《불도젤을 끌어내리구… 인츰 오겠습시다.》

《원, 큰일하는 사람이 아녀자처럼… 배짱이 든든하문야 까짓 룡암산이 뭇가… 이 늙은건… 당원이란게 둘 한개 치위주진 못하구 걱정뿐이네. 정말…죄스럽기만 하네…》

《어머니, 제 꼭… 인츰 오겠어요.》

석철은 눈시울밑에서 끓어오르는 아픔을 강인히 짓누르며 돌아섰다.

《이것보게.》

어머니가 다시 불렀다. 두눈에 모성의 감정을 초월한 그 어떤 승엄한 정신이 타오르고있었다.

《농살 잘 지어서… 우리 장군님을… 험한 일 혼자 다 맡아하시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게.》

석철의 목구멍으로 불몽치같은것이 꿀떡 넘어갔다. 그만에야 눈곱에서 고패치던 뜨거운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일생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의 넓은 가슴에 드눌지 않는 큰산이 뿌리를 내리며 들어앉았다.

밖에서 너의사가 그를 맞아주었다. 모자간의 이야기를 피해 슬그머니 밖에 나와있던 그 너인의 눈굽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지평이가 여기 있어요. 비서동지, 전 다 들었습니다.》

《난 선생만 믿겠습니다.》

《믿음만으론…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뭐라구요?!…》

석철은 머리를 꼭 떨구었다. 입술의 껍질을 벗기우는것 같은 쓰라린 피로움이 그를 덮친다. 머리에 소낙구름처럼 덮이는 검질긴 상념… 석철은 편달린 생각의 꼬리를 잘라버리듯 핵 머리를 저었다.

《어머닌 방금 나와 많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나, 어답니다.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서동지,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힘있는것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은 너의사의 말을 더 듣고있을수 없었다. 지렁해오던 마음의 탕개가 툭 끊어져버릴것만 같았다.

《우리 어머닌… 강의한분입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을겁니다.》

《아마…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비서동지, 비서동지도 그 몸으론 못나갑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

《참, 선생이 뭐랬든가요. 그 의사들 속담 말입니다.》

《네. <우선 자기 몸부터 깨끗이 하라>고 했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난 그 속담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변경시켜서 말입니다. <우선 자기 정신부터 깨끗이 하라> 어떻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난 일없을겁니다. 이 지평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평이가…》

석철은 지평이에 몸을 실으며 걸음을 옮겼다. 너의사가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멀어져가는 석철의 등을 점도록 지켜보고 서있었다.

밤. 바람이 터졌다.

하늘을 찢은 나무들이 허리를 꺾고 허공에서 비질을 했다. 가지끝에 매달렸던 나무잎들이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휘뿌려 날려갔다. 저쯤 산아래에서는 오룡천이 쉼 같기를 솟구치고 달려갔다. 북풍이 겨울이 다가왔다고 다급히 소리치며 냇다 달려갔다.

통암산이 끓었다. 산이 통채로 웅글은 소리를 내며 웅웅거린다.

여기저기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해불이 얼씬거린다. 땀에 젖은 구리빛 몸뚱이들이 잡판목을 쳐내고 억센 팔들이 무쇠망치처럼 나들며 췌췌 바위를 까낸다.

온 농장이 떨쳐나섰다. 이맘때면 어머니의 후령 후령한 치마자락에 감겨돌며 잠투정질에 끓아떨어졌을 조무래기들까지 다 나왔다. 아빠 엄마가 다 산에 가는데 빈집에 앉아 고양이와 있다는건 얼마나 심심할까. 모두 들끓는 공사장으로 떨쳐나왔다.

교원과 의사, 바깥출입을 삼가하던 늙은이도 나왔고 낮에 큰상앞에 머리숙이고 앉아 행복의 부끄러움을 감추던 신랑신부도 나왔다.

《아마 역쇠분조장, 색시까지 데리구 왜 나왔나. 응? 개구리 삼킨 뱀처럼 울퉁한 팔근육 자랑이라도 하고싶었나. 원, 그 힘으루다 제 색시나 짝 껴안아 줄게지. 흐흐…》

《헹, 개떡같은 소리다. 화로에 엇 붙여놓구 살던 자네는 왜 기신기신 나왔나?》

《웁지, 적은이가 샘골집 막내렸다. 대낮에 옛날 잘해 회의에서 눈썹 빠지게 욕먹던 자네가 분명하겠다.》

《에끼, 제 삼촌두 모르는 시러베자식.》

하하하 흐흐흐…

웃음통에 산이 흔들리고 모닥불이 흠칫 떨었다.

석철은 생각깊은 눈으로 일판을 둘러보았다. 이미 알고있던 사람들이 이밤에는 별스레 새로운 사람들로 느껴진다. 석철은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웅당 그래야 되는것으로 믿게 되었다. 각이한 감정을 가진 각이한 사람들의 각이한 움직임에는 뚜렷한 하나의 공통된 정신이 맥박치고있었다. 그것은 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영원불멸의 의지였으리라!

불도젤에는 찬명이며 홍국이들이 불어 서성거리고있었다. 찬명은 부지런히 운전칸에 오르내리며 망치로 뭔가 푹푹 두드려도 보고 스파나로 나사를 조이기도 한다. 입은 다물릴새 없이 계속 뭔가 중얼거린다. 세상에는 별난 사람도 다 있다. 찬명은 기계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듯 뭔가 계속 속삭인다. 찬명과 기계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슨 친화력이 있는게 분명하다.

오후에 열렸던 초급일군현장협의회때 하던 찬명의 말이 생각나 석철은 빙그레 웃었다. 불도젤을 통암산으로 끌어내리자는 석철의 제의에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뻑해있었다. 도대체 맑은정신 가지고 그

런 소리를 들었다는것이 리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점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일어나 반대의견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풀밭 한구석에 앉아있던 찬명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 황이 들기 시작한 들국화 한송이가 쥐여 있었다.

《어째 못한다구 그러오다. 개미두 뒤걸음 모르는 데 우리 어째 이모양이오다. 네?》

찬명은 들국화를 홀 내팽개치며 열을 올렸다.

《전쟁땀 포두 산에 끌어올렸다우다. 그런데 우리야 끌어올리는것두 아니구 끌어내리는건데 뭐가 안될게 있겠소다. 그저 겁만 잔뜩 많아서… 장마도깨비 오롱천 건너가는 소리뿐이오다… 글썽 겁이 많은걸루 치문사 내가 첫째손가락에 들겠지오만… 사실 난 룡암산이 무서웠겠수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찬명은 흥분이 가라앉자 자기 말을 정정했다. 석철은 옥림을 생각하며 벌썬 웃었다.) 그래 계속 강변을 헤맸지요. 어디 쉬운데 있겠나 해서요. 강태가 낀 겁쟁이 눈에 뭐가 바로 보였겠습니까… 밤에 룡암산에서 활활 타오르는 화불을 보구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찬명동무, 됐소. 앉으시오.》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내… 저…저 불도젤을 굶긴 자리 하나 없이 끌어내리겠으니 믿어주오다. 이젠 됐소다.》

찬명이 털썩 주저앉자 이어 청년동맹비서가 일어났다. 대담한 일에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석철의 안을 적극 지지했다....

석철은 시계를 보았다. 이제 5분! 5분후이면 불도젤이 움직인다. 그런데 하결이 이 사람은 왜 보이지 않을까?

석철은 어둠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주위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저쯤 떨어진 으스스한곳에 쭈그리고 앉은 하결이가 눈에 띄었다. 등뒤로 풀풀 편안치 않은 담배연기가 흩날린다.

석철은 하결이쪽에 다가갔다.

《부위원장동무!》

하결은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많은 사연을 간직한 두눈이 석철의 시선을 꼭 잡고 애원한다.

《비서동무, 내려가우다. 비서동무 없이두 우리 잘해놓지 않으리다...》

석철이도 하결의 시선을 잡고 눈으로 빈다.

《제발 그러지 마오. 난 여기...여기 있어야 하오. 어머니가 그걸... 그걸 원한단말이요.》

《사람들이 후날 우릴 뭐라 하겠소다. 술한 사람이 있으면서두 어머닐...》

《내 마음에... 힘을...힘을 줘야 할 부위원장동무까지 이러면 정말... 제발 부탁이요.》

진정 애원에 겨워 떠는 석철의 눈길을 놓아버린 하결이 으드득 뼈마디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고맙소. 하결동무, 자, 이 화불을 들고 앞에 서시오. 난 찬명과와 함께 있겠소.》

《운전칸엔 내가...내가 오르겠소다. 찬명이한테 미안한것두 많은데... 무릎이 가까우면 죄도 가벼워질거우다.》

하결의 고집을 꺾기는 힘들었다.

《중습니다. 내가 화불을 들지요. 자 자기 위치로 갑시다.》

...드디어 석철의 화불신호가 내렸다.

와르릉- 불도젤의 요란한 동음이 천년 잠자던 산 뿌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불도젤은 삽날을 박으며 웅 궤도를 움직인다. 석철은 지평이에 몸을 실으며 화불을 추켜들었다.

전진... 미속으로...

불도젤을 옹위하듯 수십명 청년들이 통나무를 메고 빙 둘러서서 한걸음 한걸음 산을 내린다. 꿈무늬에 매단 바줄을 틀어잡은 사나이들이 발끝을 박으며 몸을 젖힌채 천천히 따라온다. 앞쪽에서는 기세를 올리는 긴장하고 흥그러운 로동의 음향이 짙짙 들려온다.

셋... 미속으로... 전진...

한순간! 제동을 잡는 불도젤, 바위를 깎는 아츠러운 떨림, 불도젤이 내리쏠리기 시작한다.

《앗, 불도젤이 위험하다.》

《불도젤이 쏠린다.》

통나무들이 불도젤밑에 날아들어간다. 억센 근육으로 다져진 어깨들이 으드득 통나무를 떠받친다. 피나도록 입술을 앙문 사람들이 바줄을 잡아 당긴다. 바위에 옷이 찢히고 살이 툭툭 터진다. 황황 불타는 두눈들에 결사의 각오가 어렸다.

불도젤이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벗어선다.

불쑥 불도젤운전칸에서 찬명이 상반신을 내밀었다.

《넌장, 비키오다. 비서동지, 딱 코앞에서... 어디 손이 떨려 일해먹겠소다?!》

《왜 세웠소. 그쯤한 심장 가지구 큰소린... 자 빨리 움직이게.》

《에, 나두 모르겠수다.》

찬명이 팔소매로 땀에 얼룩진 눈굽을 뺨 닦는다. 불도젤이 다시 움직인다.

전진... 천천히... 곧게 앞으로... 화불쪽으로...

불도젤이 내려온다.

석철이 처든 화불이 기폭인양 펄펄 날린다. 석철은 지평이에 몸을 의지하며 불도젤을 이끈다.

동음소리에 산천이 쨍쨍 화답한다.

석철은 심장으로 부르짖는다.

(경애하는 장군님, 룡암산으로 불도젤을 내리웁니다. 개간사업은 문제없습니다. 농살 잘해... 꼭 기쁨만을 드리겠습니다. 기쁨만을...)

화불이 훨훨 밝게도 타오른다.

저 아래 불빛이 명멸하는 마을이 다가온다.

뵈고싶었습니다

김은희

방울, 방울...우러르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쌓이고쌓여온 그리움의 분출인가, 흘러내리는 눈
물과 함께 터치는 첫 말마디.

《장군님! 뵈고싶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의탁하고 사
는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을 헤쳐보면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된 그리움의 세계가 있다.

류달리 총격적인 사변들로 력사에 두고두고 기록
될 뜻깊은 이해의 마지막 눈송이를 어깨에 떠실고
서있노라니 마음은 자연히 이해 설날에로 달린다.

사나운 눈보라로 첫아침을 불려온 올해의 설날은
류달리 맵싸고 몹시 추웠다. 그러나 이런날, 강추
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눈보라속을 헤치시여 경애
하는 장군님 제일먼저 찾으신킨 그 어디였던가. 아
버지라는 인생의 기둥을 오로지 장군님께 의탁하고
사는 혁명가유자녀들의 집, 만경대혁명학원이었다.

그 추위를 무릅쓰시고 설날 첫아침에 자기들을
찾아주신 그 후더운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원아들
은 울었다. 울면서 웨쳤다.

《아버지!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숨웃 앞자락에 원아들이 떨군 그
눈물방울들, 그것이 바로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그리움의 세계인것이다.

올해에도 우리 장군님 얼마나 많은 초소와 초소
를 찾으셨던가. 아버지의 손길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시는듯 그이께서는 하루도
쉬임없이 찾고찾으시었다.

그 사랑에, 꿈결에도 만나뵈고싶었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에 눈물만이 대답할수 있었던가.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그저 울었다. 눈물이 감정의
백마디, 천마디 표현이여서인가, 마냥 울기만 했다.
그리고는 어느 초소에서나 똑같은 한마디 심장의
목소리를 터쳤다.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하기에 장군님께서 보아주시는 예술소조공연의
첫 순서로 올리는 노래도 《장군님 뵈고싶었습니
다》였다.

찾아오신 이 사랑이 꿈이 아니옵니까
품에 안긴 이 행복이 정말 생시입니까
그리웁던 마음들 옷자락 잡고서

너무 좋아 뵈니다 어버이장군님
아 병사들은 뵈고싶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품에 안겨사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간직하고있는 세계, 그리움의 세계.

우리 인민은 아침에 잠을 깨어도 장군님 생각, 잠
자리에 들면서도 장군님 생각을 한다. 장군님께서
지금 어디 계실가, 이제 잠이 들면 꿈속에서라도 장
군님을 뵈올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우리 인민들
의 깨끗한 마음이다.

무엇을 하나 하여도 이것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
릴수 있을까 하고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민, 아무리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
이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충효의 세계속에 바로 이 그리움의 세계가
있는것이다.

언제면 장군님을 뵈올수 있을까. 만나뵈는 그날
에 티없이 깨끗한 눈물을 흘릴수 있게 사색도 하고
일도 하자는 우리 인민들의 그 충효가 바로 이 강
렬한 그리움을 낳는것이다.

이 그리움을 합치고합치면 산도 허물고 강철도
녹일수 있으리라.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
서로 추대한 감격과 환희로 들끓던 경사로운 당창
건기념일에 부대를 찾아주신 장군님을 만나뵈은 길
영조영웅의 안해 리은경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결전의 시각이 오면 사랑하는 매와 함께 하늘가
에 은빛꽃보라로 날날리리라는 자기의 자작시처럼
운명한 우리 별이 아버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상이 알게 내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그이
를 만나뵈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마음을 아신듯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절 만나주시고 가정
살림살이형편까지 하나하나 물어주시었습니다.

영광의 그 시각 전 존경하는 그이의 손을 꼭 부
여잡고 가슴속에 차넘치던 한마디 <장군님! 정말,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이 말밖에 말씀드리지 못했
습니다.》

그렇다.

정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만나뵙고싶어한다. 그 꿈을, 그 소원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천만갈래의 시내물들이 모여 넓고넓은 하나의 품, 바다에도 흘러들듯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은 오직 한곳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려가는것이다.

이 그리움이 쌓이고쌓여 지나온 세월의 하루가 되고 한달이 되고 온 한해를 이루었다. 이 그리움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 충효의 마음들이 그이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높이 받들어모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 그것은 단순히 만나뵙고싶은 감정만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이 감정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은신분으로 흠모하고 우러러 받드는 감정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감정이며 그이를 받들어 그이의 부담을 한가지라도 덜어드리려는 충성과 효성의 감정이다.

지나온 한해, 그것은 정녕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몸과 마음 다해 덜어드리려고 노력한 우리 인민의 티없이 깨끗한 그리움이 쌓이고쌓여 승리를 안아온 자랑찬 한해였다.

정말 주체86(1997)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3년동안 상제가 되시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한몸으로 맡아 헤치시며 숭고한 도덕의리를 보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고결한 정신세계를 심

장으로 감득한 우리 인민의 순결한 경모의 마음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올린 충격적인 해로서 력사에 길이길이 기록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영원토록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것이다.

금시 만나뵙고서도 다시 또 뵈옵고싶어, 다시 오시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그 고결한 그리움의 세계를 깊이깊이 간직하고.

하기에 우리 인민과 병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자기들의 일터와 초소에 다시 한번 모시고싶어, 자랑찬 성과만을, 기쁨만을 드리 고싶어 장군님을 또 만나뵙고싶은 소원을 끊임없이 아뢰이고있는것이다.

병사들 그리워 다시 오마고
사랑의 약속을 두고가시네
위훈을 빛내고 또다시 뵈옵
한마음 불타오르네
간절한 소원입니다 장군님 또 오십시오
병사들 소원입니다 장군님 꼭 오십시오

그렇게도 뵈고싶었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바래워 드릴 때면 헤어지기 싫어 눈물 흘리며 간절히 목터 지게 웨치는 소리, 따라서며, 물결치듯 예워짜며 목 소리 합치는 말.

《장군님! 또 오십시오.》

가사

꽃속에 열매속에

한춘실

우리 마을 파원에 꽃샘하던날
노래높이 찾아온 우리 병사들
어쩌면 정성이 그리도 지극할가
온몸엔 꽃들도 더 활짝 피었소

바람불고 비와도 한몸 내대여
사랑다해 지켜낸 우리 병사들

어쩌면 사랑이 그리도 뜨거울가
울가을 열매는 더 붉게 익었소

조국초소 지켜도 철벽이라오
농사일을 도와도 풍년이라오
인민위해 바치는 병사들 그 마음이
꽃속에 열매속에 어려있다오

샘줄기

박원조

1

익은 낱알이 웃는다는 계절이다.

논밭을 돌아보느라 걷어올린 바지가랭이를 내려놓을새 없던 윤경훈작업반장은 살림집 가스난방화까지 펼치다보니 정말 숨돌릴 틈이 없었다. 그야말로 비둘기마냥 량주만 살고있거나 리복녀처럼 혼자 사는 집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늘 둔다고 하면서도 놓치는 일이 많았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앞에 죄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할 일군으로 살자고 자신을 타매하는 윤경훈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어디라 할것 없이 그의 얼굴이 번뜩이는곳마다에서 검질기고 재빠른 손들이 노상 먼지 발목을 붙잡았던것이다.

《이보우 반장!》

이 아침두 기다렸다는듯 탁아소 길목에서 윤경훈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갑자기 잔등에 짐을 지우는듯한 우명삼의 부름소리에 백양나무같은 키를 우뚝하고 멈춰세웠다. 벌써 귀구멍에 주먹이 들어갈만큼 집문제 때문에 성화를 받고있는터였다.

관리위원회 조회시간에 지각하게 되었다는 위구가 윤경훈의 머리를 고무줄처럼 조였지만 그는 공손히 길쭉한 얼굴을 우명삼 앞에 내댔다.

《자꾸 말해서 안됐네만 량탄집이 날것 같네.》

윤경훈은 웬 소리냐는듯 의혹의 빛이 어렸다.

《그래 복녀어머니가 딸집에 가겠답데까?》

《헛참, 안갈수 있소?》

윤경훈은 그 소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머리를 궁실했다.

지금 우명삼은 두칸짜리집을 쓰고산다. 부부살이때에는 장간갈던 집이 세월의 년륜속에서 식구가 늘며줄며하다가 맏아들이 제대되어 며느리까지 맞고보니 별안간 벽이 살에 닿았다.

그래서 윤경훈은 집문제를 명치끝에 체증처럼 안고있었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채 단련을 받고있었다. 넓은 터전이며 키높이 자란 여러 그루의 정원과수, 겨울에도 풍풍 솟구치는 정갈한 샘터,

문열고나서면 《출근》이 되는 집을 두고 우명삼은 저도 뜨기 아쉬워했지만 며느리 해산달이가까와오자 불뚫에 앉은 사람마냥 바쁘게 되었다.

우명삼이 방금 집이 난다고 말한 량탄집 리복녀는 친자식이 없었다. 그때문에 남의 딸자식을 키웠다.

그랬던 녀인이 지금은 남편마저 잃고 홀로 살면서 일흔이 다 돼온다.

윤경훈은 어머니걱정으로 밥 못넘기는 리복녀의 딸로부터 녀인의 퇴거를 떼보내달라는 청탁편지를 두번씩이나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과는 달리 산을 떠옮기는것보다 더 어려웠다.

리복녀가 가려고도 안하거니와 윤경훈의 마음에도 꺼리는 일이었다.

리복녀는 농촌의 오랜 작업반장으로 사람들의 신망속에 살아온 녀인이었다. 반장의 일손을 놓은 뒤에도 십여년을 자기사업의 고문격이 되어 원심을 써왔다. 이런 그가 졸지에 고향땅을 뜨려고 하겠는가? 간다면 벌써 갔을 녀인이 인제와서 양딸집에 가려고 할것 같지 않았다.

《모를 소리요. 어제까지두 고자세던데.》

…며칠전 윤경훈은 량탄집에 찾아갔었다.

녀인은 구멍탄을 미처 찍지 못해 톱밥불에 콩구질을 하고있었다. 윤경훈은 일손이 없는 집에 자신의 늦잡아진 걸음새를 뒤풀이하면서 구멍탄을 한마당 찍어놓고 토방에 걸터앉았다.

언제 봐도 리복녀는 손이 빌줄 몰랐다. 꼴벌처럼 부지런해야 밥술이 무겁게 들린다는것을 가슴속에 기둥처럼 박고 살아온 녀인이었다. 이것은 그가 작업반장사업을 할 때에도 좌우명처럼 여긴 생활관이였다. 그는 물속깊이에서 밤에도 움직이는 덩장그물처럼 잠을 몰랐고 농장원들의 활동파제가 그들의 기능과 소질에 따라 빈틈없이 짜지군했던것이다.

이제는 녀인의 일과에서 가지수가 줄어가고있는것이지만 아직도 놀랄 정도로 상당한 《항목》을 불안고있었다.

리복녀는 지난해도 백키로짜리 돼지를 인민군대에 보냈다. 그러면서 농촌집이 갖추고있어야 할 닭이며 오리며 강아지들을 한마당 널어놓고있는것이였다. 지금은 이것들이 리복녀의 생활에서 정답고 가까운 《친구》로 되었다.

그래서 영석을 부리듯 련치없는 암탉들이 개바자를 뛰어넘으며 놀아대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돼지물가마뚜껑이 열리는 소리에 돼지소리가 귀전을 찢고 토방밑에 강아지가 노란 귀를 뻗쭉 세웠다.

통배추가 틀 차리고 무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터밭에 황이 들어 키만 켜충한 강녕이대가 터질듯 여문 이삭을 엮고있었다. 집둘레를 돌아가면서 바자를 친 줄당콩도 봄에 우명삼이 줄을 맨것인데 장지가락같은 고무리를 주련이 달고 가을의 선들바람에 언들거리고있었다.

윤경훈은 이 모든 농촌집의 특유한 정서가 이처럼 현란히 채색되기까지 로년의 녀인이 기울인 남모른 수고가 너무도 힘에 부쳤다는 생각이 들

었다. 윤경훈은 너인의 이 모든 수확물이 고향의 향기를 잊지 말라고 살뜰한 모성애에 실려 딸집에도 보내자고 그것이 탁아소, 유치원에도 돌려지며 농촌지원자들의 식당에 소문없이 흘러든다는것도 알고있었다.

《날씨가 차지는데 탄불을 집안에 피워야겠군요.》

마당한귀에 물기를 잃은 부뚜막이 가설지붕 밑에 웅크리고있었다. 그것도 우명삼이 수고한것이였다.

《발이 굵은 일이야 우명삼이 다 했지. 어제두삭은 문돌찌귀를 갈아댔네.》

귀가 어두워가는 리복녀는 동문서답격으로 왕청같은 대답을 했다. 이 집과 연고깊은 우명삼은 단골처럼 다니면서 제일 치르듯 돕고있었다. 그걸 알라고 반장을 보면 늘 우명삼 칭찬이다.

《어머니!》

윤경훈은 좀 큰소리로 불렀다.

《왜 그러나?》

윤경훈은 찾아온 본론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어머니 퇴거를 때보내달라고 딸한테서 또 편지가 왔는데요.》

널마루에 앉아 오사리를 벗기던 리복녀는 단아한 얼굴에 미소를 실었다.

《형, 내가 떠나면 그대들이 여기 당콩맛을 볼것 같은가? 어림두 없지.》

리복녀는 일손을 놓고 윤경훈앞에 돌아앉았다.

《반장이 다충집가스화때문에 수고하는데다 여기까지 와서 구멍탄두 찍어주니 내 생각되는데가 있구만. 지금 농촌엔 내집처럼 독집들이 많은데 그런 살림집들의 가스화를 궁냥해봤나?》

윤경훈은 움썹하고 몸을 뒤로 제쳤다.

《당장은 거기까지 힘이 없습니다.》

리복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사리만 쪽쪽 벗긴다.

《우리가 수도화를 할 때 힘이 들었지. 그래서 저 옷농장에선 소극성을 보이다가 남들보다 몇해 뒤졌지. 못난 일군때문에 술한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삼년씩이나 더 이고다녔으니말이지... 그때 젊은 손이 없는 집들을 반장이 노상 구멍탄을 찍어주겠나?》

리복녀의 호수같은 눈이 주름발을 밀어올렸다.

《나라의 긴장한 석탄을 농촌집에서까지 자꾸 축낸다면 안될 일이지.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스화를 하라고 가르치신건데 자넨 다충집에만 굶뎠고말작정인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별루 어려운건 아니더군. 그래서 내집부터 한번 해보자고 하네.》

윤경훈은 주뻑하고 머리깃을 세웠다. 그러니 딸집에 갈 의향은 조금도 없는 모양이였다.

《지금 룡두사미격으로 일하는 일군이 있어서야 되겠나? 시작은 크게 해놓고 뒤를 못꼬거든. 걸

치레만 해놓고말곤하는데 꼭 덜퉁한 처녀 양지만 본바르고 몸을 안거두는거나 같지. 이런 일군을 사람들은 믿지 않네. 반장집엔 뭇감 떨어지는 때가 없으니 바쁜 생각이 없겠지.》

신랄한 비판이였다. 일을 덜려고 갔다가 덧붙이고 돌아온 그날결음이였다.

그런데 이사간다는 소리가 웬말인가?

《제 귀로 들었소?》

의혹의 눈길이 우명삼의 모난 얼굴에 실렸다.

《내게 이사집 꾸릴 준비를 해달라구 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명삼은 옷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려다가 윤경훈이 먼산을 보는바람에 그만두었다.

《본인이 문제지. 그런 편지는 나두 받았네.》

우명삼은 얼굴을 붉히며 청을 높였다.

《반장두 그렇지 도리상 딸네집으로 보내는게 옳지, 안그런가?》

윤경훈인 이 《도리》란 말에 얼굴이 가재빛이 됐다. 뒤바라지도 잘못하는 주제에 리복녀는 놀려둘수 없다는 우명삼의 속심을 읽었기때문이였다.

리복녀가 간다면 그 집은 우명삼이 쓰고살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해봅시다.》

윤경훈은 걸음을 옮겼다. 했지만 우명삼은 석연치 않은듯 해를 치며보는듯 쪼프린 눈길로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불이 나게 따라서서 또 입을 열었다.

《이제 그 집이 난다는 소리가 꼭지만 떨어지면 문고리 철 사람이 많다네. 내 반장을 믿수다.》

윤경훈은 그야말로 진드기라는 생각에 입술이 벌어졌다. 우명삼의 집에 새머느리가 시집오던 때 일이 불쑥 떠올랐다. 그러자 웃음집이 절로 덜렁거렸다.

지난해 가을에 우명삼네 집에서는 잔치를 했다.

그때 대문짝같은 큰 거울이 달린 신부의 이불장이 실려왔다. 그런데 이 지참품을 들여앉힐 자리가 없었다.

우명삼이 새집짓고 살림을 시작했을 때는 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옷방엔 농촌진출자인 우명삼이 장가갈 때 리복녀가 장만해준 옷장에 년년을 이어 갓춘 이불장, 텔레비존까지 있어 책상과 채봉기는 아래방에 놓여있는 형편이였다. 작은 가구들은 그런대로 비벼넣을수도 있었지만 손님을 치르는 잔치날이라 어찌는수 없어 이불장은 대문가에 림시로 세워놓았다.

이때 새각시구경을 잠깐 하고 간다며 황소를 끌고가던 총각이 꼬삿을 길게 쥐고 마당안을 기웃거렸다.

황소는 코앞에서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이불장거울속을 자연스레 들여다보게 되였다. 거울속에서

저같은놈을 발견한 황소는 눈을 홑떴다. 그러자 마주선 거물도 눈을 부라린다. 황소가 통방울눈을 굴리며 뿌다구를 살구자 상대방도 《전 투래세》를 취했다. 황소는 더 참을수 없다는듯 비파소리같은 영각을 지르더니 그만 적수를 냅다 밟았던것이다. …

이런 희극을 빚어낸 우명삼은 사지팔방에 유명해졌다.

윤경훈은 이런 일화도 있고해서 우명삼을 머느리 맞은 뒤 작업반에 새로 지은 다충주택에 이사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출근길이 멀다느니 터전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원고개를 틀었다.

그렇던 사람이 별안간 량탄집을 두고 목을 뽑아든것이였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 법이다. 때문에 생활에서 식의주에 대한 욕망은 한정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윤경훈은 관리위원회 조회에 앉아 기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은 량탄집 용마루를 타고있었다. 지금 농촌엔 도시의 현란한 생활도 아들딸들의 간단없는 성화에도 유혹되지 않고 곳곳이 뼈마디를 놀리며 여생을 보내고있는 년로보장자들이 많다. 그들은 자식들이 돌아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아들딸들의 추억깊은 문턱을 사랑으로 지키고있는것이였다.

했으나 리복녀에겐 아들이 없었다. 그때문에 윤경훈이 더 관심을 둔 량탄집이였다. 더더욱 제 힘으로 아름다운 집을 거두지 못하는 리복녀경우를 두고 윤경훈이 먼저 알아차리고 분조장에게 파업을 주어야 했다. 농산작업이 바쁜 때 공연한 로력이 드는것으로 하여 두덜거리는 분조장의 불부는 상을 볼 때면 이마가 좁아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자기가 팔을 거두고 해치우군했다.

시실 이런 로인들이 자녀들을 따라간다면 윤경훈의 일손도 한결 가벼워지는것이였지만 그것은 기대할수 없는 일이였다.

지나간 한생의 회로애락이 깃들어있는 사랑의 주추돌이 묻혀있는 터전이였다. 조국의 곳곳에 널려있는 자식들의 관심속에 이런 로인들이 기동처럼 뻗치고 서서 지키고있는 정다운 고향집이 궁지와 행복의 등불로 살아 조용히 빛나고있는것이였다. 온갖 심혈이 고스란히 배여 그것이 제 살점처럼 된 이 땅의 체취를 그들의 생활에서 떼여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것이였다.

윤경훈은 이것을 소중히 여겼다.

이런 집들에 명절과 한가위때면 자녀들이 모여든다. 얼마나 끝끝한 사람들이 오겠는가.

세계 만방에 조국의 영예를 펼친 이름난 자녀들도 찾아오고 발명가, 영웅, 작가들도 모이는가 하면 혁신자로 소문난 로동자부부도 온다.

끝없이 흐르는 물줄기의 샘터처럼 고향은 그들의 녀이었다. 그래서 몇천리밖에 갔다가도 못되어 찾아오는 태 묻힌 산천이 아닌가…

윤경훈은 그때마다 그들앞에서 빳진 몸가짐이 되어 낮이 뜨끈해지군했다. 일군이 미처 채심 못하고 방심으로 스쳐보낸 미흡한 구석이 그 무슨 실책에 대한 고발이라도 하는듯 그를 불안스럽게 했던것이다.

올봄에도 군의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리복녀의 사위와 딸이 왔다. 윤경훈은 그들을 만나 다정하게 회포도 나누었다.

《경훈오빠, 그새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정작 와보면 그래도 한결 걱정이 놓여요.》

딸은 진정으로 만족스러워했다.

《내 어머니 뜻을 꺾지 못해 지금껏 모시지 못하고있지만 앞으로 신세값을 단단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명삼형님도 쉽지 않는 분입니다.》

사위도 칭찬했다.

윤경훈은 그럴수록 송구스러웠다.

리복녀는 한해가 다르게 늙어가고있었다. 아름찬 가정의 중하숙에서도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세워야겠다고 결심한 딸은 윤경훈에게 꼭진한 편지를 써보낸것이다. 했지만 리복녀는 오늘도 새벽일찍 가스난방을 놓는다면서 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비닐판을 얻어갔다는것이였다. …

2

윤경훈은 량탄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명삼의 말이 귀전에서 뱅뱅 돌았다. 자기가 홀어머니의 살림을 두고 지금까지 무관심한것은 아니였지만 결국 그의 딸이 독축을 해대는 이 시각 로인의 여생을 혼자서 지내라고 놔둘수도 없었다. 낡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데… 황금빛 들판이 오בות한 골개에 나팔통처럼 물려있었다. 산기슭에 들어앉은 문화주택들은 윤경훈이 작업반장을 하면서 새롭게 지어놓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였다.

리복녀반장시절엔 볼수 없었던 살림집이 윤경훈의 드세찬 손탁에서 일떠섰다. 현대적양상을 갖춘 농장원들의 주택은 윤경훈이 일군으로서 자부하는 창조물이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 모든 성과들을 리복녀의 표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리복녀가 간고했던 협동화의 시기부터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전변시키고 수도화며 탈곡기개량 등 하많은 일을 농사와 더불어 펼쳐오면서 다충집건설도 그때 이미 기초를 마련해놓았던것이다.

기초공사를 할 때 윤경훈은 작업반장사업을 리복녀로부터 인계받았다.

그날 뜻깊은 말과 더불어 그의 가슴속에 조각처럼 새겨진 너인의 모습이 번듯 뇌리에 비껴들었다.

《내 남편이 협동조합때 첫 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 이제 아들이 생기면 다른 자식들이 고향을 다 뜰때두 말아들만은 꼭 붙들어줘야겠다구, 우리 수령님 은덕에 땅의 주인된 부모들이 왜 흙에 불을 부비며 울었는가를 똑똑히 마음속에 새길줄 아는 그런 자식이 있어야 한다구.》

그런데 내젠 그런 아들이 없었지. 딸이라두 그래주기를 바랬더니 남편 따라 훌쩍 가버렸으니 어찌겠나? 그래서 난 결심했지. 주인의 진정이랄가 낫이랄가. 그걸 이을 <말아들>루 내가 돼야겠다구… 그런데 제 구실을 다 못하구 손털게 됐으니 섭섭하거든.》

《원, 어머니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윤경훈이었다.

윤경훈은 골안으로 발길을 들여세웠다. 양지바른 둔덕에 리복녀의 고래등같은 기와집이 하늘로 날듯 용마루를 들고있었다. 닭알의 노란자위같은 감알들이 맞붙어 집채를 감고돌았다. 그 뒤로 한당반 뿔아올라 울창한 밤나무가 둘러싸고있었다. 붉은 단풍이 한벌 덮은 수려한 경계에 어울린 과일향기로 풍만한 리복녀의 집은 볼수록 경이였다. 우명삼이 눈독을 들일만도 했다.

(반장을 밟수다?)

이 말이 불쑥 되살아올랐다.

그런즉 량탄집에 대한 우명삼의 차근한 손길이 리복녀의 환심을 사는것과 함께 미구의 《저희집》을 보수한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명삼이 남들은 함부로 범접못하는 뒤울안에도 들어가 비풍에 벽이 떨어질세라 윈심을 썼고 처마의 안토가 금이 갈세라 흙칼을 쳐들었던가? 그래서 가라는 다충주reck도 도리질한것인가?

윤경훈은 불현듯 우명삼의 입에서 나온 《도리》란 말이 위선의 너울처럼 느껴지면서 지난 모내기때 일이 떠올랐다.

그날 편히 쉬어야 할 리복녀가 소랭이를 들고 모판에 나왔다.

《아니, 어머니두 모를 쓰시려우?》

《감자모를 쓰는 아낙네들을 욱 좀 하자구 나왔네.》

《허허,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라니까. 저 에미네 모뿌리에 흙덩어리가 달리지 않았나?》

리복녀는 흙잡을데 하나 없는 모단을 가리키며 룡담으로 자기 처신을 돌렸다.

윤경훈은 깨끗한 농민의 량심이라고 감심하면서 그를 곁자리에 앉혔다. 아낙네들로 들끓는 모판정서는 리복녀의 출현으로 마치 신록이 우거진

초여름동산에 철쭉꽃이 핀듯한 청신한 기운을 주었다.

이때 우명삼이 모달구지를 물면서 한마디 했다.

《반장두 도리가 있소? 늙은이를 찬물에 앉히다니?》

윤경훈은 그날 오랜 집단로동에서 인이 박힌 관습을 뗄수 없었던 리복녀의 소행을 용인했다가 이런 된소리를 들었던것이다.

윤경훈은 량탄집에 들어섰다. 우명삼이 가스난 방공사를 돕고있었다. 주객이 전도된것 같은 정황앞에서 윤경훈은 낯이 붉어졌다.

《어머닌 어디 가셨나?》

우명삼은 일손을 털며 마루에 앉는다.

《관리위원회에 갔네.》

《무슨 일루?》

《부속품때문에… 헛참 이번 기회에 이 집을 가스화해서 시범을 보이자고 하데. 아직두 반장이라니까.》

우명삼은 담배쌈지를 무릎에 펼치며 매듭이 툭 불려진 손으로 말지를 뿔아든다.

《그러니 딸집에 가실 생각은 없단말이지.》

《갈 사람이면 이 모양이겠나?》

우명삼은 비닐판에 눈길을 주었다.

《안간다고 할수 있소?》하고 말하던 사람같지 않게 병싯 웃기까지 한다.

《그런데 반장!》

우명삼은 다음말이 목에 걸렸는지 공공 갑자르다가 비트는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내 생각이… 집을 바꾸면 하는데…》

《뭐?》

윤경훈은 그만 놀랐다. 그는 아무리 리복녀를 잘 돕는다해도 늙은이의 고독을 가실 방도가 없다는데로부터 찾아온 걸음이었다. 그런데 와보니 이 모양이다.

그렇다면 생활상 부담이 훨씬 덜어질 우명삼의 집으로 옮겨앉는것이 량자가 다 좋을것이었다. 했지만 윤경훈은 어쩐지 틀이를 문것 같았다. 커다란 상실감이 느껴지면서 귀를 쳐든 처마끝에 눈길이 갔다.

저 도고한 용마루처럼 활력으로 차넘쳤던 이 집의 지난날이 지금은 봄날의 꿈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문득 어릴적기억이 되살아올랐다.

49년 가을날에 리복녀의 남편이 이 집을 지어 놓고 마감기와장을 올렸다. 그는 하염없이 하늘가를 쳐다보며 오래도록 지붕우에 앉아있었다. 지주집 외양간에서 쪽잠을 자던 꼴머슴이 대궐같은집을 지어놓고 감회가 너무도 컸던것이다. 세상에 기쁨을 독차지한듯 새대주라는 체면도 있고 만장이 보는 지붕우에서 넌들넌들 팔춤을 취했던것이다. 그날의 모습이 그대로 이 집과 더불어 리복녀의 가슴속에 낫으로 깃든것이었다.

리복녀는 이 덩실한 집때문에 《치안대》 감방

에 끌려가 된고문을 받았다.

《꿀머슴이 주재님께 고래등같은 집을 쓰고살았단말이지.》

엄동설한에 땡방에서 해산한 리복녀는 피덩이 아들을 얼어죽이고 자신도 산후어혈을 받아 자식을 더는 볼수 없게 된것이였다.

이런 회억에서 깨어난 윤경훈의 목소리가 별안간 끊어졌다.

《한가위때 자식들이 찾아올 생각을 했소?》

윤경훈은 이것이 두려웠다. 고향이라고 찾아오는 자식들이였다. 타향에 갔던 자식들이 몇달만에 돌아와도 뜨겁게 잡히던 때물은 문피리며 그것이 안겨주는 고향집의 정서였고 어릴적 옛모습이 그대로 바람부는 잎새사이로 불쑥 얼굴을 내민듯 감나무를 둘러싸고 밤나무를 굽어보는 뒤동산의 정경이였다.

이런 차분한 정서가 추억속에 장식되어 소중히 안겨있는 고향집이 아닌가!

리복녀가 우명삼의 집에 옮겨앉는다면 그들은 이 모든것을 잃는것이다.

윤경훈은 허전한 기분을 안은채 량탄집을 나갔다. 이런 사연을 딸사위가 안다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이 윤경훈은 그들을 볼 면목이 없을것이였다.

최죽길에 메뚜기가 폴떡폴떡 뛰고있었다. 양먹이 건초를 베느라고 젊은이가 외낫질을 하며 바랭이풀을 베고있었다. 왼손으로 낫질하는 그를 보는 윤경훈의 뇌리에 또다시 리복녀를 두고 련상되는 화폭이 떠올랐다.

농촌지원자들이 벼가를 도우러 왔던 먼 옛일이였다. 윤경훈의 분조에도 로동자들이 왔었다. 지원자들의 식당을 돌아보던 리복녀반장은 그들이 밥먹는 모양을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이것 외낫가락 수자가 늘어난다?》

느닷없이 외우는 리복녀의 말에 윤경훈은 영문을 몰라했다.

《예? 외낫이라뇨?》

리복녀는 웃으며 손짓했다.

《보라구요. 왼손으로 술질하는 사람이 여기서 두 둘씩이나 되는걸...》

그날밤 리복녀는 야장간에서 밤을 새워 외낫을 열개나 장만했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는 윤경훈의 머리는 착잡해졌다. 이제 그가 더 늙으면 어차피 시중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니 딸집에 가야 한다는것은 불보듯하지 않는가?

윤경훈은 지금 이것을 생활의 귀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된 감정에 짓눌리고있는것이였다.

윤경훈이 리복녀 따라 관리위원회에 들어서려는데 별안간 전화소리가 들렸다.

《반장이 뭘하는가구요. 그 사람이 손이 열두켤가? 이런걸 가지고 반장한테만 매달리면... 래일

보내주겠지요. 흐흐 몸이나 잘 돌보라구요?》

뒤이어 수화기를 놓는 소리가 들렸다.

《형, 성 쌓구 남은 돌이라구 숯보는군, 이것어쩐다? 관리위원회두 그 부속은 없다니...》

군에도 낫이 넓은 리복녀였다.

《내가 래일 군에 가야겠군.》

이런 혼자소리가 뒤따라 들렸다.

윤경훈은 리복녀의 전화소리를 듣자 자신이 일군으로서의 탕개가 풀려져있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리복녀를 군에 보내다니? ... 이런 가책에 밀려 오후참에 통신수업준비에 꼴을 싸매고 공부하는 딸을 설복하여 함께 읍으로 떠났다.

3

윤경훈은 딸과 함께 언제부터 미루기만 하던 벼수확기 부속품과 함께 가스화부속품을 한배낭씩지고 그날 밤길로 돌아섰다. 어두운 구배길을 전지불 켜들고 힘겹게 걷고있는 딸을 돌아보며 윤경훈은 불쑥 입을 열었다.

《정실아, 너 량탄집에 가 살 생각이 없느냐? 할머니를 생각해서말이다.》

《예?...》

정실은 우뚝 걸음을 멈췄다. 윤경훈은 사람이 집을 켜올 때 생각도 무거워진다는것을 알른 깨닫고 길가에 있는 너럭바위에 배낭을 벗어놓았다.

딸도 아버지를 따랐다. 후두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실의 가슴에선 넋이 뛰는듯 불룩한 앞가슴이 오르내렸다.

《아이참, 아버지두 제가 어떻게?...》

《왜? 못갈집이냐? 시집갈 때까지 그 어머니딸 구실을 하란말이다.》

정실의 밤눈에도 아연해하는 표정이 완연했다.

《할머니두 한심하지, 딸을 기르는 품이면 아들이라도 하나 두었을것이지. 그런데 딸집엔 왜 못가신대요? 보내달라구 하는데...》

《그러니 생각이 없단 소리구나. 넌 대흥광산에 가겠다구 한때 뛰쳐나가 다니더니 농장에서 안보낸줄 알구 허세를 부려본거냐?》

정실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치며본다.

《참 아버지두 제가 아무려면 동맹조직앞에 빈소리를 하겠나요? 할머니문제두 그렇지요. 평양에 올라가면 편안하고 좋을텐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부득부득 여기서 살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넌 그 어머니가 뭇때문에 딸집에 안가고있는지 깊은 속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그걸 깨우쳐주자고 이 밤길을 걷는게다.》

정실은 머리를 푹 숙인다. 비줄기가 끊어져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일기를 예견못하고 떠난 그들은 옷을 흠뻑 적시고있었다.

윤경훈은 가슴속에 돌덩이를 안은듯 무거워졌

다.

불쑥 앞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렸다. 인차 너인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반장이 아닌가?》

윤경훈은 그 소리에 말뚝처럼 쫓겨해졌다.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비웃 입은 리복녀가 우산을 두개 들고 그들앞에 서있었다.

《원 사람두!말이나 하고 갈것이지 전화로 알아보니 밤길에 떠났다고 하지 않겠나?》

윤경훈은 코마루가 쩡 하고 울렸다. 심리나 걸어 여기까지 마중온건이었다. 실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런 밤길을 마중나올것인가? 그런데 자기는 이런 어머니를 두고 얼마나 아달다운 생각을 지녀왔던가? 윤경훈은 가슴을 두드리는 회오로 하여 목이 짹 막혔다.

딸에게 말하려던 그 모든것을 리복녀의 모습이 소리없이 대변해주고있었다....

윤경훈은 안해를 보고 말을 건넸다.

《여보, 정실을 량탄집이 보내자는데 어떻소?》

《뭐라구요?》

그야말로 어두운 밤에 흥두깨내미는것 같은 소리에 안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량탄집이라는 말에 룡담이 아님을 알아차린 안해의 낯색이 표표해졌다.

《당신의 생각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이를 일이요? 지금 제 친부모 거두는 아들, 며느리들두 어찌구 저찌구 말들이 있는데 판판 남이 들어가서... 원 모르겠수다. 더구나 우명삼아주버니가 나선 혼사자린 어찌구요?》

《저 애가 꼭 읍에 가야 맛이요? 읍농장이 도시를 끼고있어 묘술을 부리는 처녀들속에 우리 애도 세우고싶소? 마을에도 끝날같은 총각들이 많겠다 아예 그 집에서 놀러살면 될것 아니요... 늙은이 한분 모시는게 뭐가 걸린단거요? 우리가 이제 늙어서 량주가 남을 때 정든 고장을 떠나서 가라면 발길이 떨어질것 같소?》

윤경훈의 엄한 목소리가 울리자 한동안 방안엔 침묵이 깃들었다. 정실은 그런듯이 동그랗게 앉아있었다. 몽실한 코등에 땀방울이 돋았다. 안해도 역시 생각이 깊은 모양이었다.

윤경훈은 딸을 아름다운 주부의 가정사가 기다리는곳으로 보낸다는것은 분수가 넘는 일같았지만 리복녀처럼 향토에 애착을 붙이고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 지금 네 결심은 어떠냐?》

정실은 술곳이 머리를 들었다. 예쁘장한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고있었다. 질은 번뇌가 고였던 포도알같은 눈동자가 조용히 밝아지면서 곱게 다물린 입술에 미소가 살짝 실렸다.

윤경훈은 희망이 보였다.

이런 때 청높은 우명삼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혼사말도 아귀넬겜 두루두루 해서 왔네.》

우명삼은 손에 술병을 들고있었다.

《어떻게 이런걸 다 가지고?》

《량탄집어머니가 한병 내놓는걸 그대로 들구 왔네. 혼자서야 넘어가나?》

우명삼은 밥상앞에 푸접종게 들어앉으며 정실을 보고 술잔을 가져오라고 눈짓한다.

《전번에 반장이 내 말을 통냈지만 실은 나두 며느리 해산달이 박두하다보니 그런 생각이 든거네. 논두렁콩두 땅을 들어올리구 머리를 내미는데 사람이 제 살 궁리를 안하겠나?》

윤경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자네가 홀로 사는 늙은이의 배개머리를 무슨 수로 봐주겠나? 로인의 밤자린 모기숨이라는데... 그걸 생각해봤나? 그래서 외손자라도 끼고싶어하는걸새. 난 사심없이 부모 받드는 아이들의 순진한 세계에 효성의 근본이 놓여있다고보네. 그전에 난 할아버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잔등을 곧잘 긁어주었네. 그런 손이 났수 있나? 이 건 당콩줄이나 매주는것과는 다르거든.》

생각해보면 윤경훈은 철없던 유년시절에 할아버지의 잔시중을 많이 했다. 그것은 지기만이 할수있는 일이었다. 로인들에겐 늙어갈수록 자그만한 손이 더 소중해지는것이다. 그래서 손자, 손녀를 더 귀해하는것 같다. 이러한 감정과 습벽을 언제나 명심하고 부모를 모시는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자식된 도리란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지만 그 점에선 나도 가책이 크네. 하지만 가라는집은 나무래구 기어코 그 집을 차지해보자구 로인을 구슬리는 속심엔 무슨 <도리>가 있나? 한가정의 때묻은 정이 배여있어 말없는 동무가 돼서 여생을 위로하는 집인데 함께 모시고있지는 못할 망정 그걸 넘겨다보는 욕심을 뭇로 봐야겠나? 자네를 장가 보내주고 만아들을 돌봐주고 좋은 자리에 새집까지 지어 옷방살림을 덜어준 어머니의 지난날 사랑을 잊어버리고 딸집에 가기만을 기다리니... 이게 됐나?》

윤경훈은 친자식이 그랬다면 뺨을 쳤을것이였다.

우명삼은 얼굴이 벌거우리해졌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었다고? 너무하군. 이제라두 다층주택에 가라면 가겠네. 아무렴 새집 새집이 오랜 집보다 낫지. 어차피 딸네집에 가게 될 어머니인데 연고두 깊은 집이구보니 정두 가구...》

판 사람손에 넘길 생각이 없었네. 어머니의 의향두 그런것 같구. 구실은 못했어두 량탄집에 아들처럼 드나든 내가 도리상으로도 그 집을 맡아 거두는게 옳을것 같구... 그러다가 집을 바꾸자고

한것두 어머니가 내 사정을 보고 먼저 그런 말을 내놓은걸세.》

《그래서 받아물었나? 참 답답하군. 타향에 가서두 고향을 잊지 않고 사는 자식들에게 그 생가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숨쉬고있다는 생각은 왜 못해.》

우명삼의 눈길에 제 코등을 굽어보고있었다. 윤경훈은 우명삼의 심정도 어느정도 이해되어 격해졌던 목소리를 누잰했다.

《지금 고향에 부모만 남겨두고 나라의 일군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네처럼 처신한다면 그들이 고향사람을 뭘로 보겠나?》

윤경훈의 눈빛은 다시 따뜻이 빛났다. 안해와 딸은 정숙하게 앉아있었다.

《난 그래서 뒤늦게나마 도리있는 인간으로 살고 하네. 난 딸을 량탄집에 보내줬네.》

《정실이틀?》

우명삼은 자못 놀라운 기색이었다.

《그렇네. 그 어머니의 딸이 되려구말일세.》

정실은 웃고있었다. 딸을 슬며시 건너다보는 윤경훈의 눈가에 안도의 빛이 걸렸다. 우명삼은 꿈꾸듯 멍청해 앉아있었다.

4

량탄집에서 가스난방의 불길이 지펴지자 윤경훈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단층살림집에도 일반화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이 바람을 탔다. 풍요한 논벌에선 누런 벼이삭이 절렁거린다. 여문 벼알이 방금이라도 툭툭 튀어나 하얀 쌀알을 툭렁툭렁 떨어뜨릴것만 같다. 푸른 하늘엔 만풍년을 상징하는 백학이 유유히 감돌고 있다. 논판우엔 벼가을 끝내면 당장 시작할 흙갈이삭도가 기세좋게 가로질러갔다.

윤경훈은 어느때같으면 풍년의 장훈을 부른 농산작업반장으로서 설레는 벼바다위에 누워서 뒹굴고싶을 지경이었겠지만 지금은 기분이 그렇지 못했다. 리복녀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딸을 량탄집에 보내려고 정실이의 이사집을 한마당 끌어내놓고 토방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물고있는것이였다.

무작정 정실을 량탄집에 떠밀고있는 처사가 지금에 와서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리복녀가 이 사연을 안다면 꼭진한 성미에 선듯 받아들이지 않을것이였다. 레장품으로 마련했던 이불장, 옷장 그리고 자질구레한 지참품들을 집밖으로 날라내놓으면서도 복녀어머니가 어떻게 대하겠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품고있는 생각은 리복녀가 딸집에는 가지 않을것이라는 확정적인 사실앞에서 마을의 호주로서 더는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없다는 것이였다. 그러다보니 짐발을 앞세우고 정실이를

량탄집에 보낸다면 녀인도 어쩔수 없어 밀막지 못하리라는 배심이 앞섰다.

윤경훈은 불현듯 우명삼에 대해 노기가 치밀었다. 그를 아들처럼 생각해온 리복녀였다. 녀인이 지금껏 마음속 깊은곳에 묻어둔것이 무엇이었던가? 자신에게도 그랬지만 우명삼이야말로 녀인의 로년기를 말아안고가야 할 의무를 지고있다. 윤경훈이 은연중 느껴온것이 리복녀가 내색은 보이지 않아도 우명삼일가에 붙인 정만은 떼기를 피로와한다는것이였다. 그런데도 우명삼은 인정의 문을 꼭 닫아매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우명삼을 제쳐놓고 자기가 지금 일을 이렇게 벌여놓고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독촉이 불같은 리복녀의 딸앞에도 잘못을 저지르고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녀인을 딸집에 보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윤경훈은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라고 믿었다.

윤경훈은 오래전부터 말아들구실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온 자신을 새삼스레 돌이켜보았다.

말아들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다른 자식에 오만공수를 들였다면 말아들에겐 십만공수를 들인다 할가. 그래서 아들구실을 갑절로 해야 할 말아들의 의무를 어떻게 생활로 옮겼던가? 생각할수록 가책이 컸다.

윤경훈은 생각했다.

이제 녀인이 떠나면 심리적고통을 겪을것이다. 여기서는 리복녀가 남편과 함께 협동화의 전망을 설계하며 래일을 꿈꾸던 농장벌을 어느때든 바라볼수 있는것이고 손때 묻은 농쟁기도 벽에 걸려있어 그 체취를 살뜰한 감각으로 느낄수도 있는것이였다.

여기서는 생신날이면 오너라, 간다, 무를 맞대고 연고깊은 지난날을 옛말로 나눌 다심한 말동무도 있는것이고 자신의 농촌생활에서의 인간적 체모와 창조적로동에 바쳐온 그 진가를 후하게 알아주는 마을사람들도 있는것이였다.

여기엔 또한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의 위훈과 영예에 대한 희소식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구면지기들에게 자랑하고다닐 생활의 언덕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존엄과 아름다운 추억이 현실의 맥박과 이어져있는 고향산천이여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고갈 그러한 재부와 길동무를 리복녀는 선뜻 내놓을수 없을것이였다.

도시의 고층집 방안의 정서보다도 리복녀에겐 의리와 연고로 체질화된 향촌의 정서가 몇갑절 의의있고 소중한것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농촌로인들이 때묻은 정든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윤경훈은 단정하고있었다. 게다가 리복녀는 농촌 일군이였다. 농촌테제완성의 길에서 모든것을 바

처은 주인이 날마다 변모되는 고향의 전변을 제 땅에서 듣고싶은 절절한 욕망이야 이루 비길데가 있겠는가!

리복녀야말로 가슴이 실락했던 그 젊은 날엔 보탑도 쥐었고 가래도 휘휘 날리던 실농군이였다.

농산분조장과 작업반장을 하면서 리당위원으로 군대의원으로 이 땅의 변모속에 생의 뚜렷한 흔적을 수없이 찍어온 어제날의 일군이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밑에서 일을 배웠으며 들향기가 스배인 농촌의 주인으로 자랐던가...

윤경훈은 생각이 깊어갈수록 자신이 너무도 박정하고 도리없는 일군이였다는 가책에 휘말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이 어머니가 홀로 겪은 고초를 그의 자식된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해왔던가?

그는 진정으로 혈통의 친분관계 못지 않게 의리의 정분관계가 굳건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일심단결된 새시대의 룰리를 자기가 뒤늦게야 심장으로 터득하게 된것이 부끄러웠다.

윤경훈이 정실이와 이불장을 맞들어 달구지에 싣고있을 때 리복녀가 불쑥 들어섰다.

《이보게 반장! 무슨 일인가?》

리복녀는 황소의 코투레를 잡아쥐며 놀라운 표정이였다.

《어머니가 어떻게?》

윤경훈이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질 말게. 다 알구 왔네. 내가 자네들 집이 돼서야 되겠나? 제발...》

리복녀는 윤경훈일가의 뜨거운 정에 그만 목이 메여 뒤말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만아들구실을 쓰게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정실을 동무삼아 끼고계십시오.》

윤경훈을 조용히 치며보는 리복녀의 눈길에는 물기가 번뜩이였다.

이때 우명삼이 황황히 뛰어들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시우. 이 못난놈이...》

우명삼은 어깨를 떨구고 녀인앞에 머리를 푹 숙인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영?》

윤경훈은 놀란 얼굴을 한껏 쳐들었다.

...우명삼은 심한 고뇌를 겪었다. 자기가 수십년을 두고 리복녀의 집에 드나들면서 진심으로 그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마음도 쓰고 손발도 놀렸지만 리복녀가 인생말년에 어차피 기른 딸일망정 그를 찾아가기마련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때문에 양딸을 두었겠는가?)

구경은 일일 이렇게 벌어지자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것을 통감하게 된것이였다. 윤경훈은 실상 자신에 비하면 리복녀와 별로 가정적연고도

없는 사람이였고 다만 작업반장이라는 직책상의 무감에서 녀인을 대해온것이였다. 이런 윤경훈

이 제 딸을 리복녀에게 보내겠다고 선언했을 때 우명삼은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야말로 도리도 의협심도 인정도 무딘 인간이였다는... 곰얼처럼 쓴 반성을 거쳐 이 마당에 뛰어든 우명삼이였다.

리복녀는 달아오르는 눈시울을 스며키면서 윤경훈이와 우명삼을 끄당기며 토방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이윽고 그는 무엇인가 큰 짐을 벗어놓은 사람처럼 모두숨을 내쉬며 환히 웃는다.

《인젠 됐네. 내가 활개치면서 딸집에 가게 됐다네. 기쁘이.》

《예?》

윤경훈이와 우명삼은 놀라운 눈길로 녀인을 돌아보았다.

《내가 바라는건 자네들의 그 마음일세. 농장적으로 뒤세대밖에는 안되어도 늘 시름겹게 생각되던 동네 늙은이들에 대해서두 인젠 걱정 안하게 되었으니말이지. 나야 그 사람들의 반장이었으니 안그렇겠나? 또 대의원이었구. 그 사람들을 자네들같은 끝끝한 만아들이 잘 돌봐주겠는데 내가 다 하지 못한 만이구실을 자네들이 잘 해주겠으니 마음놓고 가게 됐네.》

리복녀는 윤경훈이와 우명삼의 손을 다정히 쓸어만진다.

《진정 가시겠단말씀입니까?》

윤경훈은 김빠진 소리로 물었다.

《양딸인데두요?》

우명삼이도 갑자르는 목소리로 뒤를 받쳤다.

《양딸?》

리복녀는 별소리를 듣는다는듯 눈을 치며올렸다.

우명삼은 급기야 자기가 실언을 했다는 자각이 든듯 얼굴을 붉혔다.

《임자들두 잘 알지만 내 딸두 만아들구실을 할거요. 난 그렇게 길렀으니까... 사람이 어디서 살든 체심할게 있지. 늙어두 밀린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하네. 난 여생대접을 받는데 질색이거든.》

리복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번득이며 병긋 웃었다. 그랬다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일세. 백두산 맑은 물은 이 땅의 샘줄기를 타고 흐르는데 언제나 그 물이 정가롭게 흐르자면 샘줄기가 튼튼하고 깨끗해야지.》

윤경훈은 눈이 번쩍 떠졌다.

(아, 이것이였구나!)

수령복을 누리는 인민의 자세, 일군의 자세를 두고 가르쳐주는 리복녀의 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로고로 끝없이 퍼올리는 룰리도덕의 맑은 줍이 일군들의 복무정신으로 이어진 샘줄기를 타고 인민들의 가슴속에 흘러들고있는것이였다.

리복너는 일꾼들이야말로 언제나 시대의 말이
로서 구실을 해야 한다는것을 생의 말년까지 가
슴깊이 간직하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이 땅을
살찌워온 샘줄기였다.

윤경훈이 혁명의 선배이며 향촌의 말이인 그를
존경어린 눈길로 지켜봤다.
《명삼이, 랑탄집에 옮기라구. 어머니 절대로
보낼수 없네!》
윤경훈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때없이 걷는 두렁길에서

전재훈

어느 하루만 걷지 않아도
내 마음 편치 않더라
다랑다랑 마른 때보다
젖어있는 날이 더 많은
이 논두렁길

일하는 날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가지만
쉬는 날에도
논배미마다 물깊이 가늠해보며
김도 놓칠세라
생각도 걷고 마음도 걷는 길

캄캄한 여름밤엔
벼 아지치는 소리 듣고싶어 걷고
달밝은 가을밤엔
볼수록 탐스런 벼이삭
낮에 본 황금빛 또 보고싶어 걷는 길

이 길이 아니더냐
청산리에서 연백벌까지
온 나라 두렁길을 이어놓으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수령님 걷고 걸으시며
해마다 풍년을 안고오신 길이...

그 두렁길의 한구간이기에
이 길을 걸으며 받아안지 않았던가
우리 농장에서
논벼 정당 수확고를 높인 그 가을날
아버이수령님
그리도 기뻐하셨다는 감격적인 소식도

동해안사람들이
이제는 여덟팔자를 알게 되었다고
기동농장으로 내세워주시고도

자신의 수첩에 적으시며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신 그 은정...

그날의 그 감격 펼쳐들면
그리움 북받쳐
이 땅의 그 어느 두렁길을
지금도 걸으시는것만 같아
비바람 부는 날이면
송구한 마음 누를길 없어

그날 기뻐하시던 순간을
내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대를 이어 걷게 할 이 길은
가장 값있고 보람찬 길이기에

해종일 마음놓고 걸어도
신발에 흙 한점 묻지 않는 길보다
첫 발자욱부터 조심히 걸어야 하고
때로는 신발을 벗기는 진창길이지만
가슴속엔 유혼교시 관철할 맹세 굳어져
떠날수 없는 이 두렁길

고난과 시련이 막아서고
봉쇄의 검은 구름 밀려와도
기어이 풍년든 날알로
우리 장군님 받들 일념 불타니
한밤중에 걸어도
마음속에 밝게 열리는 두렁길

내 언제나 이 길을 걸으며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아버이수령님을 뵈옵고
이 길을 걸으며
논배미마다 알찬 열매 무르익혀
우리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리라

어머니의 고백

(총련)서상각

1

△공항. 비행기의 리착륙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막이 열리면 무대 하수 안전에 치우쳐 외로이 서있는 윤명희의 뒤모습이 국부조명 속에 나타난다.

△윤명희 외투를 겹쳐입고 안경에 모자를 쓴 차림새가 60이 넘어보인다.

△윤명희는 옷차림이나 지님도구 등으로 환경과 연령을 변화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공항의 소음 잦아든다.

윤명희: (무대앞으로 나온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60평생을 살아온 윤명희라고 합니다.

2세이지요. 네, 2세입니다. 남편이 1세였으니까 아들이 3세, 아니 정확하게는 2세반이라고 할가요. 하여간 저는 2세입니다. (무대상수건으로 걸어간다.)

내 60평생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이 또한 미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내 신세가 가련하지요... (무대 중심에 가서 풀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내 팔자야! (땅을 치며)아이고 내 신세야! 풍파사나운 일본땅에서 60평생을 어리석게 살아오다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어데가 하소연할데도 없으니 이거 참 기가 찰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두손을 올리고 하소연한다.)

여러분! 기인한 이 어머니의 녀두리갈은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일어서서 무대앞으로 나오며)

제가, 제가 이제 무엇을 할수 있겠소, 기막힌 신세타령이나 할수밖에... 네, 신세타령이지요. 신세타령...

여보소 벗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주소. 어리석은 어머니의 기가 막힌 신세타령 사랑하는 남편 잃고 사랑하는 아들 잃은 어리석은 어머니의 고백일랑 들어주소.

△무대 어두워진다.

2

△무대 다시 밝아지면 도표의 어느 대학교구내이다.

△고목이 몇그루 서있고 커다란 게시판이 있다.

△게시판에는 《신입생 환영!》, 《공수부에 오라!》, 《M.L 주의철학연구회는 군을 기다린다!》, 《과연(과학연구회)에 오라!》, 《사연(사회주의연구회)에 오라!》, 《미군기지확대반대투쟁에 총열기하라! 오전 10시, 스나가와 1번게이트앞에 집합!》 등등의 힘찬 글발이 나붙었다.

△무대 여기저기에 의자, 긴의자 등이 놓여있어 학생들이 수시로 모여 담소할수 있다.

윤명희: (외투, 안경, 모자를 벗으니 처녀대학생 차림이다. 책가방을 옆에 끼고있다.) 1950년대 중엽, 일본의 대학들에는 항학열에 불타는 조선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정열적이며 패기에 넘치는 조선학생들이 수십명이나 있었고 학부와 학과, 주의주장들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학생은 조선학생끼리 자연히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모이면 전쟁이나 평화나,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논쟁들을 한 정없이 벌렸어요.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리상, 희망을 안은 실로 꿈도 많고 다정다감한 청춘들이었지요.

문학부에 적을 두고 있는 박동준씨도 그들중의 한사람인데 총련의 민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대학을 다녔지요.

상학부에 적을 둔 장길남은 대학생이면서 사회인이지요. 해방직후 중학교, 고등학교시절에 벌써 미주둔군물자공급소(PX)에 드나들며 술, 담배, 통줄임 등을 비합법적으로 구하여 암거래시장에 내다팔아 돈을 벌었대요.

지금도 토지중매업, 금융업(고리대업) 등으로 돈벌이가 괜찮은 모양이지요. 대학생들속에서는 자산가, 기업주로 불리우고 있어요.

법학부에 적을 둔 정철수씨는 남조선에서 류학온 학생인데 장차 남조선에서 변호사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법률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또 다른 나라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타겠다고 합니다.

나요? 네...이 윤명희는 문화평론가가 되겠다는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희망이고 포부입니다.

△웅성거리는 군중들의 웨침소리. 구호 《전쟁 반대! 평화를 지키자! 미군기지확대책동을 분쇄하자! 분쇄하자!》 등의 웨침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장길남, 정철수를 발견하는 윤명희

윤명희: 길남씨, 철수씨, 웬일이세요? 네? 동준씨를 못봤느냐고요? 예, 보지 못했어요.

△배우연기에서 다른 인물로 변신하는 계기. 사이 호흡을 잘 잡을 것이며 변신하는 형상에서 처음에는 다소 과장이 있어도 좋을수있다. 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수있도록 다음으로 변신할 때는 자연스럽게 한다.

가령, 이다음에 명희로부터 정철수로 변신할 때 남성적인 행동, 동작을 주고 넘어가는것이 좋을것이다.

정철수: 명희씨, 저 시위군중들의 웨침소리가 들리지요. 저속에 박동준이가 끼여있지 않는가 걱정이요. 여보게, 길남이.

장길남: 글썄, 시위군중과 경찰기동대가 맞붙어서 란투가 벌어졌는데... 박동준이 그 사람이 다치지나 않을까...

윤명희: 길남씨, 철수씨, 우리 가서 시위군중속에서 동준씨를 구해냅시다. 어서 갑시다. 어서요.

정철수: 난... 립장이 달라서... 길남이, 자네는 어쩔라나?

장길남: 나도 글썄...그 위험한데 끼여들 생각은 없네.

△시위군중들의 웨침소리 더욱 높아지며 란투질하는 노도소리 더욱 가까워진다. 이윽하여 박동준이 다리를 절며 급히 나온다.

윤명희: 동준씨.

장길남: 동준이.

정철수: 동준이, 자네 이게 무슨 꼴인가.

윤명희: 동준씨, 발을 다친 모양인데 우선 응급 처치라도 해야 하겠어요. (손수건으로 상처를 싸매준다.) 동준씨.

박동준: 명희씨, 고마워요. 철수, 길남이.

장길남: 동준이, 자네 이게 무슨 꼴인가?

박동준: 길남이, 미군이 조선에서 또다시 불장난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 봐둘수 있는가.

△시위투쟁의 웨침소리, 아우성소리 더욱 커진다.

박동준: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어서 저 대렬에 합세하자구. 전쟁이냐? 평화냐? 조선에서의 전쟁반대! 조선민족의 슬기를 지키자! 길남이, 철수, 자 어서! 길남아.

장길남: 동준, 여보게, 진정하랴구... 그 강대한 미국이 시위를 한다고 철수하겠는가. 헛된 희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네...

박동준: 합세하는가, 안하는가. 강요는 안하네. 철수, 자네는...

정철수: 동준이, 난 내 사정이 있네. 자네와 같이 나갈수는 없어. 동준이...리해하랴구.

박동준: 그럼 좋다, 나는 간다.

△박동준 절룩거리며 달려나간다.

윤명희: 동준씨, (따라나아가다가 멎어선다.) 저러다가 또 경찰에 잡히면 어쩌나...철수씨! 어찌면 좋아요?

정철수: 동준이는 동준이의 립장이 있고 난 또 내 사정이 있어서... 나는 류학생의 몸이니... 길남이.

장길남: 동준이 마음은 나도 알아. 허나 나는 그와는 지향이 다르니까. 내야 국제적시야에서 세계인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민족문제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킬수야 없지 않아.

철수, 그렇지 않은가?

정철수: 길남이, 알았네, 알았어. 길남이, 내 먼저 나가겠네...

△정철수 나간다.

장길남: 철수, 또 만나세. 잘가...

윤명희: 길남씨!

장길남: (생각에 잠겼다가)음, 어...명희, 여기 좀 앉으시오.

△윤명희, 장길남의 옆에 가앉는다.

장길남: 명희,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소?

윤명희: 무엇인데요?

장길남: 이걸 간절한 청인데... 이걸 받아주시요.

윤명희: 이것이 무엇인데요?

장길남: 명희씨에게 청혼하는 반지요.

윤명희: 청혼반지? 이걸 저에게요?

장길남: 받아주겠지요? 명희.

윤명희: 네... (수집어하면서 반지를 본다.)

장길남: (홍분하여) 난 명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으로 보지 않았소. 나의 일생의 동반자로 평생에 뗄수 없는 반려로서 지켜보고왔소.

윤명희: ...

△두사람 포옹한다.

장길남: 명희!

윤명희: 길남씨!

△두사람 더욱 굳게 맺어지는데 무대 어두워진다.

3

△무대 다시 밝아지면 국부조명속에 윤명희 나타난다.

△윤명희 전장의 녀학생차림으로부터 가정주부의 차림으로 변신하였다.

윤명희: 어언간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장길남 그이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보았어요. 남편은 동포기업가로서 억만장자라는 말을 들을만큼 장성하였어요.

남편은 지금도 국제인, 세계인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미국에도 기업을 내오고 유럽에도 기업을 확장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남편은 나를 일생의 동반자로, 평생의 반대로 극진히 사랑하고 믿어주고 아껴주어요. 내가 없으면 한시도 못산다고 하지요.

그이는 아들 영태와 영호를 애지중지 키워왔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보배처럼 사랑하고있어요.

아이들은 제 아버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존경하고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요.

△윤명희는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추억을 더듬는다.

윤명희: 정철수씨는 희망대로 일본에서 법학학사의 자격을 받고 미국에 가서 법학박사가 되었지요. 남조선에 나가 변호사가 되겠다던 포부는 어떻게 하였는지 아직 미국에 있어요.

박동준씨는 대학을 졸업한후에도 총련의 민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문필활동을 하고있어요.

박동준씨는 우리 아이들이 일본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조선학교에 보내라,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워라 입버릇처럼 빌다싶이 말하였지만 남편은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끝내 아이들은 일본학교에 보내고 큰아들 영태는 미국류학을 시켰지요.

△전화종소리 요란하게 울린다. 무대 밝아지며 명희 탁자우에 놓인 전화수화기를 든다.

윤명희: 여보세요. 가부시끼가이샤(주식회사)하리모도산교요(장본산업)입니다. 네. 박동

준씨? 아이고오, 호호... 호랑이 제말하면 온다고 ...방금 동준씨 이야길 하던참입니다...일전엔 미안합니다. 뭇이 미안한가고요? 아이들 학교일로...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요? 조선사람으로요? 부모가 다 조선사람이면 애들도 조선사람인거지요.

네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면 조선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이리로 오겠다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윤명희 수화기를 놓고 생각에 잠긴다.

윤명희: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면 조선사람이 아니다. 조선사람의 넋을 가져라...

△초인종소리 울린다.

윤명희: 네... (달려가 남편과 함께 들어오며) 여보, 목욕을 먼저 하겠어요, 식사를 먼저 할가요? 아 그래... 방금전에 동준씨한테서 전화가 있었어요.

장길남: 아, 그래 그 친구 뭐라던가?

윤명희: 이리 오겠대요.

장길남: 그 친구와도 오래만이군... 마침 잘됐소. 오늘이 우리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내온 지 5년째되는 기념일이야. 그 친구하고 한잔 해야지...

윤명희: 그런데 여보, 오늘은 그분하고 말다툼을 말아요.

장길남: 알았어, 알았어. 그 친구야 늘 중 녀불의 우듯이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라, 조선사람으로 키워라...그말뿐이니, 답답해서...

윤명희: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성의를 알아주어야지요. 그런데 당신은 무턱대고 왈카당거리니...그럴 때마다 난 가슴이 덜커덩 덜커덩 해요.

△초인종소리 울린다.

윤명희: 네에. 이제 왔어요... 여보! 박동준씨가 왔어요.

박동준: 잘 있었나. 장사일은 어떤가?

장길남: 나야 늘 그렇지. 마침 잘 왔네. (기침을 한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식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낸지 5년째되는 기념일일세. 한잔 하세 여보.

윤명희: 네. (술을 친다.)

장길남: 내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사가 했는데 우리 지사창립 5주년이라고 그놈이 글썽이 애비한테 고급위스키를 보내오지 않았겠나.

하하하... (만족해한다.) 자 드세. 축배
(술잔을 쪼며) 커어... 술맛 좋다.

박동준: 커어...술은 좋아...명희씨도 한잔...

윤명희: 저요, 호호호 네... 축배!

△윤명희 한발 앞에 나온다.

윤명희: 우리는 이날도 다정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다. 주머니 받거니... 취기가 돌기 시작하
자 또 론쟁이 벌어졌어요.

장길남:(얼근하다.) 동준이, 자네는 지금도 조선
학교에서 밥벌이도 안되는 훈장노릇인가?

당장 그만두라구. 당장 걸어치우구 우리
회사에 오게. 주식회사 하리모오산업에
말이여. 회사 상무자리를 내줄테니...

박동준: 예끼, 이 사람,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
나, 룡담으로 하나. 나는 돈없이 비록 가
난하게 살기는 하나 조선의 미래의 역군을
키우고있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래를 짊어지고나갈 기동감을 키우고 있
단말이여.

길남이, 아직 늦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조선사람의 얼을 심어주게. 그래야 아이들
이 장차 우리 민족의 한 성원으로 살아가
게 되네, 제발 부탁이야.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회할 때가 오네.

장길남: 그만두라구, 자네 입만 벌리면 영무새 처
럼 조선사람, 조선민족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은 말게.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의 집
안일에 간섭을 말게. 민족이요, 조국이요
하는 그 편협한 민족주의설교는 그만하란
말이여. (기침)

박동준: 말도 안되네. 자네는 기업을 성공시켜
돈을 벌었다고 제가 잘났다고 큰소리를 치
지만 사람이란 그것만이다가 아니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수 있지만 조국과 민족이란 한번 잃으
면 되찾기 힘든것이네.

자네도 왜정시대에 나라잃은 민족의 피
타는 쓰라림을 체험하지 았았나. 오늘 우
리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후대들에게 이대
로 넘겨서는 절대로 안돼네, 안돼.

장길남: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 않는가.
시대가. (기침)

박동준: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은 흘렀어... 허나
제국주의의 본성은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
네. 잘 생각해보라구. 그럼 난 가겠어. 잘
먹었네.

△박동준 나간다.

윤명희: 동준씨! 동준씨!

△장길남 가슴을 안고 심하게 기침을 한다. 피
를 토한다.

윤명희: 여보, 왜 이러세요? 아니 피!여보. (잡
아흔든다.)

△장길남 말을 못하고 계속 기침을 한다.

윤명희: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급환입니다. 곧 구급차를 보내주십시오.
네, 가부시끼가이샤 하리모도산교오입
니다. 네,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구급차 달려오는 소리 점점 가까와진다.

△무대 어두워진다.

4

△무대 밝아지면 병실. 점적주사의 약물병이
걸린 반침대가 있다.

△윤명희 안경을 끼고 결상에 앉아있다.

윤명희: 남편은 폐암이었어요. 그 길로 입원하여
수술을 했지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일단
퇴원하여 집에서 오고가면서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3년후에 암의 종양은 남편의 몸에 되살
아나 위에 전이하여 위를 모두 떼냈어요.
암은 또 간장으로 전이했어요. 그이는 나
를 보고 간신히 말했어요.

장길남: 여보, 박동준이 그 사람을 시급히 불러
주오. 윤명희: 나는 남편이 시키는대로 동
준씨를 전화로 불렀어요. 그분은 곧 달려
왔어요. 여보, 박동준씨가 왔어요.

장길남: 동준이, 일이 바빠텐데 고맙네.

박동준: 그래 몸은 어떤가?

장길남: 내 몸이야 보면 알지. 그저 그렇대. 동
준이, 내 자네에게 딱히 부탁할것이 있어
와달라고 했네.

박동준: 사양하지 말고 말하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힘쓰겠네.

장길남: 내 고향 신의주 토성리라는데에 내 누이
가 살아있었는데 찾아줄수 없겠나. 비용은
내가 다 내겠네. 내가 고향을 떠나온지
수십년이 되는데 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내 죽기전에 한번 만나보고싶네...

박동준: 알았네. 알아보겠네. 내 인차 평양에 가
겠네.

△음악이 흐른다.

△무대 어두워진다.

△국부조명속에 안경과 모자를 쓴 윤명희 외로
이 앉아있다.

윤명희: 세월은 또 흘렀어요. 남편의 병세는 일
진일퇴를 거듭으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평양으로 떠난 박동준씨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미국에 류학갔던 큰아들 영태는 거기서
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었는데 미국에 그대
로 놀러왔아 영주한다고 미국녀자와 결혼
을 했다면서 부모들에게 얼굴조차 보여주
지 않아요. 그것이 미국식민주주의라나요.

부모들에게 돈은 보내달라고 졸라대지만
부모의 말은 털끝만치도 들으려고 안하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더우기 한심한것은
조선말은 애당초부터 모르는거지만 어렸을
때 미국에 류학시킨 탓으로 일본말도 다
잊어먹었대요.

전화를 걸어도 아들과 어미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지요. 내가 배운 영어실력으로써
는 그애의 꼬부랑말을 통 알아들을수가 없
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말이 안통하
니 이거 참 기가 찹니다. 막 답답해요. 이
것도 다 내 팔자탓인가요?

둘째아들 영호는 일본의 일류대학을 나
와 제아버지가 하는 주식회사 하리모도신
교요에서 전무취체제역을 맡아보고있답니
다. 네.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부사장이지
요.

이것도 조선말은 하나도 모르고 일본녀
자와 결혼하여 따로 나가 살고있답니다.

요새는 청년기업가, 일류회사의 부사장
이랍시고 가부요, 토지요 하고 덜렁덜렁
돌아다니는데 무엇이 어떻게 돼가는지 도
대체 알수가 없어요. (사이)

△문기척소리.

윤명희: 박동준씨, 먼길을 수고했어요.

박동준: 길남이, 혜영누님을 찾았네.

장길남: 동준이 (눈물이 글썽하여) 고맙네, 고마
워. 그래 누이를 만나봤겠지?

박동준: 만나보고말고. 잘 있어. 잘있고말고! 자
네가 만나고싶어한다니까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더라.

장길남: 내 누이가 분명 살아있었던말이지. 누이
가 살아있다 내 누이가... (영영 소리를 내
여 울음을 터뜨린다.)

박동준: 길남이, 어서 몸을 고치고 누님을 만나
러가세. 자네문제를 제기했더니 조국에서
는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관계

부문을 통하여 신의주에 계시는 누님을 찾
아주고 만나게 해주었다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조국이 얼마나 고마운가.

길남이, 조국에서는 자네가 평양에 오는
것을 대환영이라고 하면서 또 자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평양에서 만날수도 있고
베이징에서 만날수도 있게 해주었네.

장길남: 베이징까지 데려다주신다고... 날개가 있
으면 당장이라도 훨훨 날아가고싶구나.

누님, 기다려줘. 길남이가 인차 찾아갈
게 기다려줘. 누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다.)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내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수십년
세월을 헤여져살던 오누이를 만날수 있게
보살펴주시니... 참으로 고마운 조국이다!
참으로 슬기로운 민족이다.

여보, 어서 차비를 하오. 누이를 만나러
갈 차비를...

윤명희: 네!

△무대 어두워진다.

△무대 다시 밝아지면 병원, 침대머리맡에 러
행가방, 구두, 환자용보행차, 지팡이 등이
놓여있다.

윤명희: 여보, 약을 드세요. 몸을 추세우고 누님
한테 갑시다.

장길남: 음, 먹어야지... 누이를 만나야지. (안간
힘을 써서 억지로 먹는다.) 그래 의사선생
은 뭐라던가.

윤명희: 이제 조금만 더 몸이 회복되면 비행기도
탈수 있대구요. 의사선생도 려행에 따라
간대요.

장길남: 고마운 말이에요. 내 몸을 고치고 가야지.
만나고말고. 도중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지. 가야 해. 누이야! 내 이제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누이야! (울음이 터진다.
)

간호부의 목소리: 하리모도상! 하리모도상!

평양 까라 데가미또 고쁘쁘미
가 도도끼 마시다요. (하리모도씨.
평양에서 편지와 소포가 왔습니
다.)

윤명희: 여보, 누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니!
(다급하게) 여보, 아니, 여보오, 의사선생
님, 의사선생님.

△장길남 숨이 진다. 의사가 장길남의 가슴을
툭툭 치며 인공호흡을 거듭한다. 아무런 반
응도 없는듯.

윤명희: 여보! 숨을 돌리세요. 눈을 떠요. 아이고
아이고오.

의사: 애석합니다. 림종입니다.

윤명희: 선생님, 선생님, 살려주세요. 남편을 살
려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살아서, 살아서 기어코 조국
엘 가야 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 애석합니다. 림종입니다.

윤명희: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한
다.)

아이고, 아이고오. (피를 토하듯이 울부
짖으며) 여보, 여보오, 눈을 뜨세요. 눈을
떠요. 누이를 만나겠다던 그 소원은 어데
두고 이렇게 간단말이요! (벌떡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태야, 영호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
다. 네 아버지가.

(미친듯이 무대를 에돌아 려행가방, 구
두, 지팡이를 그러안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다.)

누이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당
신이... (누이한테서 온 약과 편지를 그러
안고) 그리운 누이한테서 온 약도 먹지 못
하고 편지도 읽어보지 못한채 이렇게 가다
니 원통하오, 원통해요. 아이고 여보, 아
이고오...

△무대 어두워진다.

△무대 윤명희의 집.

△한켠에 려행가방, 구두, 지팡이, 환자용보행
차가 있고 다른켠에는 누이한테서 보내온 편
지와 약보따리가 있다.

△무대 밝아지면 윤명희 계속 훌쩍거리고있다.

△방안에는 조문객들이 있는듯. 아들 영태와
영호도 있는듯.

윤명희: 영태야, 영호야, 아버님 려전에 하는 절
이 그게 뭐냐? (선재로 머리를 꾸벅거리고
나서) 이따위로 하는 절은 조선의 레절에
는 없다. 어머니가 먼저 할테니까 잘 보고
그대로 해라. (무릎을 꿇고 큰절을 두번
하고 반절을 한번 한다.) 자, 너희들도 이
렇게 해라.

뭣이? 아이 돈트 노우 코리안 세레모니?
조선의 레절은 모른다고? 또 뭐? 그런거
하기 싫다고? 아이고 기가 차다. 기가 차.
이것들이 레의범절도 모르고 사람인가 짐

승인가.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같은놈들
아. 기가 차다야. (또 훌쩍거린다.)

박동준: 어쩔것이요. 이제 다 깨진 족사발인데...
명희씨, 고인의 누이한테서 온 편지를 려
전에 읽어드립니다.

윤명희: 네, 그렇게 해야지요. 영태야.
너 뭣이라고? 읽어봤자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 편지를 읽으면 뭘하느냐고? 또 뭐?
살아있을 때라면 몰라도 죽은뒤에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 망할 개보다 못한 짐승
같은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 애비도
에미도 모르는 불한당같은놈들아.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자식들을 이따위
로밖에 못키웠으니 기가 차다. 원통하다.
동준씨, 읽어주십시오.

박동준: 영태야, 영호야!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
하겠지만 아버지는 다 안다. 내가 읽을테
니 너희들도 잘 들어라.

△음악이 흐른다.

박동준: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사랑하는 동생
길남아! 네가 일본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누이는 어찌나 반갑고 기뻐던지
길남이가 일본에 살아있어요, 길남이가 나
를 만나러 온대요 하고 쾅쾅쾅쾅 춤을 추
며 온 동네를 다 돌았단다.

그런데 너는 왜 이제까지 고향 부모형제
들에게 편지 한장 보내주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어린 너를 일본으로 떠나보내
고 하루 한시도 마음놓으신 일이 없으셨다.
끼니는 제대로 에이고있는지... 잠자리는
편안한지... 늘 네 이야기만 하시드렸단다.

조국이 해방되던 때에는 석달열흘을 꼬
박 동구밖 정자나무밑에서 네가 돌아오기
를 기다리셨고, 귀국의 배길이 열렸을 때
에는 배가 들어오는 날마다 청진항에 가시
였고 원산항에도 가시였단다. 아버님은 실
로 몇해동안을 귀국선이 들어오는 항구를
헤매이시다가 네 모습을 찾지 못하시고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었는지 모른다.

아버님께서 세상을 버리시는 그 순간
까지 네 이름을 부르며 길남아! 길남이
가... 길남이를 하시며 마지막숨을 거두시
였다.

길남아,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사랑하는
동생 길남아, 이 누나는 일본에서 살아있
다는 네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아버
님산소에 선참으로 찾아가 말씀을 올리였
다.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니...

길남아,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져온 네 친구 박동준씨를 만났을 때 너를 만난듯한 기쁨으로 그이를 부여안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울기만 하였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꼭같이 수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사상리론과 예지와 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에서는 우리 오누이가 만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었다.

그런데 네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다. 네 몸상태를 고려하여 조국에서는 베이징도 좋고 평양도 좋으니 만나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조국인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리운 사랑하는 길남아, 우리 오누이가 만날 날을 일일천추로 기다린다.

사랑하는 동생 길남아, 이 편지와 함께 네 병에 좋다는 조국의 약을 보낸다. 이 약을 먹고 몸을 추세우고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살아생전에 만나보자. 길남아, 그 꿈같은 상봉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사랑하는 길남에게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며
조국 신의주에서 누이 장혜영.》

△사이, 운명희 참고참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무대 어두워진다.

△비행기 리착륙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대 밝아지면 나리다비행장이다.

△외투를 입고 안경과 모자를 쓴 운명희 러행가방을 들고 서있다. 운명희 가방을 밑에 놓고 손목시계를 본다.

운명희: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여러분!저의 기막힌 사연을 마저 들어주시시오.

남편을 저승으로 보내고난뒤에 나는 큰 아들 영태를 미국에 나가지 말고 일본에서 같이 살자고 붙들었습니다.

그놈은 자기는 이제 일본에서 살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어미를 뿌리치고 끝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비애와 분노가 서린 야릇한 음악이 흐른다.)

그런데 글썽, 그놈이 어머니결을 떠난 한달후에 미국놈살인강도의 총에 맞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앞길이 구만리같이 짧은것이 만리타향에서 개죽음을 당했으니 기가 차고 억이 막히지요.

작은아들 영호와 함께 미국 로스안젤스라는데 가서 그녀석의 시체를 겨우 찾아냈어요. 난 이제 눈물도 다 말라빠지고 울래야 울 기력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작은아들 영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하리모도산업의 새 사장이 되었는데 3년도 못가서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거품경제의 거품이 산산조각으로 터지는바람에 전대미문의 불경기가 들이닥쳤단말입니다.

일본의 주권(가부)이 하루밤사이에 폭락되고 땅값이 개값으로 떨어지는바람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냈단말입니다. 그걸 감당해내는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도산이지요. 쫓딱 망했단말입니다.

작은아들 영호는 도산된데 대한 책임을 느껴서 그런지 그때로부터 집을 뛰쳐나가 행방불명이랍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외토리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어머니처럼 어리석지 않겠지요. 나처럼 살아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란 제정신을 잃고 자기 민족을 저버리면 망하는 법입니다. 민족성을 지키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해요.

제정신없이 민족성을 버리면 나라도 망합니다.

이제 비행기 떠날 시간이 됐나봅니다. 전 이제부터 평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시누이를 만나러 평양으로 가요.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운명희 러행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천천히 막이 내린다.

주체 86 년은 말한다

리명근

얼마나 많은 사연
얼마나 큰 뜻을 새겨안고
저렇듯 불타고있는가
이해의 마지막노을이어

떠나보내는 아쉬움
해놓은 일의 긍지로움에 잠겨
저녁노을을 바라보느라니
한해의 모든 날과 날들이
뜨겁게 말하고있구나

장군님을 맞이하던
설날의 만경대 눈보라소리로
그 눈보라를 안고
《고난의 행군》을 결속할 마음들이
가슴 설레이며 뎨 첫 발걸음소리로

말하고있다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그 감격과 기쁨
강산에 폭풍쳐오르던
류레없는 민족의 대환호성으로

결코 평범하게 추억되지 않을
그 모든 날과 날들이
흘러온 세월우에도
흘러갈 세월앞에도
뚜렷이 새겨졌거니

그것으로 소리쳐 말하고있구나
주체년호와 태양절
그 성스런 위업을 안고
충효의 화신이신 장군님께
목메이며 맹세다지던
천만심장의 울렁임으로

4월의 금수산기슭에 메아리치던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로
번함없는 봄축전의 노래
아바나의 하늘가에 울린
창창찬 주체조선의 목소리로
끝없이 말하고있구나

병사들과 함께 가꾼
황금이삭을 부여안고
왜서인지 땀에 젖고 눈물에 젖던
그 못잇을 가을날의
금나락 설레임소리로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80돛을 맞이하여
온 나라에 굽이치는
꽃물결의 환희로

끝없이 이어가신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
섬초소의 만세소리
구월산의 붉은 단풍...
강산도 사람도
더 붉게 물든 이 현해의 날들이
쉬임없이 그침없이 말하고있다

그 어느 갈피 번지여도
더듬을수록 가슴벅찬 나날들
해가 뜨고 달이 솟아
날과 날은 다름없건만
그 말속에서 바라보는 날들은
정녕 얼마나 열렬한것인가

시련앞에 용감하고
고난앞에 두렵없이
붉은기 더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인민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를
세계앞에 시위한 해

희망찬 새해의 아침노을에 이어질
저 붉은 마지막화광속에서
걸어갈 넓은 길이 비껴오나니
그 래일 향해 말하고있다

지나간 우리의 주체86년은
세월을 넘어
지울수 없는 그 자욱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메아리로
력사에 길이 남으리라!

아, 조선의 해
주체86년이어!

통일의 모습을 그리며

(총련)강명식

멀지 않아 떠나게 되는 어머니조국땅...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조국에서의 우리의 배움의 나날은 일생을 두고 간직하고싶은 보물과 같은 나날이었다. 이동안에 체험한 크고작은 모든 일들이 조국을 떠날 날이 가까와옴에 따라 주마등처럼 나의 머리속을 스치어간다.

내가 조국에서 배운 이 기간은 참으로 벅찬 시기였다. 날로 우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사회주의붉은기를 지켜가는 조국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직접 보면서 나는 인간의 참된 삶과 투쟁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었다.

다른 때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안겨진 배움의 행복이기에 나는 무게를 가슴속에서 거둬 보기 도하였다.

내가 누린 행복한 나날... 이역에서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돌봐주던 조국인민들의 어머니와 같이 살뜰한 손길을 나는 두고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조국에서 보낸 이 나날에 나는 조국통일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조국통일의 무게... 그것은 이역에 살면서 분단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나의 가슴속에서 날로 무거워져 새로운 느낌이었다.

통일조국에 대하여 생각할때 내 눈앞에 맨먼저 떠오르는것은 분단의 상징-판문점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였다.

한생을 오로지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가장 절절한 유훈-조국통일.

나는 그 친필비앞에 섰을 때 가슴이 몽클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수령님의 그 활달하신 필체에 우리 수령님께서 통일을 위하여 기우이신 한생의 로고와 심려가 새겨져있고 그와 더불어 수령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을 그리며 간고한 시련을 영웅적으로 헤쳐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오늘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있는것 같아서였다.

나는 우리 조국의 가는곳 마다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을 수많은 만났다.

만경대국영농장에서 만난 애젊은 농장처녀, 나와 한포레인 그 처녀는 조국의 포전을 난생처음으로 걸어보는 기쁨에 들뜬 우리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이 포전을 해마다 만풍년으로

만드는것이 더없는 기쁨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안락한 화원에서 그저 배우기만 해오던 나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가무스름한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으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날까지 허리 썰 생각이 없다고 말하던 그 처녀... 조용하면서도 똑똑한 그 어조며 수집음을 머금은 그의 얼굴... 조국의 포전을 바라볼 때면 그 처녀의 머리에서 설레이던 연보라색의 머리수건이 눈앞에 떠오르곤하다.

우리가 기념으로 두고온 손품금이 비물에 젖을 세라 자기의 비옷을 벗어 덮어주면서 작가들이 잘 있는가고, 그 누나들의 작문이 좋았다고 거듭 말했었던 대덕산의 나 어린 병사들... 오락회에서 이름을 떨치던 명가수 병사며 우스개소리 잔하던 소대장동무와 나눈 앞날의 꿈이야기가 아지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대덕산을 떠나면서 병사들의 굳은살 박힌 손의 뜨거움을 그들의 통일조국에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이야기와 함께 깊숙이 가슴에 새기었다.

조국의 최전연을 목숨으로 지켜온 그 꿈많은 전사들 사는곳은 서로 달라도 통일의 그날까지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소박한 맹세를 적어준 우리의 기념수첩에 그들은 오늘도 앞날의 즐거운 희망을 펼쳐가고있는지...

묘향산에서의 휴식의 나날, 신의주에서 왔던 수산물가공공상의 젊은 로동청년들과 나눈 즐거운 뽀트놀이의 한때... 푸르른 물결우에서 웃음과 희망과 랑만을 노래하며 떠들던 그 시각, 그들의 눈동자에 비낀 통일에로의 열망은 한창 타오르는 묘향산의 단풍들처럼 붉고 뜨거운것이였다.

비록 한 때의 만남이였어도 그 순간에 태어난 산뜻한 우정을 나는 통일의 희망으로 소중히 간직하였다.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속에 언제나 깔려있는 절절한 소망-조국통일.

참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나의 조국》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깃들 때마다 나는 통일을 더욱 강하게 부르게 되었다.

이제까지 나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가족을 통해 느끼는 리별과 향수의 눈물이였다.

나는 조국에서 배우는 동안에 외할아버지를 잡자기 여의었다. 조국에서 배우는 몸인지라 급병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나는 혼자 눈물을 흘리었다.

반세기기를 이역땅에 사시면서도 오직 조국의 하늘만을 우러러보던 외할아버지, 그런 외할아버지가 숨지는 순간에 그런것은 역시 정든 조국산천

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공화국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었다. 오늘 외할아버지는 파사로운 조국의 대지에 안겨 동명왕릉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해외동포묘지에서 잠들고계신다.

외할아버지의 파란만장의 인생행로는 곧 분단의 아픔이었고 우리 민족의 복잡한 운명의 축도였다. 나는 그 삶의 마디마디에 새겨진 깊은 애수를 통일의 갈망으로 여기며 자라왔다.

그러나 나의 통일에 대한 이 쓰라린 느낌은 사회주의조국의 나날속에서 밝은 양상을 가진 생활의 파업으로 전환되었다. 오늘은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통일조국의 밝은 모습으로 되어 나를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나의 통일소망이 뚜렷한 얼굴을 가졌던것이다.

그렇다. 통일은 곧 하나된 강산의 풍년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만경대국영농장 처녀의 빛나는 얼굴이며 가수가 되고싶다던 대덕산초소 전사의 노래소리 울려퍼지는 서울의 거리거리이며 서해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남조선인민들의 식탁에 올려주기 위해 분투하는 신의주 로동청년들의 보람찬 나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관문점의 친필비!

그 친필은 우리 인민들의 통일행복의 상징으로 삼천리강토 한복판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나는 올해 설을 조국에서 보내었다. 그때 나는 장생불로를 상징하는 소나무에 간절한 소망을 담

아 한가지 장식을 하였다. 자그마한 네알의 굴에 《통》, 《일》, 《기》, 《원》 네 글자를 토박토박 새겨 달았던것이다.

이 하찮은 아이들의 놀이와도 같은 일에 나는 절절한 진심을 담았다.

량심의 울림으로 새긴 그날의 그 녀자를 나는 내 펜대로 조국앞에 새겨가야 한다. 이것이 2년간의 배움의 나날을 끝내면서 다지는 내 새 출발의 결의이다.

아직은 너무도 미숙하고 무딘 내 글귀가 필승의 기치로 빛나기에는 멀고멀었지만 사랑하는 조국 인민들의 진정으로 행복한 그날의 화폭이 눈앞에 있는 한 나의 어린 붓은 량심의 한마음으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그리하여 가장 고결하신 충성심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내여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로고를 통일의 환희로 하루빨리 덜어드리리라.

내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조국에서의 배움의 나날.

이 나날을 영원히 간직하고 나는 이 땅에 통일이 올 날을 앞당기기 위해 나간다.

꺾여지지 않을 붓을 들고 지워지지 않을 진리를 사람들앞에 남기기 위하여.

내 작은 붓이 고르고고른 소박한 글줄들이 통일된 강산에 빛나게 새겨질 그날을 그리며 ...